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1999 9/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한지 가난한지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못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한국보육교사회	전두연	방과후 아동지도와 보육 : 관계와 전망	김재인	2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황미혜	5
	보육현황	유아교육법(안) 정기국회에 상정	편집부	20
	지역가이드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윤선영	23
		현직교사의 학습과정 연구		
	보건의복지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46
	특검	권역별 여름연수 그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순옥	47
		수도권 여름연수 뒷얘기	이주영, 고영미, 임민형	49
		전라도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유희임	52
		부산보육교사회 연수 일기	김경혜	53
	한국교육1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실재	박은하	56
	한국교육2	여름방학 동안의 - 주간 어린이집 1박 보육	김향진	62
	한국교육3	아이들과 떠나는 가을 박물관	조인숙	66
	편지	발도르프킨더가르텐국제연합에서 온 편지	윤선영 편역	73
	한국소식1	산나는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윤현진	76
	한국소식2	목이 편다해도 한없이 불러보고싶은	박미영	77
		광주전남보육교사회, 영민하라!		
	인물탐방기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편집부	79
	어린이와 건강	예방접종에 대하여	고시환	82
	아이들의 세상에 대하여	전주 금암어린이집 이야기	금암 어린이집	85
	좋은 그림책 소개	조심! 조심! 꽃구멍 후비기	김향희	86
	다이어트정보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김지희	88
	세상읽기	아쉬웠던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잔 건네보자	주혜민	89
	독소리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이야기 하나	김명선	91
	여행기	아! 지리산, 그곳에 가고 싶다	장영신	93
	여행기2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김정은	94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첫걸음-통합보육	김영명	97
	공동육아교사협의회	공동육아교사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박현숙	102
	연극놀이	연극놀이	한정혜	103
	보육계동향		편집부	111
	소식과 소식		편집부	113
	편집부에서		편집부	118

우리네 아이들

'99년 9/10월호

통권 71호

1999년 9/10월호(통권 71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편집인 박정애,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1999년 9월 1일



동글동글 손바, 팔뚝 팔뚝
별성별성 강의로
성공적인 영수준
마치고 모두들
만족스런 웃음으로
촬영!

방과후 아동지도와 보육 : 관계와 전망

김재인 ·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1.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보육의 개념을 가진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가 과한 후나 방학 중 또는 학교 시작전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을 통해서 보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습관의 형성과 함께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시기이다. 특히 정서의 발달은 인간성장 발달의 원천이고, 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열중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초등학교 시기의 특성과 함께 요즈음 아동들이 아동유기, 성폭행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아동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아동문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맞벌이 부부와 편모·편부의 취업활동을 돕고,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지도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동의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기존 취업여성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2. 방과후 아동지도의 현황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이 채택되어, 동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서울 소재 2개 초등학교(안산, 상암)에서 1995년 10-12월까지 2개월간 초등학교 교실을 개방,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아래의 것은 본래 원두언이 실려 있는 공간입니다. 편집부의 원고 심의 과정에서 김재인 선생님께서 원고의 시련을 못내 원고 내용이 원두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김씨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이후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1995.12)을 위한 공청회 개최(정무장관(제2)실·한국여성개발원)로 방과후 아동지도 담당 주무부처 선정, 관련법 개정 등 제제도입 방안에 관한 안이 마련된 바 있다.

1996년 1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16조) 시행규칙을 개정(1996) ‘방과후 아동지도’를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에 교과로 삽입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설치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6월 보건복지부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방안’ 발표, 3개년에 걸쳐 2,000개소(공립: 600개소, 사립: 1,400개소) 설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예: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근거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기준’(1996.10)을 제시하고 운영계획을 세웠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교과로 16시간을 배정하였고, 40시간의 ‘보육교사 재교육과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1995-1997년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익사업단’에서 방과후 아동사업이 법제화되기 전부터 3개년에 걸쳐 전국 76개 사회복지관에 7억여원의 아동지도 설치비를 제공(1997년 현재 서울 소재 사회복지관중 약 70%가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중)하였다. 1997년 한국여성개발원(삼성복지재단 후원)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하였고, 방과후 아동지도의 지표가 되게 한 바 있으며, 동년 한국여성개발원(경기도청 의뢰)에서 「동촌 지역의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를 수행하였다.

1998년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중 “아동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실을 개방,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할 계획(1개구당 약 2개 학교 예정)으로 있으며, 1999년 현재 복지관, 초등학교,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77개소의 방과후 아동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설치·운영기준”과 “초등학교내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요령”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고, 삼성복지재단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교재는 관련 교사 양성 및 아동교실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공부방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 아동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숙제지도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지도하고, 문제상황에 부딪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38개소중 26개소만 확인이 되었다.

1998-99년 2개년에 걸쳐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보조교사’를 배출,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 등에서의 아동지도를 돕게 하고 있다.

3. 방과후 아동지도의 향후 과제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를 상징하고 제시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법 및 제도 마련

- 다양한 법적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의 '아동보육법'으로의 통합,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 부처간의 협력 강화
-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교사의 전문성 향상

- 보육교사 및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과정 별도 이수
-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보육교사과정과 방과후 아동지도사과정(각 1,000시간)을 별도로 인정, 운영
-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 유아교사 양성과정, 청소년지도사, 아동지도사, 사회교육 전문요원 등 관련 교사 및 지도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지도' 과정 삽입
-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의 '방과후 아동지도' 시간수 증가
- 관련 교육과정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과목의 필수교과화
-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기준 보완
- 방과후 아동지도 보조교사의 지속적 배출, 지원

• 시설 기준 보완

-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보완
-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 개방
 - 시범학교 지정, 확대-전국 특히 농촌지역
 - 학교내 또는 지역사회내에 '아동회관' 설치, 운영
 - 기존 공공 및 민간시설의 개방, 운영
- 지역사회시설중 이용이 가능한 시설 활용
- 방과후 아동교실당 아동수의 조정

• 프로그램 다양화 및 보육서비스 관련 행정의 체계화

- 대상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질적 보호장치 마련 및 재정 확보
-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사회인들의 이해 도모
- 방과후 아동센터 및 아동정보센터 설립
-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격인정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
-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활동자 교육, 재교육 및 현장 배치
- 방과후 아동지도 시·도별 시범시설 지정
- 방과후 아동지도비용의 공공화 도모
- 보육시설 확충사업 평가 및 질 관리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리 : 황미혜 · 본회 교사정책단

머리말

1999년 을 한 해는 한국보육사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심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보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보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히 한데에 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개정의 움직임과 그 결과물은 그간 양적 확충에 급급해왔던 한국보육의 현실을 질적 향상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껏 우리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벌이고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법인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것은 그 것이 이후 파생할 결과들을 생각해볼 때 그 의의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98년 12월에 제출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에 개정안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동안 애초 7,590개소의 보육시설 확충을 계획으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8,928개소가 확충되어 목표대비 118%의 실적으로 당초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시설의 유형별로는 공공보육시설이 총 3,150개 목표에 1,673개소(53%), 직장보육시설은 1,440개 목표에 121개소(8%)가 확충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3,000개 목표에 7,134개소(238%)가 확충되어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하였다. 따라서 3개년 계획 실시 이전인 1994년 6,088개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192,000명이 보육되던 것이 1997년에는 15,016개 보육시설에서 493,000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시설수 약 2.5배, 보육아동의 수 약 2.6배가 증가하였다. 98년 3/4분기 현재 전국의 17,305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약 55만명을 보육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볼 때 보육율은 12.3%이며, 보육교사수는 총 38,000명 정도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초과달성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 주도하에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의 시설확충에 집중되었던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지원, 감독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행보일 것이다.

본 교사정책단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내용 중에서 다소 논의가 정리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리, 보고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글에서 인용하는 보육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은 199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 평가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를 인용한다.

몸말

단기간의 보육시설 대량 확충은 아울러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켰다. 정부가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보육교사와 교사양성과정(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해 자격을 엄격히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대량 배출은, 이들이 보육사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서 아동을 대하게 됨에 따라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건사회연구원 주도로 이루어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이하 '보사연의 평가서')의 보육인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평가는 보육시설 설치 지역과 설치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 699명과 보육시설장 266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 척도'를 통해 실시되었으며¹⁾ 보육교사의 전체적인 전문성 평가점수는 평점 5점에 평균 3.77,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의 평가는 전체 평균이 3.2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4.00 이상이 되어야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전체적인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미달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전체적 질적 수준이 보육교사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짚어나가야 할 것은 다름아닌 보육인력 즉 보육교사와 시설장일 것이다.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질을 높

이는 것은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은 아닐 듯 하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의도는 우리의 바람을 뒤엎고 여전히 보육사업,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보육의 질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번 (우리네 아이들 9/10월호)에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기준과 자격제도, 사전교육 등에 대해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보육인력의 자격기준

1) 보육교사

현행법에 의하면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자격을, (전문)대학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기타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실습을 마쳤을 경우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급수간의 전문성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2개직급체계가 바람직한가, 보육교사의 자격조건 자체가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급수간의 전문성 차이가 존재하는가는, 다시 말해 보육교사 1급이 보육교사 2급보다 질적으로 우수한가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 2급이 보육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면 보육교사 1급은 2급보다 더 나은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보사연의 평가서에 의하면, 시설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로 확인하였을 때 보육교사 2급과 1급간의 전문성의 차이는 보였다. 그러나 2급과 1급 모두 전문성이 낮거나 없는 수준에서의 비교이어서 결국 보육교사의 전반적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의 자격기준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은 자기평가나 시설장평가에서 모두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최하 자격등급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사연에서는 보육교사의 최하 자격등급의 질에 대한 조정과 함께 현행 2급체계에서 3급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즉, 현행 2급인 교육원 출신에게 3급의 자격을 부여하되 보조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현행 1급은 2급 자격을, 그리고 2급 자격 취득후 3-5년의 실무 경력자에게 1급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이다.

교육원 출신자에게 3급 보조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원 양성과정의 허약함을 1년의 현장경험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양성과정기간 연장이나 인턴교사제도 도입 등과 같은 주장들이 있었으나 불안정한 인턴제도나 수습교사제보다 보조교사제도가 노동시장에 정식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노동력 착취의 가능성을 배제한 훨씬 안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평가서에는 '복수교사제'를 제안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 30명은 정교사 2명이 보육하여야 하나, 복수교사제에 따르면 정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이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므로 유용하게 활용될

1) 본 평가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학계 관련학과 교수진들과 분야별로 평가, 연구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글에서는 통칭하여 보사연으로 한다.

2)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보육신념과 철학,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생활지도·일상생활지도, 교육활동지도, 영양·건강·안전관리, 물리적 환경관리,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관련 등 총 10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시설장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보육신념과 철학, 보육시설의 목표와 정책, 보육 운영계획과 수립, 인사관리, 영유아 관리, 물리적 환경관리, 재정관리, 영양·건강·안전관리,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관련 등 총 11개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표1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보건사회연구원 개정안)

지위체계	현행 자격 기준	개선(안)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보육교사 2급자로서 3년 경력 후 자격연수를 받은 자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는 경력 1년 후 자격연수를 마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영 제22조 제2항의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영 제22조 제2항의 별표3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을 각각 이수한 자로 8주간의 실습을 마친 자 3.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경과 이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친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포함하여 1,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보육교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보육교사 4급		1.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친 자 2.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친 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개반 20명 정원의 규모에 맞춰 교실설비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인 지금의 보육환경을 고려해볼 때 30명을 1개반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이 많다는 것에서 우선 복수교사제의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거나,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보조교사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단지 일과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를 벗어나 실제 보육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정교사에게 부담지우면서 아울러 보조교사를 지도하는 역할까지 이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로 처진 보육교사들의 어깨를 더욱 내리누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보사연의 평가서를 통해서 교육원 출신과 관련학과 출신과의 전문성 비교에서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약간의 차이는 보이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회 교사정책단에서는 보사연에 제안한 3급체계보다는 현행의 2급체계를 유지하되, 교육원 출신과 전문대출 이상 전공자 모두 2급을 부여하고 1급으로의 진급기간을 각기 달리하여 교육원 출신 2급이 1급으로 진급하는데 4년, (전문)대출이상 전공자는 2년의 경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안키로 하였다. 이는 현재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현행 1급(전공자)과 2급(교육원 출신)의 전문성의 차이는 인정하되, 그 정도가 급수차에 따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현실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교육원 출신에 대해서는, 교육원 출신이 보육현장에 바로 투입되었을 때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원 과정이나 자격부여 조건을 보다 강화(실습기간과 실습지도 감독의 강화)하여 최소한의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학력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급수는 같으나 진급기간에서 차이를 두어 결과적으로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였고, 그와 별개로 현재 보육교사 처우 자체에서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학력차 인정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자격급일 경우 유사정도의 전문성을 지녔는가에 대한 보사연의 평가에서는 2급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육교사 1급의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력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호봉이나 기본급에서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사연은 앞에서 거론한 자격기준을 토대로 보육인력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조보육교사·보육교사·선임보육교사·부시설장·시설장의 5단계로 지위체계를 설정하였다.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고, 거대시설이 아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운영자측에서의 직위체계보다는 일선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사선상의 직위체계 마련이 더욱 요구되므로 부시설장지위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원감, 주임, 선임교사 등의 이름으로 비공식적인 중간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교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교사-시설장간의 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3급체계보다는 현행 2급체계를 고수하되 2급(교육원, 전문대이상 전공자)-1급(보육교사·선임보육교사)-시설장의 직

3) 다만 그 평균값을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관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문대출 이상의 학력자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위체계를 두고, 각 지위별 역할을 법령체계 속에 명시, 지위별 직무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1급 ---> 시설장 (보육교사 -> 선임보육교사)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4년	3년	3년
(전문)대졸 이상 전공자	2년	3년 3	년

덧붙일 것은,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최대지출항목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전문성이 축적된 1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부담이 낮은 2급을 선호할 경향을 방지하여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원에 따른 일정비율 이상 1급 보육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보사연의 개정안에서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에서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본회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영유아보육과 별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분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마지막에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시설장

그동안 시설장 자격 부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경험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한 것과, 무자격의 기존 시설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시적 단기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설장들이 대거 양산되고 말았다.

이번 보사연 안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보육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000시간의 양성과정만 마치면 경험이 없이 바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가정보육시설도 현행 1급 이상 1년 이상의 보육활동 경험이 있는 자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 영양사, 간호사, 공무원 등에게도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할 여지가 있겠다.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영유아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상 생활지도를 위시하여 전반적 시설운영을 잘 수행하느냐가 보다 관건일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해 정통하다고 해서 영유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사, 영양사, 간호사 역시 초기 보육시설을 사회적으로 들여다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시설장 자격이 개방되었던 것이었으나 현재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고, 또한 보육의 질을 거론하는 단계에서 이들 역시 아동의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학 혹은 영양에 대한 전문성 하나로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시설장의 자격을

표2- 시설장 및 부시설장 자격기준(보건사회연구원 개정안)

지위체계	현행 자격 기준	개정 (안)
시설장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 경력 후 자격연수를 마친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2. 교육부에서 박사학위를 등록한 자로 영 제22조제2항의 별표3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3과목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을 각각 이수한 자로 8주간의 실습 및 자격연수를 마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6년이상 종사하고 자격연수를 마친 자
	4.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간호사, 영양사로서 보육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보육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7.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마친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1. 삭제(96.1.6)	11. 파동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12. 삭제
부시설장	해당사항 없음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가정보육 시설장	해당사항 없음(다만 시설장 자격증 보육교사 2.1급은 40인 미만시설 운영)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보육경력 1년 이상으로 소정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는 그 대상에서 유의점이 있는 관계로 통과기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업무와 보육업무가 내용상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나, 이 역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동보육에 대한 업무를 1년 이상 하였을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실제로 보사연은 확충계획 평가 연구에서 시설장 일명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가정(관리, 교육)학과를 졸업한 보육교사 1급, 그리고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수료자의 4집단으로 구분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비교해본 결과, 이들은 시설장 전체의 전문성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장의 전문성 수준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보육시설장의 전반적인 전문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장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공무원, 의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에 대해서는 2개의 안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현재 발표된 시행령안을 보자면,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교육원 출신의 경우 종전과 같이 8년의 과정을 거치면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시행령안에서 교육원 출신을 3급 보조교사로 채용하게끔 한 것과 연관시켜볼 때 오히려 교육원 출신의 시설장의 질은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시설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성 수준도 높게 나타나며, 30세 이하의 시설장은 총 11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고 2점대(전문성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음)의 점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 많을수록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경력 3년 이하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낮고 전문성이 낮은 2점대의 점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가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정기간 이상 보육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상담, 지역연계 등 실제 시설장으로서 나름의 경륜이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 바 연령 제한은 실제 필요하다. 그러나 연령제한을 법령화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시설장 자격 강화라는 두 축을 연관시켜 봤을 때, 앞서 본회 교사정책단에서 제안한 직급-지위체계를 따르면 고졸자가 바로 교육원을 거쳐 보육교사를 하다 시설장이 되는데 최소 11년이 걸리므로 30세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연령 제한을 통과하게 되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자격증제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보사연이 내보인, 눈에 띄는 제안 한 가지가 바로 자격검정고시의 도입이다. 제안은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3급자에 대한 시험검정과 보육교사 2급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3급체계가 아닌 2급체

표3- 시설장 자격기준(한국보육교사회 안)

지위체계	1인	2인
시설장	1. 보육교사 1급을 가진 자로 6년 이상의 보육시설 종사경력 후 자격연수를 마친 자	1. 화동
	2. 교육부에서 박사학위를 등록한 자로 영 제 22조제2항의 별표3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3과목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을 각각 이수한 자로 8주간의 실습 및 자격연수를 마친 자	2. 화동
	3.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6년 이상, 이중 보육업무 1년 이상 종사하고 자격연수를 마친 자	3. 화동
	4. 삭제	4.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육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5. 삭제	5. 간호사, 영양사로서 보육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6. 삭제	6. 간호조무사로서 보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연수를 마친 자
	7. 삭제	7. 화동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마친 자	8. 화동
	9. 삭제	9. 화동
	10. 삭제	10. 화동
	11. 삭제	11. 화동
	12. 삭제	12. 화동
선임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화동
가정보육시설장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보육경력 1년 이상으로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친 자	화동

계를 주장하므로, 보사연이 언급하는 3급자, 2급자 대신 교육원 출신, 대졸 전공자 출신으로 지칭하려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원 출신에 대한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필기시험⁴⁾의 방법

4) 개정안에서 제시한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총 5과목으로, 1. 영유아발달론 / 2. 영유아보육론(보육학 개론) / 3. 영유아건강생활지도 / 4. 영유아교육과정 / 5. 아동복지론 등이다.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과목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시험으로 출제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에 의해 진행하되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대졸 전공자에 대하여는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로 필수교과목 10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실습은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만을 인정)로서 이수과목 에서 매과목 6할 이상, 평균 7할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자격제도는 일정 교육과정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과 함께, 보육교사로서의 자기신념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자동적으로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 역시 엄청난 수로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질 관리, 보육교사로서의 자기인식 고취 등을 도모하고자 자격증 제도 도입이 제안된 것이다. 자동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 자격증 부여라는 점에서 이는 전반적으로 환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 즉 시험검정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의가 일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획일화된 시험의 형태를 통해 검증받는 데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오히려 보육에 대한 자기신념과 아동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이 전문성 판단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항목들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 준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행의 자동적 자격부여체계 자체의 문제점을 들어 어떤 형태든 보육교사로서의 자격부여에 엄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제시된 시험검정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본회는 이를 실습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물론 지금과 같이 느슨한 형태로 진행되는 실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습기관인 보육시설과 실습지도를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현행 1개월의 실습기간을 대폭 늘리고 실습기간 동안 교육원에서 일지만이 아니라 과제를 제출 등을 통해 별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여 실습을 보육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육원 양성과정에 삽입된 실습을 보강하여 정해진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고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자격제도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3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의 보육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에 명시되어있다.

3. 사전교육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에는 사전교육과 재교육, 사회적 인식과 작업 환경 등

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사전교육은 다시 보육교사교육원과 (전문)대학으로 나뉠 수 있다. 교사정책단에서는 이중 사전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내용상 보육교사교육원과 대학의 이수과목에 대해 나누어 정리한다.

1) 보육교사교육원

올 5월 제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개정안에는 교육원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 교육원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분간 예상되는 시설확충이 없는데다 매년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학과 졸업생수를 볼 때 보육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기간의 시설확충을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신설·운영조건을 비교적 용이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 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교육원 관계자들의 반향도 엄청날 것이고 현실적 으로 당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육원을 강화하여 그곳에서 배출하는 보육교사들의 질 역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사연은 보육교사에만 한정하여 사전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한 5가지 변인⁵⁾을 중심으로 현직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 영역에 걸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원 출신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원의 문제점은 1) 교육원 이론 및 실기교육 내용에서는 실기교육 부족,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부족, 과목간 유사성 및 중복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2) 교수 인력에 관하여는 강의내용 미흡이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으며, 불성실한 강의 태도나 강의준비 부족 역시 제기되었다. 3) 현장실습은 주로 기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습기관으로는 부적절한 가정보육시설이나 반일제 중심인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또한 보육교사 2급에게 실습을 지도 받는 경우도 23.8% 이상 나타나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지도교사의 자격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1개월의 짧은 실습기간과 기타 잡무 위주의 실습내용, 실습생 관리 미흡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4) 교육환경 중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생 과잉모집, 행정관리 미흡, 행정의 일관성 부족이 주요문제로 지적되었다. 5) 마지막으로 교육원 교육기간과 향후 교육기간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1개월 실습을 포함한 1년과정은 17.6%만이 찬성하였으며 1년 6개월 과정에 51.7%, 2년 과정에 30.7%가 찬성하였다. 아울러 바람직한 실습기간으로는 6개월(44.9%), 2개월(37.5%)의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교육원의 보관서류가 대폭 축소되고 학적부 보관이 필수적이지 않는 등 교육원의 학사관리에 허술한 점이 존재한다. 교수요원 역시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만 규정하여 교육원의 교수요원을 대부분 경험이 짧은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있는 현실이다.

교육원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원의 질을 높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학사관리의 질과 교수진의 수준을 높여내고, 교육원의 인원수 배정과 교과과정에

5) 평가는 교육내용(이론/실기), 교수인력(이론/실기), 현장실습(실습내용/지도교사), 교육환경(행정/시설)과 교육기간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교육원(대학부설/민간)과 대학(전문대/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매겼다.

대한 점검과 수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완화되었던 교육원 학사관리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역시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보육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중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보사연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교수요원의 자격을 3년 이상의 강의 경력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환영할만 하겠으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에 대한 외래교수 자격 부여를 유지하는 것은, 시설장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자격이 삭제된 마당에 그 존재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교수요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교육원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교수(예: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를 일정명 채용하도록 하여 교육원 교수요원들을 지원·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수과목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에 보육교사교육원과 (전문)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원과 대학의 이수과목 분류체계가 각기 다름으로 해서 두 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은 차치하고 동일과목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사연은 새로운 교과 분류(아래 표 참조)를 하였는데, 현행 복지부 지침의 분류보다는 새로운 분류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교과목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 제시된 과목과 유사한 경우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수과목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해두었다는 것이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통틀어 5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여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실기과목 등을 들어 요구되는 과목수를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하고 보육활동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반면 선택과목을 각 분류별로 1과목씩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보육활동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들이 허약한 단점을 안고 있다. 이는 현재 이수과목을 총 10과목으로 지정하는데서 벗어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난 문제로 보인다.

이수과목의 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원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37개 과목 중 30-37개 과목 이수에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반면, 대학의 경우 10개 과목 68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현행 1급 자격이 나온다.

교육원과 대학 출신자에 대한 자격이 다르게 부여된다는 것은, 즉 2급과 1급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급수별 전문성이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2급과 1급간의 전문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숫자만을 놓고 고려해볼 때 과목수나 수업시간에서 오히려 교육원이 대학을 앞서고 있다. 물

표4- 영유아보육 전공 교과목의 구성(보건사회연구원 안)

구분	전공 교과목	이수과목	
필수과목 (5)	보육론, 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 보육과정(계획), 보육실습	5과목	
선택과목 (5)	영유아 발달과 교육	발달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유아교육철학, 유아교육론,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놀이, 영유아 사회생활, 영유아 언어생활, 영유아 탐구생활, 영유아 음악 및 율동, 영유아 미술 및 공작, 교과교재연구, 유아프로그램 개발, 유아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방과후 아동지도	1과목 이상
	일상생활, 개별지도	영유아 생활지도, 아동심리학, 영유아상담과 지도, 영유아 일상심리 및 진단, 심리검사(측정), 상담심리학, 특수아의 이해와 지도, 영유아 관찰, 아동행동연구, 학교사회사업론	1과목 이상
	건강, 영양, 안전	영유아건강생활지도(건강,영양,안전), 정신건강(위생)론,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응급처치, 소아의학, 영양학, 아동간호학	1과목 이상
	가족, 지역사회 연계	부모-아동관계론, 부모참여와 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가족치료, 가족자원관리, 가정생활교육론, 자원봉사론, 인간관계론, 지역사회관계(복지)론	1과목 이상
	영유아 보육운영과 실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평가론,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리, 공공가정 경영론	1과목 이상

주 : 1) 보육실습은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 동일체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상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아복지시설)에서의 실습만을 인정

2) 교과목 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3) 학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함. 단 대학원의 경우 과목당 2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론 교육은 그 양과 함께 교육환경이나 교수인력 등 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원의 경우 과목수는 많으나 중복되거나 현행 2급자에게 요구되지 않는 과목이 배치되어 있고, 내용이 빈약하나, 대학에서는 한 개의 과목에서 보다 폭넓고 깊은 교육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급차이에 따른 교육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최소한 교육원 수준 이상의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력 교육시간을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2년제 대학 이상의 유아교육, 아동, 아동복지 등의 학과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관련학과나 비전공 대졸자에 한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10개 과목만 들고 현행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전문성 강화와 역행한다고 여겨진다.

교육원과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대학의 수업시간이 조정되면 결과적으로 이수과목수, 곧

선택과목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영유아발달과 교육, 일상지도, 개별지도와 같은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수과목수를 자동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원은 최소 2년간에 걸친 대학과정을 1,000시간의 교육과정 속에 축소하여 배치하려는 것 보다는 교육원의 특징에 맞는 교과배치가 필요하다. 즉 각 직급별로 기대되는 역할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요구되며, 양성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격연수나 실무연수 등과 같은 재교육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원의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여타의 교육과 별개로 처리, 강화되어야 하며 앞서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교육원의 강화를 다루면서 거론하였기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한편 이수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학과에 대한 논의는 핵심학과로는 아동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인접학과로는 사회복지, 사회사업학과로 두고 장기적으로 보육인력의 공급이 이들 학과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육인력의 진정한 전문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되었다.

4. 방과후 아동보육(지도)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해서 보사연은 건강과 안전, 학습환경, 교육과정, 교사-아동간의 상호작용, 일과계획, 개별화 등 총 6개 영역에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35%의 매우 낮은 평가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영역별 평가에 앞서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이 없는 관계로 방과후보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만 위의 영역별 평가에서 보다 유의미한 통계가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내의 방과후보육에 대한 근거는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법제16조)는 것과, 보육교사 1인당 방과후 아동 30인까지 보육할 수 있으며, 30인 초과시 1인씩 증원토록 하며, 방과후 보육 담당교사는 기존 보육교사 인력으로 충당하되 양성교육 훈련과목에 방과후보육 관련과목 신설 및 재교육 강화를 꾀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에 국민연금기금 500억원 추가 용자한다는 것이 시행령과 지침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방과후보육을 복지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교육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과후 보육이 단순히 열린교육의 한 통로가 아니라 취학아동으로 하여금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해주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의 발달권, 생활권, 교육권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의 특성상 복지부-교육부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겠다.

복지의 기본적 관점 하에서 현재 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법제화하는 모습은 세가지로 나

타난다.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보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법에서 이를 담아내는 것, 나머지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 (가칭)아동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기서 아동대상의 각 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동의 내용을 담고 그외 개별적 내용을 하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담아내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 번째 안의 경우 당장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의성과 맞물려 생각해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을 주장하는 측은 방과후 아동보육 역시 '보육'의 커다란 틀 안에 분류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바라본다. 때문에 대상의 연령이 다를 뿐 '보육'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사항에서의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방과후 아동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동일 시설내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간을 찾아 분리하여 보육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방과후 보육의 시설기준과 교사기준, 보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양성과정, 운영기준 등이 영유아보육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질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의 명칭을 아동보육법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0-12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현실적으로 그리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아동복지법은 그 대상을 8-18세의 아동으로 하고 있어 방과후 아동보육과 그 대상에서 일치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주로 아동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를 다루고 있어,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후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되기에는 전반적인 법의 경향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여전히 보편적인 서비스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비교된다.

현재로서는 방과후 보육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보이나, 본회 교사정책단에서는 아동복지법 내에 방과후 보육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보았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는 다시 말해 방과후 보육이 이행되는데에 필요한 교사자격과 양성과정, 시설기준, 운영기준, 보육프로그램 등이 영유아보육과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영유아에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우려하여 영유아와 취학아동의 분리보육을 주장되고 취학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추후 어느 법체계에서 담아내느냐의 문제와 관계하여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본 글에서는 방과후 보육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영유아보육과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만 정리하고자 한다.

맺음말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올해는 우리의 보육현실을 중간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여성인력의 사회진출과 핵가족의 확산, 사회가 가정과 육아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 등 사회적 변화로

보육정책

인해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급속도로 팽배해지고 이를 일정정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던 보육 시설 확충계획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긍정적 평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행정편의에서 나온 계획 이행으로 아동이 전문인력에 의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정적 실수를 남게 되었다.

아동이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편의나 각종 지원을 제공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최우선적 이해에 기반한 보육사업의 기틀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보육단신

유아교육법(안) 정기국회에 상정

편 집 부

지난 9월1일 정회경의원 외 9인의 발의와 정회경 의원 외 94인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유아교육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幼兒教育法(案)

提案理由

유아의 보육기능과 교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아의 교육 및 보호와 관련한 사립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저소득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적 결핍의 보완에 필요한 유아공교육체제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도 조화로운 발달과 성장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主要 骨 子

- 가.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유아학교를 설립·운영하며, 시설·설치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 나. 국립대학교 부설 유아학교는 국립으로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사립유아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안 제6조).
- 다. 교육부장관은 유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함(안 제9조).
- 라. 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함(안 제15조).
- 마. 유아학교는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은 유아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자가 선택함(안 제17조).
- 바. 유아학교는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등인 유아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유아의 인성 및 예체능 교육을 위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함(안 제18조).
- 사. 유아학교의 장은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9조).
- 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20조).
- 자. 유아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보호자의 소득수준, 지역, 운영시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받을 수 있음(안 제21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 대상유아 이외의 유아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아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안 제22조).

- 가. 교육감은 유아학교가 유아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아학교의 장 또는 그 설립·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안 제24조).
- 타. 이 법 시행당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학교로 병(안 부칙 제2조).
- 파. 이 법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종교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아관계 시설이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구비하여 유아학교로의 전환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학교로 병(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 하. 이 법 시행당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장 및 교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사회교육법상의 학원의 장 및 강사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안 부칙 제6조).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직 교사의 학습과정 연구

이책의 주제는 윤선영선박님이 1997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우리아이들의 독거기에
개도 소개합니다.

윤선영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는 보육교사양성훈련원을 졸업한 교사 뿐 만 아니라 그 외 보육교사 자격으로 인정된 관련 학과를 졸업한 보육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37,977명에 이른다(보건복지부, 1998: 283). 보육아동의 수도 증가하여 5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보육의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따라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발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많은 연구작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사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내용적인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은 보육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사회화 하고 보육의 질적인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현직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절실하다고 한다. 이는 보육시설을 위한 전문적이고 고유한 교육안 발달과 더불어 교사의 자격 및 재교육 수준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과정이 현장활동에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교사교육 기관 간의 연계성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다양한 민간시설을 개방하여 보육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칫 지정된 교과중심교육으로 획일적이 되거나,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지 못하고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를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설 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사 개인이나 각 시설의 개별적인 것으로 축소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교사들이 어떻게 현장활동과 연관지어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는 보육교사의 양적 확충보다 이미 배출된 현직교사들의 질을 재교육을 통해 어떻게 관리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기존의 교사양성교육과정 또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형식적·내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로서 본 연구는 교사에게 필요한 학습과정을 연구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교육활동의 질적 변화를 위해 교사에게 기초적으로 필요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
- 2) 현장에서 보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술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 3) 위의 학습과정은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4) 어떠한 자료가 현장활동에 도움이 되며 적절한 참고 방법은 무엇인가?
- 5) 재교육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따라서 연구내용은 교사의 문제의식의 발달, 학습되어야 할 능력과 기술 및 학습방법, 학습 자료를 포함한 학습과정의 특성, 그리고 재교육자의 역할로 구분되어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지난 1997년 11월 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발표했고, 1998년 3월 동 학회지 제 13집에 <보육교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기고된 논문의 후속 연구로서, 필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재교육 내용이 보육교사가 안고있는 현장의 문제가 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면, 그 주제를 어떻게 발달시키고 작업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학습과정이 본 연구의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활동과 학습과정에서 표현한

교사의 의견과 행동방법에 대한 잘못을 조사자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배제하고, 가능하면 교사 스스로 학습과정을 구성하고 활동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과정을 밝혀 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교사들의 학습능력에 대한 현장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조사로서 교사들의 학습과정 특성을 밝히는데 충실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재교육의 주요기능과 역할

우리나라 보육교사 재교육의 주요 기능은 보육교사의 질적 관리이며, 보수교육과 자격연수로 구분되어 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교육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편성하고, 자격연수는 지위체계에 따른 새로운 역할수행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8: 389). 재교육 내용은 교과과정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므로 현장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의 관심사와 문제점, 그리고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희자와 이선경(1996)에 의하면 교사발달에 따른 훈련의 요구요소인 성숙, 경신, 강화, 생존에 대한 관심사 조사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나 보육교사양성과정 졸업자 모두가 비교적 높은 관심사를 보였다. 교사교육이나 재교육이 근본적으로 현직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한임순 외, 199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성영혜, 1994) 등에 의하면 보육환경과 교사 개인적 특성변인이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교사의 정서적 고갈상태와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의 교육관과 원장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연구(김연진, 1995)는 시설 내의 협력작업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훈련교육은 그 내용과 체계가 빈약해 현직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고 보수교육 또한 '놀이지도의 이론 및 실제', '부모교육방법', '가족상담' 등 교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강화되어야 하는 실태이다(권혁진, 1995). 이는 현직교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주제로 삼아 실제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선행된 연구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 주안점으로 재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해 보았다.

- 1) 교사에게 필요한 실제적·이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 2)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하므로, 교사들이 제안하는 테마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3) 교사의 인성발달, 창의적인 활동능력, 문제 해결력을 익히게 한다.
- 4)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이 고려되면서 보육활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
- 5) 위를 수행하려면 재교육이 성인교육론에 근거를 두고 교사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관리해야 한다.

2. 교사의 학습이론

위에서 살펴본 재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본 연구는 교사의 학습이론으로 Schmitz(1984)와 Arnold(1996)의 성인교육론과 독일 청소년연구소(Jugendinstitut)에서 개발한 교사의 전문성 관리 및 질적 향상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Schmitz는 현대인의 성인교육을 “정상인을 위한 치료교육”(Therapie fuer Normale)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성인 개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개인 의, 집단의, 혹은 사회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책임이 점점 확장되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인간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도덕과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인자신(I), 역할(Me), 그룹, 사회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학습과정에 포함시켜, 기존의 일반적인 성인교육에서 나타나는 집단성과 외적학습이라는 제한성을 극복하고, 성인 개개인의 인식, 창의력, 문제해결력 발달 및 지식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Me”(사회적·직업적 역할)와 “학습자그룹”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는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위해 그룹 안에서 공동의 규칙과 행동을 배우며 타인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 2) “Me”와 “사회”와의 상호작용: 학습자는 매디언을 통해 주로 물적인 정보를 습득한다.
- 3) “I”(나)와 “Me”와의 상호작용: 이것은 학습자 자신의 욕구와 외적 학습요구간의 상호작용 함으로써 개인적 삶을 의식화 하고 행동양식을 표현하여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1), 2)가 외적 학습이라면 이는 내적 학습에 속한다.
- 4) “I”와 “학습자그룹”과의 상호작용: 학습자는 그룹 안에서 개개인의 느낌, 욕구, 희망사항을 교환하며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Feedback).
- 5) “I”와 “사회”와의 상호작용: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의 상호작용으로서 예술적, 감성적, 종교적 경험이 이에 속한다(Schmitz, 1984: 117).

Arnold(1996)는 “지식은 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경험이 담긴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쉼어지며 구성된다”는 구조적 인지주의와, Holzcamp(1993)의 학습자 스스로에 의한 “학습근거” 설정을 주장하면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학습목표, 내용, 유형을 구성해 나가는 “해석학습”(Deutungslernen)안을 제시하였다. 해석학습에서 성인교육자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어떠한 전형적인 능력을 배우고 발달시키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구성적 학습”안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성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70년대 초 유아교육개혁 당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 청소년연구소에서는 Kindergarten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수행하는데 교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커리큘럼 수행시범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에

는 새로운 교육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교사 자신의 활동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Krappmann, 1984: 48). Kindergarten교육은 시설 내 외에서 어린이와 어른(교사, 부모)이 함께하는 삶에 얼마나 다양한 학습 및 경험 가능성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질은 자신의 경험과 현장문제를 수집하여, 동료교사들과 교환하며, 그것에 몰두하여 작업할 때 향상되었으며, 실제적인 활동과 재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교사 자신을 위해서나 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olberg-Schrader, 1984: 161-162). 이러한 결과는 대화적 재교육 학습방법 즉 시설 내·외의 팀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3. 보육활동의 질적 관리 및 향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것은 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질을 어떻게 관리, 평가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평가 부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영석(1989), 임재택(1983), 이은혜와 이기숙(1996), 이순형(1996) 등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문가에 의한 표준평가척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실제상황과 연결하여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은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분량이 광범위한 뿐 아니라,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평가가 교사 개개인의 개별적인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국외 자료로 독일 Kindergarten의 관련자(관계부처의 전문가, 재교육자, 현장교사, 원장, 부모) 모두가 함께 개발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그 연구에서는 보육활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를 “적응”, “낮잠”, “식사지도”, “자유놀이”, “위생 및 성교육” 등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 테마를 발달시키고, 각 테마 분야마다 질적 “표준평가수준”(Qualitätsstandard)을 7가지로 구분하여 준비단계, 수행단계, 발달단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2, 4, 6 단계는 공백으로 놓아 각 시설의 반 교사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다(Ziesche, 1996: 1997a; 1997b; Bezirksamt Reinickendorf 1996). “표준평가수준”을 문 목적은 각 시설의 원장과 교사가 현재 수행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관계부처의 통제적 수단과 획일적인 보육활동에 대한 염려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자율적인 참여와 질적 수준의 구체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는 의미를 두고 있다. 지면의 한계 상 “적응” 분야의 <적응의 실시단계>를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준평가수준”의 의미는 평가의 기준과 내용이 현장교사와 학자 및 전문가, 부모가 함께 결정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방적 특성, 시설유형의 유형과 환경, 교사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융통성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질적 관리 및 평가 과정 자체가 재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방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활동의 질적 관리 및 향상은 교사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자기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중심을 두고 연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표1 표준평가수준의 "적용" 실시단계

단계종류	적용실시(3세 미만의 영유아 적용)	3세에서 취학이전의 유아적용
표준 7	어린이가 교사를 관계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공적인 분리가 이루어짐. 분리시도 후 어린이가 힘들어 하는 정도에 따라 머무는 시간과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점차 늘려간다. 부모는 어린이가 시설에 머무는 동안 시설에 머문다. 부모에게는 그날이 어린이와 잠시 떨어져서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있을 공간이 시설에 마련된다. 적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모와 함께 있는 계속적인 시간을 계획한다(INFANS 참조).	적용의 준비, 교사와 신뢰감 형성 과정에서의 부모 참여와 같은 원칙은 큰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땅하다. 원칙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세워지고, 보충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있다.
표준 5	성공적인 분리시도 후 어린이의 머무는 시간과 분리시간을 점차 늘려간다. 부모는 성공적인 분리시도에서 적응이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몇분) 다시 아이에게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적응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모는 계속 그룹에 머문다(INFANS참조).	부모의 준비, 적응이 될 때 까지 어린이와 동반하는 부모참여와 같은 표준 5의 적용원칙은 큰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원칙은 어린이의 발달을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세워진다.
표준 3	분리시간을 늘린다. 부모는 아이와의 성공적인 분리 후 전화로 연락하여 짧은 시간(몇분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적응이 길어질 경우, 부모는 시간적으로 짜여진 모델 없이 그룹안에 계속 머문다.	큰 어린이들은 표준 3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적응은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하게 융통성 있게 형성된다.
표준 1	부모는 어린이와의 분리 후 전화로 연락하여 짧은 시간(몇분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곳에 머문다.	큰 어린이들은 표준 1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적응은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하게 융통성 있게 형성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은 영아반, 유아반, 방과후 아동지도반을 모두 포함한 보육교사들로서 4그룹이었다. 각 그룹에 참여한 교사의 수는 5-13명이었으며, 그룹작업을 통해 조사되었다. 기간은 1996년 9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그룹작업은 2주에 한번씩 모여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른 현장관찰록을 담은 연구일기 작성, 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으로 교사들에게는 Cohn(1975)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Themenzentrierte Interaktion), Altrichter와 Posch(1990: 1994) 그리고 Fischer(1997)의 연구일기작성법, von Spiegel(1993: 1995)과 Heiner(1995)의 "자기평가법"(Selbstevaluationsansatz)이 적용되었으며, 조사자는 "자기평가법"과 "참여조사방법"(action research)이 사용되었다. "테마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방법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로 하여금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여 재교육을 위한 학습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학습을 위한 참고자료 또한 조사자와 교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일기작성법"은 교사들이 스스로 현장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사용하였고, "자기평가법"과 마찬가지로 관찰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는 교사들이 작성한 연구일기와 토론기록 및 녹음내용이다. 조사자의 역할은 그룹작업을 이끌기 위해 사회를 보고 토론시 모더레이션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조사자의 의견은 가능하면 통제하고 교사들의 발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토론의 주제해석, 토론 내용의 요약, 불투명한 의견에 대한 질문, 학습자료(참고문헌)제안, 주제작업의 종합정리를 주요과제로 삼았다.

조사내용은 문제의식면, 학습되어야 할 능력 및 기술면, 테마학습의 특성면, 학습자료면, 재교육자의 역할면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Lamnek(1995)과 Glaser, Strauss(1979)의 질적인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작성한 연구일기와 토론기록의 내용을 위의 조사내용면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고, 그 특성을 석의(Paraphrasieren)와 해석(Interpretieren) 방법을 사용하여 특성을 분석했다. 질적 조사방법의 특성으로는 조사자의 열린 자세를 중요시 하는 개방성(Offenheit),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화법(Kommunikativitaet), 인위적이거나 강압성을 배제하는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istizitaet),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해석적 설명(Interpretativitaet)을 주로 사용하였다(Lamnek, 1995: 17-20).

4. 본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교사의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야기된 조사자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다. 또한 질적조사방법으로 특정한 그룹의 작업을 통한 재교육의 사례에서 결과를 이끌어 내었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재조사 또는 양적 조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 더욱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연구자료의 사례를 일일이 들 수 없음을 밝혀둔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사의 문제의식

교사의 문제의식은 주제를 정할 때, 주제에 몰입하는 동안,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발달시킬 때 더욱 심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처음에 실제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동의 주제로 정하지만, 일단 주제에 몰입하게 되면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의 전형적인 4가지 유형을 나타냈다.

- 1) 주제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의 활동원칙 및 규칙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이미 문제의식이 있었다.
- 2) 주제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의 활동원칙 및 규칙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를 다루는 동안 문제의식이 발달되었다.
- 3) 주제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의 활동원칙 및 규칙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이미 문제의식은 있었다.
- 4) 주제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의 활동원칙 및 규칙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제를 다루는 동안 문제의식이 발달되었다.

교사의 활동원칙 및 규칙이 뚜렷하게 드러난 주제는 "체벌", "식사지도", "재물잔치", "낮잠", "영아의 하루일과와 교육활동", "아외학습", "새로운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은 각기 달랐으며 주제에 몰입하여 작업하는 중 문제의식이 발달되었다. 그 과정은 1) 일상적 의식 → 2) 관찰의 목표설정 및 관찰 → 3) 활동원칙 및 규칙의 서술 또는 도입 → 4) 관찰의 목표설정 및 관찰 → 5) 질문 및 새로운 발견 → 6) 관찰의 목표설정 및 관찰 → 7) 질문 및 새로운 발견 → 8) 활동원칙 및 규칙의 변화 → 9) 관찰의 목표설정 및 관찰 → 10) 질문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상황관찰을 통해 그리고 활동원칙 및 규칙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발달되고 있었으며, 학습과 활동에 변화를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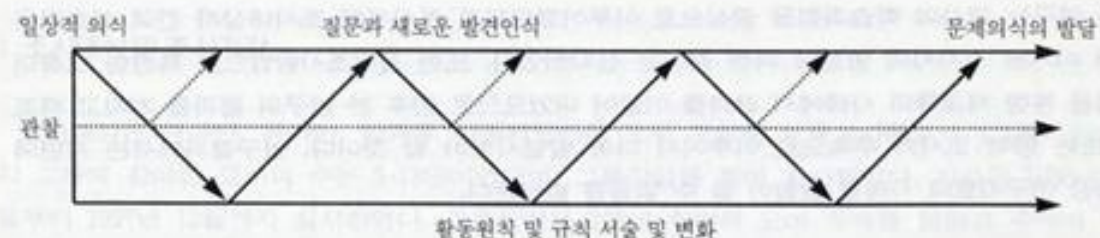


그림 (I)

2.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및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교사들은 중요하게 익히고 습득해야 하는 능력 및 기술을 그들에게 결여된 절실한 문제로, 익히고 싶은 욕구와 과제로 또는 재교육자에게 바라는 기대로 표현하였다. 이는 곧 각 주제작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특히 토론의 맥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발견과 변화, 대화능력, 상이한 의견과 행동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개별적인 교육구상, 대안찾기, 교사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 능력, 감정적 소화작업에서 인지적 소화작업으로의 발달 능력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에 대한 발견과 변화

교사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에 치우쳐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 "인내심"은 특히 어린이들이 아직 연령의 특성상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음을 알면서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거나 식사시간과 수업 중 바르게 앉아있기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는 면을 표현하였다. "감정에 의한 반응"은 특히 체벌을 할 경우 아동의 행위에 근거하기 보다 특정한 아동에 대한 증오심 또는 미워하는 감정에 의한 것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관찰하여 파악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자 했다. 자신에 대한 발견은 자신의 연구일기와 타교사의 발표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교사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넓어지면서 자신의 행위 중 교정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변화를 시도하였다. 처음에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기성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를 위해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 향상"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에게 기대하는 요구로 "아동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졌었으나, 교사로서 아동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와 같은 성질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어 "아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아동의 부정적인 면(못됨, 공격적임)과 긍정적인 면(진지함, 사랑스러움, 풍부한 상상력)을 서술하였으나, 아동이 주변의 어른(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아동과의 상호작용 유형"을 "동등한 눈높이와 신체적인 상호작용(예: 안아주기)", "아동의 감정표현에 적극적인 반응", "활동의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향상", "경험과 신체적 활동을 강조하는 활동제공"을 발달시킴으로써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자신에 대한 변화는 특히 보육교사라는 직업관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질적 향상과 전문화가 곧 직업관 형성과 일치한다는 견해였으며, 아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교사로서 근무경력이 길수록 기술적인 면은 발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이 자동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2) 대외능력

대화능력은 교사와 아동, 동료교사, 원장,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협력작업 중 필요한 것으로,

특히 갈등을 초래하기 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방법을 사용하기에 무기력함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대화 중 아동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 경우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편협하게 좋은 이야기만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은 대화방법과 내용면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부모상담이 자칫 가정문제로의 개입까지 확산되는 문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대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서로 "신뢰감"과 "공동책임의식"을 형성하고 협력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대화의 유형개발을 모색하였다. "날적이" 또는 부모에게 보내는 "메모" 사용은 직접적인 대화의 갈등유발을 줄이고 교사의 "메시지"(Ich-Botschaft)(Blank, 1991)를 전달하고 부모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내에서 나름대로의 규칙과 교육방침을 학년 초기마다 수정·보완하여 확실히 전달하는 일(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교사들간, 교사와 원장, 교사와 부모, 원장과 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3) 상이한 의견과 행동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대화능력과 유사한 능력으로 교육관, 생활철학, 개인적 입장 등의 차이로 아동의 행위를 놓고 교사들간이나 원장, 부모와 서로 다른 의견과 행동양식을 보였을 때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혼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때 교사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교사 자신의 주관있는 행위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어머니들이 보육의 간접적인 "소비"의 대상("손님")으로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면, 교사들은 자신의 의견과 교육양식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심리적, 신체적 위축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들은 대화방법을 모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활동 원칙 및 규칙"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찰을 통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기록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원칙과 규칙은 다시 시설 내의 교사들간에도 "일관성"을 형성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다. 초기교육과 같은 부모의 요구는 아동에게 무리가 될 경우 자칫 교사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기 쉬운데, 똑같은 교재로 어머니가 집에서 교대로 가르쳐 그 영향과 효과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4) 개별적인 교육구상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한결같이 자신만의 교육구상을 가지길 원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한편으로는 교사 스스로가 여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안일한 일상생활을 반복하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쁜" 교사라는 생각에 자책감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외놀이"를 어떻게 실내활동과 연결지을 수 있을까? 하는 수업과 자유놀이의 연계성과 같은 부분 이상으로

교사로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연구작업 중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정해진 교육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교사들이 주제마다 몰입하여 깊이있게 다루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능했다. 연구작업 처음에 교사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똑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기 원했다.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연구작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의 과제를 정하고 공동의 준비, 실행, 평가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경험은 교사들에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중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을 스스로 찾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한 주제작업이 끝났을 때마다 교사들이 한 작업 내용을 총 정리하여 다시 교사들에게 반영(Feed-back)하는 것은 개별적인 교육구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대안찾기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은 교사의 개별적인 인성, 살아온 과정, 시설의 여건과 하루의 일과, 부모의 가정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문제가 어떤 객관적이고 공통된 일로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로 대안을 찾아내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대안이 필요한 분야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육문제에 있었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아동의 초기 적응과정을 돕고 있었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여러 가지 놀이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과 교사가 동시에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확인 하면서 교사의 창의력이 발달되고 있었다. 변화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며, 자기반의 교실이 곧 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자율적인 공간이 되기도 했다. 재통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보여주기"의 목적은 변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행사의 계획에 참여시킴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야외 놀이 또한 안전사고와 경비의 부담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도 "소그룹의 나들이(동네한바퀴)", "나들이 시간의 분할", "경제적 교통수단 이용(이웃시설의 운행을 쉬고 있는 차 빌리기)", "나들이시 아동의 혼잡연령 파악형 고안"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은 주로 타 시설의 경험을 교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얻어졌다. 대안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업무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가 끊임없이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특별한 능력으로 여기고 있었다.

6) 교사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 능력

이것은 교사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왜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자신들의 반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최소한 한 명이 있으며, 체벌을 가하고, 부모상담을 하고, 활동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려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호소하였다. 특히 깊이 있는 질문 즉, 체벌의 원인과 효과면, 아동의 문제행동의 개인적인 인식에 대한 의문, 성인(교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문제, 아동과 교사가 서로 만족할 수 없는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사의 의지면에 치우친 대화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의문점을 풀기를 원했다. 그 과정은 교사들이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근원으로 삼았다. 한 주제를 다루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새로운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문제 분석력을 발달시키는 근거가 되었다(IV-3 참조).

7) 감정적 소화작업에서 인지적 소화작업으로의 발달 능력

주제를 다루는 동안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감정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상황이나 아동의 문제행동에 객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소화작업의 능력을 발달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교사들의 개인적인 요인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른 교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토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연구기간의 초반기에는 다루기가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에 임한 교사들이 서로 친숙해지고 신뢰감이 형성된 후 공통의 작업이 가능했다. 특히 감정의 처리는 여러 주제를 다루는 동안 “문제아동”의 “문제행동”이 “보통행동”으로 그 시각이 달라지면서 교사의 대응방법도 변화가 생겼다. 관찰과 자기성찰을 통해 아동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여유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아동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감정적인 반응의 원인으로 교사들은 어려운 근무여건을 가장 심각하게 들었다. 사회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점은 교사들에게 무기력함을 야기시켰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과 “이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보다 감정을 소화시켜 가능하면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했다. 그 방법이 바로 교사들 간의 경험 교환이었다. 다른 교사들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나누기를 원했다. 그룹내의 이러한 상호작용 자체는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감정처리를 할 수 있는 Schmitz의 “치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습과정의 특성

위에서 같이 연구과정 중 교사들이 익히고자 한 학습능력 및 기술에 몰두하는 동안 교사의 학습과정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하였다. <전략개발>(Strategieentwicklung)과 <주제의 발달>(Themenentwicklung)이 바로 그것이다.

1) 전략개발

여기에서 전략이란 문제해결과 교육활동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목표이나 방법을 개발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교사가 일상적인 또는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느냐는 그 교사의 참의력과 행동력을 결정지을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연구일기를 작성하고 의문점을 그룹 안에서 토론하는 동안 전략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교사로서 나는 한 상황(현실)에서 내가 정한 목표(나의 의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참고했던 이론적 자료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교사의 의무를 중요시 여기고 있던 반면, 교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여건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황에 근거한 목표를 정하였다. 예를 들어 낮잠 지도시 낮잠이 필요한 아동과 그렇지 않는 아동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관찰하여 정확히 어떤 문제에 교사가 부딪혀 있는가를 분석하고, 교사로서 어느정도 까지 상황변화와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진단한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조언을 한 후, 그 중 각자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은 다시 미리 예견되는 문제점을 경험을 통해 다시 분석한다. 교사들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전략을 현장에서 시도해보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재교육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위에서 열거한 능력 및 기술 중 “대화능력”, “상당한 의견과 행동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대안찾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발달에는 교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면에 한계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결정된 전략의 목표에 과연 교사의 언어, 행동, 의지가 일치되어 있느냐는 의문과, 자칫 아동중심의 교육론에 반한 교사 중심의 교육행위라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전략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어차피 교사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전략을 발달시키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며, 바람직하고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평가를 동반한 지속적인 현장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2) 주제의 발달

주제의 발달은 연구작업 중 가장 특이한 결과이다. 교사들의 학습과정 중 문제의식과 분석력은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번 다루는 것 보다는 주제를 발달시킴으로써 향상되었다. 연구작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처음에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교사 개인적인 요인과 갈등상황이 담긴 주제로 발달시켰으며, 또한 객관적인 주제로부터 교사의 감정적인 면이 담긴 주제로 발달시켰다. 따라서 주제를 작업하는 방법도 변화하였다.

일반적인 주제란 “아동의 문제행동”, “초기적응”, “식사지도”, “낮잠”, “자유놀이”,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이에 속하며, 감정적인 주제란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과 갈등상황이 담긴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체벌”, “교사와 원장간의 갈등”, “부모와 협력작업”, “교사의 스트레스” 등이 이에 속했다. 이는 교사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관심이 처음에는 주로 아동에게

또는 하루일과의 상황에 있다가 차츰 문제의 원인이 교사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감정적인 주제를 다룬 후에는 다시 “성교육”, “교사의 직업관”과 같은 일반적이면서 주관성을 띤 주제로 변화되었으며, 이때의 주제작업 특성은 문제를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제의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작업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적인 작업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교사의 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정은 한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 주제의 순서에 일반적인 작업에서 개인적인 작업으로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짐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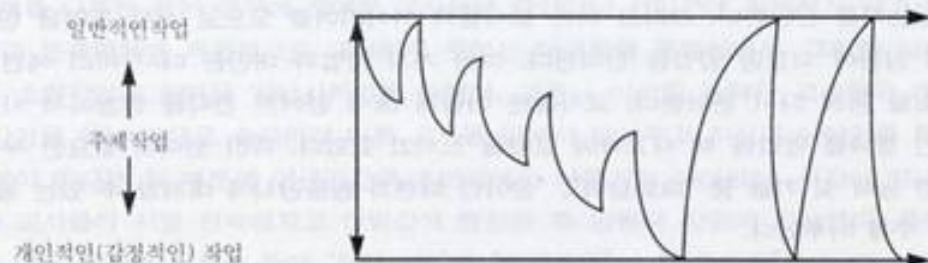


그림 (III)

위에서 열거한 교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 중 이러한 학습과정을 요하는 것은 “개별적인 교육구상”, “교사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 능력”, “감정적 소화작업에서 인지적 소화작업으로의 발달 능력”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필자가 제안한 연구작업에 임하면서 한가지 주제작업이 끝나면 그 주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가지 주제작업으로 채워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 주제는 곧 다른 주제작업을 요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새로운 분석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의 주제를 다루면서 자유놀이 때 어디까지 아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어 “체벌”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제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공동의 또는 개인적인 교육적 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자신의 활동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감정적인 반응에서 인지적인 반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과정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연구작업이 끝난 후 몇몇의 교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재교육 연구작업의 평가를 통해 자신은 변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활동에 아직도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교사

의 자질향상과 교육활동의 변화가 쉽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과 교사의 의지와 실제의 능력, 지식과 행위와의 사이에 있는 틈새를 의미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근무여건과 보육시설의 환경이 교사에게 무기력함과 실망감을 주기 때문이며, 둘째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도가 교사의 실행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연구작업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작업 방법의 문제란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개인적인 요인이 담긴 주제로의 발달을 <일련의 주제범주>로 보았을 때, 각 그룹마다 한 범주를 다루었을 뿐 시간적인 제한상 다시 일반적인 주제로의 전환작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일련의 주제범주>를 다루면서 외부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문제로 접근해가는 들숨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였으나, 다시 일반적인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아 숨을 다시 내쉬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작업이 지속적으로 주제를 발달시키면서 다시 일반적인 문제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날숨과정을 했었다면 현실적인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조화시키면서 객관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확인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습자료

자료참고는 재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작업의 결과 자료는 정보제공, 문제해결, 깊이 있는 논쟁을 위한 자극 역할을 했다. 자료는 주제작업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국내외의 문헌, 월간지, 보육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집 등 필요하다면 신문의 일부분도 사용되었다. 그룹이 서로 다른점을 감안하여 다른 그룹의 교사들이 작성한 연구일기와 주제작업의 기록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구작업에서의 자료참고는 어떤 특정한 원칙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사들의 자료에 대한 부정적·긍정적인 반응을 분석하여 학습자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선정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와 자료참고의 효과면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작업의 초기단계에는 주로 현장사례가 담긴 자료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현장사례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상황을 표현하도록 자극을 하기 때문이었다. 초반기에 이론적인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교사들은 그러한 이론들이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전공 문헌이 교사가 처한 문제상황 보다는 이상적인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교육면에 중점을 두어 교사의 수동적인 수행의무만을 강조한 인상을 받게 되면 교사들은 거부하였다. 실제의 상황은 이상적인 보육환경이 아니고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예: 학교를 준비하는 학습), 시설의 방편, 하루일과의 특성,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교사들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론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주제에 적합한 현장사례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단계에 적합한 자료로 분석되었다. “초기적응”, “낮잠”, “식사지도”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는 구체적인 교육인이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교사의 역할과 실제상황에 비추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중기 단계에서는 교사의 학습과정의 특성(IV.3.2. 참조)에 따른 개인적인 요인이 담긴 자료가

적당하였는데, 특히 교사의 성격, 인성, 행동, 성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가 적당하였다. “체벌”,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주제는 그러한 자료 뿐 만 아니라, 다른 교사의 감정적인 행위에 대한 사례도 좋은 자료가 되었다.

후기 단계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므로, 교육철학 분야와 다양한 교육관에 대한 자료가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과연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을까?”나 “교사의 직업관과 교육관은 어떻게 형성하는가?”와 같은 교사의 질문에 인지적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의 교육철학론을 참고하면서 아동발달론을 접근시키게 되면, 교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교육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참고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참고하느냐가 중요했다. 자료는 사례로부터 이론적인 것으로 점차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교사 스스로 자료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시간적인 여건이 교사들로 하여금 그룹작업 전에 미리 자료를 찾아 읽고 현장관찰시 시도해 본다는 것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론적인 자료는 시도 이전에 공동의 분석작업을 요하기 때문이었다.

5. 재교육자의 역할

재교육자의 역할은 조사자가 그룹작업을 통해 교사의 학습과정을 조사하는 동시에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이다. 동반자로서 수행한 임무는 크게 재교육 대상그룹의 관리, 교사 활동의 변화 지지, 동반자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질적 향상이었다. 재교육 대상그룹의 관리란 그룹작업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사회를 보며, 참가자 모두가 발표와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활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도록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연구일기의 기록과 토론내용을 분류하여 주요 안건과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토론을 제안하였다. 교사에게 필요한 학습내용과 형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적절히 작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반자 스스로가 교사들이 작성한 연구일기와 토론내용을 연구하며 동반자 역할을 발달시켜야 했다. 이것은 교사들의 욕구와 “학습근거(Lernbegruendungen)” (Holzkamp, 1993)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졌다. 다음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분석된 결과를 재교육자의 자세, 과제,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1) 재교육자의 자세

재교육자는 교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존중하고, 재교육 과정 중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며, 재교육자의 개입과 그 영향에 대해 의식적으로 대처하며, 교사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자세가 필요했다. 조사작업에 의하면 재교육자의 자세와 인격은 학문적인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재교육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는 그 정보 자체 보다 전달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대상그룹의 분위기에 적절히 조화시키는가가 교사의 정보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인교육론과 성인교육방법론에 대한 지식이었다. 교사의 학습과정이 성인으로서 어떻게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 분석, 해결할 수 있는가에 구심점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성인교육자로서 재교육자는 학습과정에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습목표 및 내용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열린자세가 필요했는데, 이는 주로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를 자극하고 격려하는데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로 분석되었다.

2) 재교육자의 과제

재교육자의 주요임무는 재교육 대상그룹의 관리, 재교육의 결과 정리, 그룹의 학습과정 관찰, 재교육자의 역할 발달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재교육 대상그룹의 관리는 교사의 학습과정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현장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특히 한가지 주제를 다룰 때에 그 깊이와 양을 조절하여 편협되지 않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했다. 재교육의 결과 정리는 교사들의 학습과정을 교사들에게 반영하고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학습의 장을 열 수 있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재교육 대상그룹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재교육자의 중요한 과제였다. 재교육자는 항상 교사들의 학습과정을 관찰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학습분야의 연관성을 형성하도록 도움 수 있었다. 재교육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현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교육자의 역할을 재교육 수행 중 발달시켜 현실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3) 재교육자의 기능

재교육자의 과제에 적합한 기능은 전달자로서의 기능과 재교육의 역할을 재현하는 기능이 부각되었다. 전달자로서의 기능이란 재교육 대상그룹의 작업결과를 새로운 그룹에 전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위에서 학습자료 중 현장사례가 재교육에 있어 동기유발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듯이, 현장기록과 교사들의 학습경험은 다른 그룹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교육의 역할을 재현하는 기능이란 여러 시설에서 모인 교사들이 시설외적 재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활동을 연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시 각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시설내적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방법과 형식을 서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연구작업 중 많은 교사들이 교사들간의 협력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시설내적인 학습활동으로의 연계성을 중요시 여겼다. 이를 위해 재교육자는 시설내의 학습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는 기능이다.

4) 재교육자의 역할

재교육자의 역할은 모더레이터, 참여자, 방법적 동반자가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모더레이터란 사회자, 중재자 역할을 하며 토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의미한다. 교사의 불명확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하며, 학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재활용 하는 일은 학습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주제를 선정할 때 교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답을 수 있는 개념을 선택하는 일은 모든 구성원이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과정의 초기단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재교육자의 강압적인 요구 보다는 교사들이 내·외적 참여도를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 또한 필요했다. 연구작업에 의하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소극적인 교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극을 주었다. 초반기에 소극적이었던 교사는 후반기에 아주 중요한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모든 교사들이 내적, 외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반기에 재교육자의 성급한 개입이나 제한은 교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은 중요했다. 참여자의 역할이란 재교육자의 개입을 의미한다. 개입의 원칙은 초반기에는 재교육자가 활발하게 토론을 유도하는 것으로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단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의견이 교사들로부터 요구되어질 때로 한정하며,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발표하고, 교사들의 의견발표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이었다. 후반기에는 교사들이 학습과정에 익숙하여 점차 적극성을 띄게 되므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한 개입 보다는 방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방법적인 동반자 역할은 현장연구의 방법을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제안하되 교사들의 업무상의 여건을 고려하는 일로 나타났다.

V. 연구결론 및 제언

교사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습과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교사의 학습과정은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 교사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교사의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은 주로 관찰과 관찰된 내용의 평가에 의해 발달되었다. 관찰은 교사가 개별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육활동원칙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인식하게 한다.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은 새로운 학습의 장을 열게 하므로 교사의 자기평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찰 및 평가 방법이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사에게 필요한 학습능력에 대하여

위의 결과에서 얻어진 교사가 습득해야 할 7가지 능력 및 기술은 재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학습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발견과 변화는 재교육을 하기 전, 과정, 후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관찰을 통한 자기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화능력, 상이한 의견과 행동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론, 상담방법 및 언어구사능력, 교사와 아동, 부모, 원장, 동료교사간의 상호작용 분야가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 능력, 개별적인 교육구상은 현장활동의 분석작업을 통해 발달되어야 하므로 현장과 재교육과의 연결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찾기는 보육의 실태가 아직도 이상적인 아동중심적 교육이 어렵다는 것과, 보육환경, 인적 요인을 고려한 과도기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곧 교사 및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에 대한 요소 중 개인적인 감정을 소화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Schmitz의 상호작용 유형안의 시도를 원활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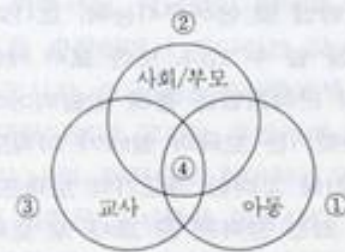
3. 학습과정의 특성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학습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은 재교육의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전략개발은 대안찾기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해 준다. 이러한 대책은 교사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참고하여 각 시설과 교사의 능력에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서, 재교육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의 발달은 학습내용이 일반적인 것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학습내용으로 전개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후에 교사로 하여금 일반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요인까지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통해 Schmitz의 상호작용 유형 중 “나”(I)와 교사로서의 “역할”(Me)과의 상호작용이 포괄적인 학습방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Arnold의 “구성적 학습안”을 보육교사라는 집단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구체화시켜 학습목표, 방법,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다시 von Spiegel과 Heiner의 자기평가법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게 하였다. von Spiegel과 Heiner가 주장하는 자기평가방법은 그림(III)과 같이 “아동발달”,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부모의 기대”, “교사의 요인”이 집합된 부분을 교사로 하여금 발견·분석하여 적절한 전략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전제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

이다. 더욱이 위의 세 분야에 대한 기대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그림(IV)에서와 같이 아동발달의 측면→(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부모의 기대→교사의 개인적 요인을 차례로 분석하고 난 후에야 접합된 부분을 비교적 수월하게 다룰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과정에 이러한 순서가 포함되어야 아동, 교사, 사회에 적합한 개별적인 보육구상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표준평가수준"(Ziesche)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마련을 용이하게 하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III)



그림(IV)

4. 학습자료에 대하여

재교육에서 학습자료로 적합한 것은 학습과정의 특성에 따라 현장사례,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보, 교육심리, 교육철학의 순으로 모아질 수 있다. 교사들에게 현장사례는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재교육의 도입단계에 적합하며,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교사의 감정이 덜 작용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교육심리 분야는 교사의 감정처리 문제를 위해 아동발달 및 아동심리학적 면과 함께 성인(교사)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교육철학 분야는 교사의 교육관, 직업관, 인생관, 생활철학과 관련된 자료가 요구되어진다. 첫 번째 재교육에서 어느정도 숙련되고 나면, 두 번째 재교육부터는 학습자료가 항상 아동의 측면, 사회적 배경, 성인의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석된다.

5. 재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재교육자에게는 성인교육학, 보육학, 심리학, 부모상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교육, 슈퍼비전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사의 학습과정을 파악하여 그것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느 시

기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교육자가 유의할 것은 아동의 측면과 교사의 측면을 연결하되, 교육과정을 통해 어느 한가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재교육자의 역할로는 교사가 스스로 자기활동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사례자료를 만들기 위해 재교육 결과를 자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적합한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교육은 비슷한 문제와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이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소그룹작업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둘째, 재교육은 현장의 활동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기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근무 후인 야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순서는 일반적인 주제,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이 담긴 주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주제의 순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재교육의 구체적인 학습목적, 내용, 자료는 그룹의 특성과 문제점, 욕구에 따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며, 교사의 전략 모색능력을 공통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

넷째, 재교육은 시설 외적 팀워크로 발전되어야 하고, 시설 내적 팀워크를 고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을 실행하는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점이 있다. 공동작업을 하기 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민간시설의 상황,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행정 및 조직적인 문제, 업무의 부담이 많아 재교육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에 힘겨운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은 재교육의 다양한 장점과 역할을 활용하기에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확인,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혁진(1995).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2집, 영유아보육학회.
- 김대원, 이소희(1997). 영아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사자의 요구분석: 질적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0집, 영유아보육학회.
- 김연진(1995). 보육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장 및 교사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4집, 영유아보육학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성영혜(1994).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창간호, 영유아보육학회.
- 윤선영(1998). 보육교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3집, 영유아보육학회.
- 이순형(1996).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제의 도입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5집, 영유아보육학회.
- 이영석(1989). 한국유아교육시설기관의 표준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사회과학 29, 2호, 169-221.
- 이은래, 이기숙(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교사를 위한 활용 지침서. 서울: 창지사.

- 이희자, 이선경(1996). 보육교사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8집. 영유아보육학회.
- 임재택(1983). 유아교육 환경평정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논집 제 10집. 107-143.
- 조운주(1997). 어린이집 교사의 현직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0집. 영유아보육학회.
- 한임순외(1997). 어린이집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0집. 영유아보육학회.
- Altrichter, H., Posch, P.(1994). Lehrer erforschen ihren Unterricht. Eine Einfuehrung in die Methoden der Aktionsforschung. Bad Heilbrunn.
- Altrichter, H.(Hrsg.)(1989). Schule gestalten: Lehrer als Forscher. Fallstudien aus dem Projekt "Forschendes Lernen in der Lehrerbildung". Klagenfurt.
- Arnold, R.(1996). Deutungslernen in der Erwachsenenbildung. Grundlinien und Illustrationen zu einem konstruktivistischen Lernbegriff. In: Zeitschrift fuer Paedagogik, 5. 719-730.
- Bezirksamt Reinickendorf von Berlin(1996). Projekt "Paedagogische Qualitätsstandards". Paedagogischer Standard "Eingewohnung" fuer Kinder im Krippen- und Elementarbereich. Unveroeffentliches Manuskript. Berlin.
- Blanke, S.(1991). Beziehungen zwischen Erziehern und Kindern. Hilfen fuer den Alltag. Koeln, Stuttgart, Berlin, Mainz.
- Cohn, R.(1992). Von der psychoanalyse zur themenzentrierten Interaktion: Von der Behandlung einzelner zu einer Paedagogik fuer alle. Stuttgart.
- Colberg-Schrader, H.(1985). Berufsverstaendnis und Erzieherarbeit. In: J. Zimmer(Hrsg.). Enzyklopaedie Erziehungswissenschaft. Bd. 6. Erziehung in fruher Kindheit. Stuttgart. 153-168.
- Glaser, B., Strauss, A.(1979). Die Entdeckung gegenstandsbezogener Theorie: Eine Grundstrategie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In: C. Hopf, E. Weingarten(Hrsg.). Qualitative Sozialforschung. Stuttgart. 91-111.
- Heiner, M.(1995). Reflexion und Evaluation methodischen Handelns in der Sozialen Arbeit. In: M. Heiner, M. Meinhold, H. v. Spiegel und S. Staub-Bernasconi. Methodisches Handeln in der Sozialen Arbeit. 2. Aufl. Freiburg im Breisgau. 102-183.
- Krappmann, L.(1985). Das Erprobungsprogramm und seine Folgen. In: J. Zimmer(Hrsg.). Enzyklopaedie Erziehungswissenschaft. Bd. 6. Erziehung in fruher Kindheit. Stuttgart. 39-54.
- Lamnek, S.(1988). Qualitative Sozialforschung. Bd. 1. Methodologie. Muenchen, Weinheim.
- Lamnek, S.(1993). Qualitative Sozialforschung. Bd. 2. Methoden und Techniken. Weinheim.
- Schmitz, E.(1984). Erwachsenenbildung als lebensbegleitender Erkenntnisprozess. Stuttgart.
- Spiegel, H.v.(1993). Aus Erfahrung Lernen. Qualifizierung durch Selbstevaluation. Muenster.
- Spiegel, H.v.(1995). Arbeitshilfen fuer das methodische Handeln. In: Heiner, M., Meinhold, M., Spiegel, H.v. und Staub-Bernasconi, S.. Methodisches Handeln in der Sozialen Arbeit. 2. Aufl. Freiburg im Breisgau. 218-287.
- Ziesche, U.(1996). veraenderungsprozesse initiieren und begleiten. Kitabberatung mit neuem Selbstverstaendnis. Mitgestaltung von Verwaltungsreformprozessen im Kindertagesstaettenbereich. Univeroeffentliches Manuskript. Berlin.
- Ziesche, U.(1997a). veraenderungsprozesse initiieren und begleiten. Kitabberatung mit neuem Selbstverstaendnis. Mitgestaltung von Verwaltungsreformprozessen im Kindertagesstaettenbereich. In: Nachrichtendienst des Deutschen Vereins, 9. 270-276.
- Ziesche, U.(1997b). Wer sagt, was gut und richtig ist? Veraenderungsprozesse initiieren und begleiten. Acht Fragen an Ulrike Ziesche. In: klein & gross, 10. 12-16.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배출된 현직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 교사의 학습과정을 조사함에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직교사들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보육활동에 대한 연구일기를 주제별로 작성하게 하고, 교사들로 구성된 4개의 그룹에서 그것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그룹작업을 실시하여, 연구내용을 교사들의 문제의식, 익히고자 하는 능력 및 기술, 학습과정의 발달 특성, 학습자료, 재교육자의 역할로 나누어 질적인 조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몰입하여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룹 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작업을 하면서 발달하였다. 특히 문제의식은 주제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원칙 및 규칙을 발견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의문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달되었다.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및 기술로는 자신에 대한 발견과 변화, 대화능력, 상이한 의견과 행동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개별적인 교육구상, 대안 찾기, 교사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 능력, 감정적 소화작업에서 인지적 소화작업으로의 발달 능력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문제의식의 발달과 교사의 능력 및 기술발달 과정은 교사들의 특별한 학습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략개발과 주제의 발달이었다. 전략개발이란 문제의 상황에서 이상적인 보육안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안과 같은 묘책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주제의 발달은 교사의 문제의식이 아동으로부터 점차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서 선정된 주제들의 특성과 주제작업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발견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들로 하여금 한 문제상황을 주관적(감정적)·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학습자료로 그룹작업의 초기에는 사례자료, 중기에는 심리학적 측면이 담긴 자료와 사례, 그리고 말기에는 깊이있는 교육철학, 교육관에 대한 자료가 적당했다. 재교육자의 역할로는 이러한 교사의 학습과정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를 자극하고, 사실 내적 팀워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교육의 학습목적 및 목표, 학습방법, 학습자료를 선정하고 구성하는데 참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방안에 대해

지난 1999년 4월 24일 정부의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종사자 입면보고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 오던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증명서를 시설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공신력의 문제,

보육의 질 저하, 교사의 사회적인 인식 저하 등에 대해 서울지부에서 문제제기로 보건복지부에 입면보고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의 의견서 제출과 보건복지부 관계 전문가 및 보육 관계자 회의(1999년 7월 22일)에서 우리회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 5월 19일부터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 시까지 경력 및 재직 증명 발급을 시,군,구에서 담당하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공문은 위의 내용관련 보건복지부의 공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부

부 427-760 / 경기도 파주시 중앙동 1 / 전화 021-507-6945 / FAX 504-6236

사회복지정책실·영유아보육정책과 과장 김소영 사무관 조진희 담당자 신영석

문서번호 영보 99210 - 2535

시행일자 1999. 8. 10

(경유)

수신 한국보육교사회장

참조

연	지	지
경	시	시
참	발	경
수	자	제
치	신	공
리	간	발
과	호	행
당	수	정
자	번	부
	도	처

제목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방안 홍보

1. '99.5.19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26조(종사자의 입면보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여 오던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증명서 등을 시설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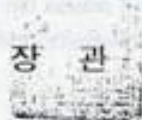
2.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한 시장에서 시설장이 보육교사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공신력 확보 등의 문제로 보육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여러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보육관계자(시설장, 보육교사, 공무원)회의('99.7.22) 결과를 종합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등의 관리 방안

-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자 : 시장·군수·구청장
- '99. 5. 19부터 보육교사자격증 도입시까지 적용. 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권역별 여름연수 그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순옥 · 사무국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권역별로 여름연수를 개최하였다. 수도권연수는 서울에서 7월 24-25일에, 전라도권연수는 광주에서 7월 24일에 그리고 경상도권연수는 8월 8일 부산에서 실시되었다. 참 잘 치루었다. 여름연수는 회원들만의 수련회가 아닌,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연수의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회원들의 결의가 있었고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을 나누어 실시하자는 제안에 따라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각 지부가 함께 연수를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권역별로 연수 내용까지 기획하지는 못하였고 실무와 진행만을 담당하였던 반면 올해는 연수내용의 기획단계부터 실무, 진행까지 권역별로 지부가 담당하여 연수를 치루었다. 연수를 모두 마친 지금, 회원들이 힘들었던 만큼 얻은 것이 많았기에 내년의 연수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름연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을 적어 본다.

1. 여름연수 기획 그 지난만 과정

99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작년과 달리 기획까지 권역별로 독자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는 하였으나 소규모 강좌를 개최한 경험은 있었지만 제법 사업규모가 큰 여름연수의 기획은 처음인 지라 권역별수련회를 준비하는 지부들은 자신이 없어 하였다. 그래서 수도권, 경상도권, 전라도권을 망라한 전체연수기획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전라도권과 경상도권은 기획회의 전에 자체 논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해 수도권만 먼저 기획회의를 하고 후에 회의 결과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1차 기획회의에서는 교사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니까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소규모 강좌를 여러개 마련하여 각 주제별로 심화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회나 소모임이 강좌를 하나씩 맡아서 준비하자는 안이 나왔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서울지부가 이의 제기를 하였다. 강좌준비가 잘 되면 좋겠지만 각 지회나 소모임이 강좌 하나씩을 맡아 내용까지 준비하여 진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보나 준비역량으로 보나 무리이며, 또한 여름연

수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소규모 강좌를 여럿 배치하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었다.

수도권1차 기획회의의 안을 받아본 전라도권과 부산권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더구나 수도권보다도 준비할 단위(지회나 소모임)가 많지 않아, 먼저 준비를 시작한 수도권 회의결과에 기대를 걸었던, 지방에서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권역별 자체 논의와 내용교류를 거친 끝에 수도권은 '전통문화와 유아교육'을, 전라도권과 경상도권은 '발도르프교육'을 연수주제로 정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연수주제가 전통문화 속에서 찾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교육이라는 얼핏 보기에 극과 극을 이루는 내용으로 잡혔다. 하지만 회원들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육아관, 육아방식, 내용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탐색해보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의 전통적인 교육 속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로서, 그 둘 간에 어떤 동일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그로부터 '우리 식의 보육관, 내용, 방식'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기획과정에서 지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여름연수가 우리 회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비회원교사들의 요구나 관심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차이는 있을 터이지만 그 관심이나 요구의 차이에 따른 각종 교육도 그만큼 많이 실시되고 있다. 보육교사회가 준비하는 연수가 그 많은 교사들의 관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 많은 교육 가운데 우리 단체가 주최하는 연수의 차별성은 현장교사의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기에 주제를 선정할 때나 주제에 접근할 때 다른 연수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연수가 참가자들이나 준비한 회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2.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되었던 준비, 진행과정

현직에 있는 교사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마치고 또다른 일을 위해 힘을 쏟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이번 연수는 회원들이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맡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노고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났다. 주제선정, 감사섭외, 장소예약, 홍보, 자료집 만들기, 평가서 만들기, 강의 재료 준비하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작업들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 수도권은 특별히 이번 연수를 위해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했다. 안산지회의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실제'는 내용도 훌륭했거니와 작업의 결과를 전시까지 하여 큰 호응을 받았고, 전래놀이를 맡은 인천지부는 내용도 내용이라니와 준비물까지 직접 만들어 오는 성의가 돋보였다. 전라도권과 경상도권은 준비단위의 규모가 작아 수도권보다 훨씬 힘들었을텐데도 회원 모두가 준비위원이 되어 발로 뛰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지방의

어떤 지부는 사전에 강의가 진행되는 장소에 가서 화장실청소와 겹때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참석자들이 강의주제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단체에 대한 인상을 갖겠지만 바로 곳곳에서 보여지는 이런 회원들의 노고의 흔적 속에서 더 좋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3. 마무리과정

연수의 후속작업은 연수준비와 진행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다. 권역별로 평가회의를 하였고 권역에 따라 감사에 대한 인사글이라든지, 참가자들의 평가서 정리, 후속 프로그램 준비 등이 이루어졌다. 수도권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래동요 후속강좌와 전통미술 소모임 구성이라는 후속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연수라는 큰 사업이 끝난 뒤 각 지부는 자체 수련회를 통해 뿌듯함과 안도감을 다시 한번 한껏 나누었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큰 숨을 들이쉬고 있는 듯 하다.

4. 올 연수의 성과와 교훈

올해 연수를 치루면서 얻었던 성과는 무엇보다도 현장교사들이 준비한 연수만큼 교사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연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연수사업을 통해 지부지회의 사업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지부지회간 협력과 교류체제가 확립된 것 또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올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부지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연수준비를 고려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기대된다.

수도권 여름연수의 뒷얘기

이주영 · 수원, 평동어린이집

올 여름연수는 마치고 나니 뿌듯함과 더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준비위가 꾸러지고 주제에 대한 논의를 몇차례거쳐서 우리문화속에서 찾는 유아교육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중에서도 수원에서 맡은 부분은 전통육아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을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별로 얻은 것이 없었으니 까. 고작 나온 것은 대학교수가 엮은 전통육아법이라는 내용이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했던 체질에 맞는 교육이라는 내용을 강의 했던 감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드디어

섭외에 들어가고 감사님은 처음부터 매우 적극적이었다. 원고 보내주는 것만 빼고.

강사님얼굴을 그전에 했던 감의녹화테일로 보고 당일날 처음 보게 되었다. 강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영덩이가 참 무겁겠다시며 놀담같은 진담을 하셨다.

소개까지 각자 섬유했던 지역에서 하기로 되어있었기에 앞에 나가 준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던지..... 한 두해 연수준비를 한것도 아닌데 무척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그동안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닌 삼천포로 빠지면 어쩌나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교사들은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잘 듣는 모습이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니, 오히려 감사도, 듣는 교사들도 더 이야기나누기를 원해서 아파트로 장소를 옮겨 거의 부흥회(?) 같았던 강의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은 없었으리라.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강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마치 점을 보고 나온 사람처럼 단정짓고 생활하는 태도는 이해롭지 못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교사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으며....

서울지부, 인천지부, 안산지회 준비위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다. 사무국장님과 김진숙 선생님께서도 너무 고생많으셨고.

올해연수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더욱 앞찬 겨울, 내년 여름연수를 준비하자.

모두 수고 많으셨다.

고영미 · 안산, 공동어린이집

아주 오랜만에 수련회 준비를 위해 회의에 참여했죠. 안산은 아직 지지도 없는지라 엄청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연수 준비에 참여했어요.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가다가 잡혔어요.

“전통문화와 유아교육” “우리 것”

여러가지 강좌가 있었지만 그 중 미술과 관련된 강좌 준비에 욕심이 났어요. 능력이 되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나 자신도 새로운 내용과 재료를 가지고 미술활동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교사들 중 방과후반 은하 선생이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의사확인을 했더니 흔쾌히 해보겠노라고 했어요. 은하쌤 꾸벅!

실기는 됐고, 이론 감좌는 어느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승각 선생님? 000 선생님? 000 선생

님?... 많은 선생님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압도적으로 정승각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벽화작업을 하시는 중이면 어찌지? 여행중이시면 어찌지? 거절하시면 어찌지? 사적인 부탁도 아닌데 왜 그리 떨리던지. 여러날은 전화번호만 보면서 망설이다 퇴근 전(낮잠시간에도 망설이다 못했음)에 전화를 했어요. “정승각 선생님 택이죠? 전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회 아니 옛날 지탁연이라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맑았어요. 그제서야 선생님 얼굴이 생겼어요. 사실 몇번 뵈었는데도 너무 긴장해서인지 전혀 기억이 안났었거든요. 저는 행운아예요. 왜냐하면요,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감의 부탁을 드리고 있던 중 선생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입니다. 제 그림책 소개해 주신 적 있죠?” “네! 저를 아신다니?” 얼마나 기쁜 소리인가? 그때부터는 마구 매달렸죠. 선생님께서 걱정(보육교사회에서 원하는 강연이 될까를 염려하셨어요)과 함께 허락을 하셨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 준비중이시라 팩스로 자세한 일정을 보내주라는 말씀에는 또 한번 감격했어요. “저녁 준비중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승각 선생님과 멋진 만남을 하게 되었죠. 선생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름 연수만 생각하면 지금도 설기운이 나요.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름 연수 또 가고 싶어요.

임민행 · 인천

난 순전히 땀방이였다.(내가 제일 한가했으므로) 그런데 회의마다 최화영 선생님-인천지부장-이 다른 일과 겹치게 되어 번번히 내가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연수 뒷얘기까지 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연수 후 평가회의 때 육의 티로 찍힌 마지막 연성수씨의 강의는 인천에서 섭외한 분으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처음에는 '세시풍속'이라는 주제로 감사섭외를 추진하였으나 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찾지 못하여 해마다 소개소개를 거쳐 연성수씨를 알게 되었고 부탁을 하였다. 원고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을 주더니 하루 전에 한번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강의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아!' 하는 게 아닌가? 막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 떠올려봐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황당한, 아주 황당한 일이었다. 점심시간 덕에 강의를 바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치지만 강의는 강의대로 사람을 실망시켰다. 라스트를 이렇게... 다음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사전조사 후 섭외결정을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체험으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다.

그외 나를 힘들게 한 것. 강의시작과 마무리를 섭외한 지역에서 맡기로 했는데 최화영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못오게 되었다. 임신 막달로 그 주에 많이 움직여 오는 길에 배가 갑자기 아

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은 무거워지고 강의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운동 내일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뿐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 들어보고 또 할 말을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또 감사까지 속을 곱게 만들고, 아침! 나중에 모여서 '그 때 우리 모두 자~알 참았다'고 우리들 스스로 대견해 했다. 그 때 너무 화가 나서 울 필요 없다고(감사에게) 말하고 싶었지. 아니 더 심하게라도 해주고 싶었으니까.

여하튼 연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난 이번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없는 시간을 쪼개 힘든 몸으로 서울을 오가며 고생을 많이 하신 준비팀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전라도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유익원 · 광주, 해프는 동산 놀이방

"한 여름의 땀방울 만큼이나 여름 연수가 많은 7월입니다. 이번 저희 한국보육교사회 광주, 전남 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어려움을 소주제로 하여 발도르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하였습니다."

'99 여름연수를 알리는 전단을 만들면서 비로소 연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광주, 전남보육교사회가 주관하는 여름 연수! 그러나 작년과는 달리 내용선정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주관하게 되었다.

여름 연수 내용을, 중앙의 내용만 받을 생각만 했던 까닭으로 진즉 느긋해 했던 우리는 중앙의 지부사업의 기획 능력과 운영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권역별 강화화라는 취지 아래 모든 연수를 지부 자체 사업으로 꾸려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섭섭, 당황해 했다. 특히, 내용선정에 있어서 교육의 시기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중앙의 내용만을 가져가려 했던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고민이 서물렀다. 또한 권역별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거리상의 이유로 전북지부와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몇차례 회의를 거쳐 부산지부와 함께 발도르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전학습의 부족으로 발도르프 교육 내용이 단시일 안에 몇번의 교육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술

적인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기 위주의 내용으로 감사님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이 선정되고, 전단 배포와 더불어 홍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걱정들, 권역별 연수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연수라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지만, 여러 회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친 지금, 아쉽고 챙기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마쳤다는 안도감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장시간 마라톤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셨으면서도 다시 한번 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겸손의 말씀을 하신 윤선영 선생님, 광주, 전남, 전북 회원들, 연수생들, 그리고 격려차 서울에서 내려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신 정희연 회장님, 이경녀 조직부장님, 그리고 지금은 나주댁이 되신 이강선주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부산보육교사회 연수일기

김경애 · 부산, 포구나무 어린이집

함께 하는 것의 힘을 새삼 느낀다.

98년과 달리 연수를 우리가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두어 달 남겨놓고 이 일을 벌리기에 무리란걸 알지만 해보기로 하고 뛰어들었다. 다행히 광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7월 초

홍보를 맡은 조직부, 그를 대표하여 조직부장님이 동분서주한다. 판! 포스터 초안을 들고 워드를 치고 편집한다고 이틀을 시루고 있다. 그러더니 인쇄소를 둘러 멋진 전단과 포스터를 들고 온다. 깔끔한 게 제법 멋이 난다. 생태교육하는 곳과 방과후 교육하는 곳, 등 연이 닿는 곳은 어디든 들고 다닌다. 만나는 사람마다 연수 있는데 오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니! 걸어다니는 홍보판이다. 그래도 못 미더운지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어린이집도 원장 인상을 보며 선별하여 보내고.

교육부

홍보를 조직부에 맡기고, 잡다한 건 지회에 떠넘기고 나니 할 일이 별로 없다. 자료집 만드는 일만 남았다. 평가서를 다시 만들고 부산보육교사회 소개를 다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하는 지 챙기지만 하면 될 것 같다. 엄청난 부담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다.

7월 말

입금되는 사람이 하나, 둘 는다. 연수가 잘 되려나 보다.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공동육아 부모

들도 오겠다고 한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이니 좋다. 발도르프에 대한 관심 탓인지, 우리가 홍보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 예감을 준비하는 사람을 들뜨게 한다.

8월 6일

운영위를 하려고 갔는데 자람터선생님과 자원봉사자 두 명이 남아있다. 같이 밥을 먹기가 바쁘게 다른 방으로 가더니 뭘 한다. 천을 자르고 솜을 뜯어 봉지 봉지 넣고 있다. 연수 때 인형만들기에 쓸 것들이다. 천과 솜을 벌려 놓으니 한방 가득이다. 솜에서 먼지가 많이 나 코끝이 간질간질한다. 누군가 연방 재채기를 한다.

연수한다고 자람터 교사들 고생이 많다. 송방울 선생님이야 교육부원이니 그렇다지만 딸기 선생님까지 있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부산보육교사회 회장님이 자람터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일이 많아 부담이 될텐데, 연수 길 안내를 적고, 표제 적고, 지회 소개를 꾸미고 연수하는데 필요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서슴없이 해준 자람터들도 고맙다.

8월 7일

1시 뒤킨이라고 준비를 할려면 시간 내에 다 마치라는 학교측 요구에 11시에 모였다. 근무시간이라 같이 일하는 교사에게 미안하다.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 교육', '강사 윤선영'이란 표제를 붙이는데 꼼꼼한 회장님이 한 마디 한다. "색이 너무 초현연색이라 발도르프하고 안 맞아. 발도르프는 파스텔 계통을 주로 쓰는데"라며, 정말 색이 너무 화려해서 강사가 죽어 보일까 걱정이다. 강사님은 주로 검은 옷을 입는데, 이미 다한 것이라 수정할 수도 없다. 이리 저리 색이 너무 튀지 않게 붙인다고 고민 고민하며 붙였다. 다 붙이고 나니 불만이다. 회장님이 옆에서 또 한마디한다. "그래도 전체 색이 어두워 제목 보면 잠은 안 오겠다"고.

8월 8일

8시 30분에 모이기로 하고 갔는데 사람이 없다. 두 명은 지하철에서부터 길 안내를 붙이고 오겠지. 열쇠를 받아 문을 여는데 낮 모르는 사람이 기웃거린다. 울산에서 8시 30분부터 시작인 줄 알고 왔단다. 아무 준비도 안했는데 황당하다.

서둘러 책상을 꺼내고 전시장 책들도 내는데 미애선생님, 현진이 선생님이 멀리서 빨리 오신다. 9시 가까이 되니 준비할 사람들이 다 모였다. 모자라는 책상 더 꺼내고 방명록 받을 준비하고, 하나 둘 모여 오는 사람들을 받으며 이름 적고, 회비 확인하여 받고, 영수증 주고, 자료는 자료대로 팔고, 작은 일들이 많기도 하다.

준비위원이라 그럴까? 삼삼오오 강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 기분이다.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만 40명을 넘었으니 못 와도 80명은 올거고, 정확히 온다면 100명 정도가 될건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올지 걱정이다.

화장실이 어제보다 더럽다더니 오늘도 여전히 더럽단다. 망서려 보지만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 물 뿌리고, 쓸고, 봉산 뿌리고.

9시 30분

사람들이 많이 왔다. 보라 선생님이 여는 마당을 준비했는데, 노래가사를 복사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매사에 철저한 선생님인데 실수가 생긴다. 학교 앞에 복사하는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일요일이라 문연 곳이 한 곳 없으니! 보라 선생님이 고생이겠다.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서울에서 오시기로 한 한국보육교사회 회장님이 안 오셨다. 어제 저녁 출발하신다니 왜 아직 안 오실까? 회장님이 노심 초사다. 여는 마당이 거의 끝나갈 즈음 교내인데 길을 못찾고 있다는 전화가 왔다. 여기가 초행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10시

강의가 시작된다. 90명은 넘은 것 같다. 일단 성공적이라고 보여진다. 강의만 좋으면 될 것 같다. 차분히, 그러나 정열적으로 손짓, 몸짓을 해가며 열심히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다. 어제 저녁, 장시간 저임금의 보육현실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는 교수님의 말이 떠오른다. 장내가 강의 열기로 조용하다. 늦게 온 사람을 합치면 100명이 될 것 같다.

점심 밥 먹고 현진이 선생님이 계산에 열심이다. 오늘 결산을 하고 있다. 강의 시작하니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통장으로 입금된 사람, 당일 내는 사람, 회원들 회비가 틀려 계산하기 힘들건데, 철저하시다. 지회 소개도 워드로 쳐서 올려 붙이는 열성을 보이더니!

오후 준비한 보라 선생님의 놀이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계속했다. 오전이 발도르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원론적인 얘기라면 오후는 실제적인 부분이다. 인형 만들기, 교사의 교육관, 교사의 자기 관리, 인형 만들기를 시간상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다.

다섯 시간이 넘는 강의와 토론 시간을 마쳤다. 대체적으로 강의에 만족하는 것 같다. 우리 회원들은 행사가 잘 끝나 기뻐하는 표정이고.

웅성 웅성 사람들이 모여 나가고 나니 우리 회원만 남았다. 책상정리, 집 정리, 강의실 정리 - 내일이 보수교육 날이라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밖에 정리가 되는걸 보고 강의실로 가니 테이프를 강의실 찌꺼기를 때내고 있다. 회장님이 아침에 얘기가 했지만 실제로 테이프로 할 줄이야. 뒷정리가 생각보다 쉽게 깨끗하게 끝났다.

판매하던 책, 자료, 잡다한 사무용품, 컵 등 오늘 쓴 물품을 자람터로 보내기 위해 순미 선생님을 불렀다. 순미선생님과 송방울 선생님을 자람터로 보내고 우리는 행사를 멋지게 치뤘던 우리를 자축하고자 뒷풀이 장소로 갔다.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실제

야생의 꽃은 자연 7월 수도 원어류연수의 강의주 미술활동 실제입니다. 본국의 지방 구동지와 수도 원어류주 어류 수 업어 복합(빈) (기) 복복을 위해 앞으로 3월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미술활동에 참 고하도록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이 · 안산,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들어가며

‘열린 미술활동’이라는 말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서 그리기 위주의 미술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즉 회화를 넘어서 설치미술, 행위 미술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고민을 상업화하여 값비싸고 그럴싸한 재료들을 내놓아 보여 주기식 미술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순수미술로의 접근이든 상업화된 미술 교육의 접근이든 아쉬움을 남기는 점이 있다. 아이들의 미술교육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우리 것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이다.

전통 미술을 떠올리면 ‘한지에 그린 먹물 그림’이 떠오르게 된다. 좀 더 생각해보아도 한지 공예, 도자기 공예 정도만이 떠오른다. 이러한 전통 미술에 대한 좁은 지식과 자료 부족이 미술 교육 현장에서 서양 미술 위주의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왜 우리는 전통 미술 하면 박물관에서 보는 수묵화와 도자기만을 떠올리는 것일까?

먼저, 현장의 교사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배운 미술 교육 중 우리의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서양 미술 기법에 익숙해져 있고, 가끔씩 해본 우리네 미술이 수묵화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네 미술이 서양의 전시미술과 달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쉽게 지나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못에 놓여진 수, 물에 걸친 다양한 장식품(노리개, 비녀, 복주머니 등), 그릇, 생활용품(뚝자리, 바구니 등), 자연물을 이용한 염색, 아이들의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활과 함께 한 것들이다.

즉, 생활과 미술이 어우러져 우리네 조상들의 삶에 녹아있어 생활품이라 생각했지 예술 작품이라 인식을 하지 못한데 있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한계성을 넘어서 우리네 정서를 아이들의 교육에 녹아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서서히 교육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로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미술 교육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료들이 아직 많지 않아 어떻게 접근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우리네 조상들의 미술활동들이 생활과 자연물과 밀접한 연계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했다. 또한 요즘 우리네 아이들이 자연물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떠올렸다. 이에 전통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우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을 제시해 본다.

여기서 제시한 자연물은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돌, 흙, 모래, 풀, 조개껍질, 나무와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준 한지까지 포함시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활동들의 대부분이 하루의 활동으로 마무리 되기 보다는 준비물을 채취하고, 만듦고, 말리고, 칠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활동들이다. 우리네 조상들의 은근과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우리네 아이들에게도 기다림의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 본다.

실제편

돌, 흙, 모래를 이용한 미술활동

[옛 모습 따라해 보기]

1. 벽 화

장면 알아들이기

최초의 벽화는 선사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빨간 벽돌 가루와 검은 숯가루에 동물의 기름 덩어리를 섞어 만들어 동굴 벽에 문질러 그렸으며, 이 그림들은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진 암벽이나 큰 바위에 선이나 윤곽을 쏘아내 새긴 돌주꾼 대곡리의 반구대와 고구려의 무용총, 백제의 송산리 6호분의 백호도, 신라의 천마총 등이 유명하다.

▶ 재료 : 찰흙, 송곳

▶ 활동 연령 : 4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찰흙을 잘 치댄 후 판대기에 넓게 편 후 그늘에 말린다.
- ② 찰흙이 다 마른 후 송곳으로 굵어 그림을 그린다.
- ③ 아이들의 그림이 완성되면 조각들을 맞추어 커다란 벽화로 만든다.



2. 토우

▶ 재료 : 찰흙, 물 약간, 끝이 뾰족한 것 (송곳, 혹은 이쑤시개)

▶ 활동 연령 : 5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아이들과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하여 토우를 감상한다.(박물관에 다녀오면 더 좋다.) 다양한 토우의 모양과 만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이 어떠한 용도로 토우를 만들지 정하도록 한다.
- ② 찰흙을 두드려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한다.
- ③ 만들고 싶은 모양을 빚는다. 이때 토우의 이음새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을 약간씩 묻혀가며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잘 붙인다.
- ④ 오븐이 있는 경우 오븐에 구워 마무리한다.
- ⑤ 오븐이 없다면 그늘에 말린다.

▶ 생각해보기 : 아이들과 주술적인 용도의 토우를 만들어 아이가 자신의 토우에게 자신의 바람을 주입하는 것도 활동의 재미와 흥미를 증폭시킬 수 있다.

장면 이야기입니다.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뜻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활 용구, 집 등 모든 것의 모습을 그대로 본 따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대체로 주술적으로 신에 대한 희생의 대용으로 또는 기원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는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 용으로 사용되었고, 장난감으로서 만든 것도 있다.

우리 나라는 신라의 토제 유물로 신라 토우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마 인물형 토기를 비롯해 각배, 남녀 인물상 등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신라의 조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토우나 토용품이 고려 시대에 이르러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고려시대의 불교적인 사회와 관련이 있는 듯하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약간의 명기로서 흔적을 볼 수 있는 점들은 각기 그 시대의 사회와 종교적인 성격이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3. 용기

▶ 재료 : 찰흙, 물 약간



▶ 활동 연령 : 5세 이상 (큰항아리는 초등학교생 공동작품)

▶ 활동 방법

- 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용기를 아이들과 찾아본다.
- ② 찰흙을 커다란 그릇에 담아 막대를 이용하여 흙을 치댄다. 혹은 발로 밟아 치댄다.
- ③ 흙이 부드러워지면 그릇을 빚는다.
- ③-1 흙을 길게 밀어 또아리를 틀 듯이 말아 올려 용기의 모습을 만든다. 물을 이용하여 이음새를 붙인다.
- ③-2 그릇의 두께가 일정해 지도록 두드려 준다.
- ④ 그늘에다 말린다.
- ⑤ 찻불에 담근다
- ⑥ 손으로 무늬를 그려 넣는다.
- ⑦ 그늘에서 말린 뒤 햇빛에 내놓고 다시 말린다.

▶ 생각해보기 : 우리 주변에 가마가 없어서 구워내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만일 용기 마을이 나 자기를 구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활동 전에 민속촌이나 도자기 마을에 가보는 것도 좋다.

장면 이야기입니다.

오지 그릇은 가마 안에 바람과 불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서 산화 번조로 구워 낸 솜을 섞는 그릇이다. 칠그릇은 오랫동안 바람과 불길이 어울려 불심이 셀 때 숟가리를 한꺼번에 많이 지피고 굴뚝을 막고 아궁이를 막아 겹뎡이를 입힌 불완전 환원 번조로 구워 낸 것으로 솜도 많이 섞면서 솜도를 조질하고 청정 작용을 하는 그릇이다. 기원전 400년 내지 500년 전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 나라 최초의 구운 용기의 기원이 된다.

자기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 문화의 극치임에 반해 오지 그릇은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릇이다. 우리 나라 식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발효 식품이 기본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품 저장법이 발달 된 것은 용기라는 저장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용기는 '독' 뿐만 아니라 솟병(식초를 제조하는 기구), 양념단지, 쪽배기, 술, 시루, 불두멍, 수저통, 주전자, 화로, 굴뚝 등 생활 곳곳에 사용되었다.

[88예외요]

4. 전흙그림

▶ 재료 : 찰흙, 물, 붓

▶ 활동 연령 : 3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말라버려 못쓰는 찰흙을 물에 넣어 불린다.
- ② 찰흙이 진흙처럼 되면 아이들과 짓아킨다.
- ③ 붓과 손을 이용하여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

▶ 생각해보기 : 비오는 날 잠시 아이들과 나가서 진흙이 되어버린 땅을 관찰해보고 떠오르는 것은 어떤가요? 진흙 그림을 그릴 벽이 없다면 커다란 전지나 버려진 합판 등을 사용해도 좋다.

5. 돌그림

▶ 재료 : 돌, 아크릴 물감, 붓

▶ 활동 연령 : 5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주변을 돌아다니며 돌을 주은 후 주운 돌을 보며 다양한 돌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② 돌을 깨끗이 씻는다.
- ③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돌에 그림을 그린다.
- ④ 잘 말린 후 아이들과 돌을 창가 쪽이나 화분 주변에 놓아준다.

6. 진흙그림

▶ 재료 : 모래, 물, 나뭇가지, 나뭇잎, 돌, 다양한 크기의 그릇

▶ 활동 연령 : 4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모래에 물을 뿌려 모래가 잘 뭉쳐지도록 한다.
- ② 그릇에다 모래를 퍼서 모양 틀로 사용한다.
- ③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다리도 만든다.
- ④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이용하여 꾸민다.

▶ 생각해보기 : 전래 놀이 중 '두껍아 두껍아'를 이용하여 굴을 파며 놀면서 만들어 봅시다.
▶ 참고 : 활동 재료가 두 배가 됩니다.



[용용해박요]

7. 화석만들기

▶ 재료 : 진흙, 조개

▶ 활동 연령 : 3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진흙을 판대기에 넓게 편다.
- ② 조개를 진흙 위에 찍어 낸다.(진흙에 박아 넣어 꾸미기도 한다)
- ③ 말린 후 채색한다. 그리고 다시 그늘에 말려준다.
- ④ 니스를 칠한 후 말린다.

▶ 생각해 보기 : 화석에 대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만든다면 더 흥미로워 질 것이다.

▶ 더 나가보기 : 진흙 안에 교사가 미리 조개들을 숨겨 놓은 후 말린다. 아이들이 진흙을 깨 살펴볼 수 있게 이 가면서 발견하도록 해보자.

8. 조개그림

▶ 재료 : 조개, 싸인펜 혹은 아크릴 물감

▶ 활동 연령 : 5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조개를 깨끗하게 씻는다.
- ② 조개 안쪽에 싸인펜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 ③ 다 마른 후 니스를 칠 해준다.

▶ 생각해보기 : 조개 그림 그 자체로 전시해도 좋고,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사용하거나 노리개로 만든다면 또 다른 느낌의 활동이 될 것이다.

9. 목걸이팔찌

▶ 재료 : 소라, 조개껍질, 낚시줄

▶ 활동 연령 : 5세 이상

▶ 활동 방법

- ① 소라, 조개 껍질을 모은다.
- ② 낚시줄을 구멍에 끼워 이어준다.
- ③ 목걸이나 팔찌의 길이에 맞추어 묶어준다.

▶ 생각해보기 : 몸에 착용하고 바닷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틀어 주어 신체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여름밤은 좋아라 - 주감 어린이집 1박보육

김향진 · 부산, 주감어린이집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이 많이 자랐다 생각하면서도 한편 긴 여행을 할라치면 이만저만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생태 교육을 올 한 해 주제로 정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캠프를 계획했다. 6월부터 자료를 모으고 장소를 불색하고, 교사들 모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밤을 보낼까 부산을 떠났다.

하지만 7월 한 여름 씨랜드 수련원에서 생긴 아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먼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캠프는 자연 취소되었다. 급기야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보육에서 본 적이 있는 1박 보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에서 1박 보육을 한다니까 부모들도 안심하고 36개월 미만 채송화반 아이들까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첫째 날,

아침 일찍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여 아이들을 모으고 10시 내 고장 부산을 살펴보기 위해 백양산 자락에 위치한 신라대학교를 향했다. 백양산 자락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낙동강과 부산을 살펴보고는 해운대 장산 공원으로 신나는 물놀이를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고른 배를 채우고 알록달록 수영복을 갈아입은 채 체조를 시작으로 물놀이는 수영뿐 아니라 반벌로 피라미 잡기 대회, 계곡주위 물들을 이용한 협동하여 돌탑쌓기도 하였다. 최대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의 알록달록 수영복이 온 계곡을 휘젓고 다니길 몇 시간, 계곡 저 위편까지 산책을 하고 오는 길에 개망초를 한아름 찍어 들고는 함양 아리랑도 부르며 버스에 올랐다.

어린이집에 4시가 조금 넘어 도착해서 오후 간식으로 잘 익은 수박을 먹고는 보물찾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낮잠을 잘 시간인데 아이들이 먼 길 나들이에 물놀이까지 해서 늦은 시간 까지 견딜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괜한 걱정.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4살 민수까지 모두 보물 찾기를 하겠다.

보물은 지렁이, 꽃잎 몇 장, 물방이 몇 개, 00모양의 나뭇잎, 00색의 꽃잎 등 자연물의 이름을 적고 그 종이를 어린이집 대나무 울타리, 옆 텃밭, 연수네 마당 곳곳에 숨겼다. "보물을 찾아라"

하는 소리와 동시에 "야!"하는 함성과 물레 족지 숨기는 걸 훑쳐 보던 아이들의 기대가 마당 밖으로 터져 나왔다.

족지를 찾고도 지렁이를 잡으려, 메뚜기를 잡으려 땅만 뚫어져라 쳐다보는가 하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늘 아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보물 찾기가 끝나고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신 맛있는 닭백숙을 저녁으로 먹었다. 녀석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냄비 바닥만 긁다 말 정도였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당에서의 불꽃놀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루 종일 여행에 피곤한 아이들과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름밤에 불을 피운다는 것, 내심 불났다고 누가 신고나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저런 걱정들 속에서도 교사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세수를 마치고 60명 어린이집에 불을 끈 캄캄한 방에서 "히히히" 귀신 놀이가 시작. 한바탕 난리를 치고 기운을 다 뺀 듯 잠시 잠자리에 누워 부모님들이 적어주신 사랑의 편지를 읽는 동안 마당에서는 못자리를 깔고 나무에 불을 피워 고구마와 옥수수를 굽기 시작했다. 마당으로 나선 아이들은 피워진 불꽃을 보고는 피곤은 저리 가라며 꼭 우리들 자라 때 마냥 막대기로 불을 쏘고 입이 시커멓게 되도록 군고구마와 옥수수를 먹고 큰 두 반 아이들은 야간 산행을 했다. 여섯살반 아이들이 어두워 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겁 많은 미나에서 동현이까지 모두 손전등을 들고 산엘 올랐다. 그런데 어라? 다섯살반 민기가 잘 생각도 않고 코끼리 선생님 등에 업혀 길을 나선다. 이 녀석도 이 밤이 쉽게 잠들지 않는지 이렇저렇 민기를 걸러 산에 오르니 온통 주위는 캄캄. 낮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귀뚜라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 계곡의 물소리, 바람 소리 등 어둡고 캄캄한 밤의 평화를 느꼈다.

미리 준비해 온 야광별을 목에 걸어주며 선생님의 한 말씀.

"애들아! 하늘 봐라. 선생님이 너희들 선물 주려고 바가지로 하늘에 별을 다 긁어와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

"야! 지혜야, 정말이네. 하늘에 별이 한도 없네. 선생님이 갖고 왔나 보다."

"어? 정말이다."

"어? 선생님 저기 별이 하나 남았어요."

"응, 선생님이 저 별은 못 봐서 그렇다."

"에이, 다 따오지."

몇 개 남은 하늘의 별을 뒤로 목에 하나씩 별을 달고 꿈나라로 갔다.

다음 날 깨우지도 않았는데 몇 녀석(현준, 준수 일당)은 일찍부터(6시) 깨서는 장난감을 달그락 달그락.

7시쯤 모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놀이터 운동장에서 체조하고 어머니들이 보내 주신 온갖가지 반찬에 아침을 먹고, 어젯밤 민희 어머니가 빨아주신 흰색의 주감 어린이집 티를 입고 그렇게 기다리던 기차를 타러 부전역으로 갔다. 신나게 기차에 몸을 싣고 기장역에 도착. 역 대합실에서 책도 읽고 인근 야산에서 정성스런 오색 주먹밥-아침에 예진이 어머니와 지운이 어머니가 만든-도 먹고 또 자연 속에서 한 나절을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오는 기차에서는 어제와 오늘의 피곤이 한꺼번에 닥치는지 입석표를 꿰고도 마음씨 좋은 대



학생 이모, 삼촌들의 자리에 딱 버티고 누워 꿀잠 잠이 들었다.

4시쯤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간식을 먹으며 "다음에 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린이집에서 잘까?" 물으며 그동안의 1박 보육을 평가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아이들과 걱정 많고 기대 많던 한 여름밤을 보내고 나니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우선 모든 부모님들이 믿고 맡겨 주신 신뢰에 참 감사를 드리고 싶다. 씨랜드 사고 후 걱정도 많았을 텐데 좋은 교육의 실현은 걱정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부모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 아이들을 놓고 보니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자연 속에 커야 한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이 많아 빡빡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포기하기보다는 교사들이 먼저 지치게 사실이고 강하게 본능하게 어울려 사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는 아이들보다 우리들의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아이들은 늘 어울려 살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나 할까?

끝으로 재밌었던 긴긴밤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자라나 오늘의 이 밤이 좋은 추억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어른이 되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난 늘 행복하다.

■ 주립어린이집 1박보육

일시 : 1999년 7월 15-16일(1박2일)

장소 : 어린이집, 백양산, 장산계곡, 기장

참가아동 : 4세 9명, 5세 18명, 6세 13명, 7세 13명 총 53명

교사 및 자활 : 교사 5명, 실습생 2명, 자활 2명, 공공근로 교사 1명 총 10명

목적 :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자

1. 답답한 보육실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자.
2. 모든 아이들이 같이 생활함으로써 공동체를 느끼자.

■ 일정소개

15일

10시 - 백양산에서 부산 살펴보기

10시 30분 - 해운대 장산계곡으로 물놀이

11시 30분 - 점심

12시 30분 - 협동놀이 및 물놀이, 산책

15시 40분 - 어린이집으로 출발

16시 30분 - 오후 간식(수박)

17시 00분 -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마치고 4세반 부모님들 지도하에 귀가

19시 30분 - 저녁식사(닭백숙)

20시 30분 - 이닦기, 세수, 귀신놀이

21시 30분 - 마당에서 옥수수, 고구마 구워먹기

22시 30분 - 6,7세반 야간 산행

23시 20분 - 꿈나라로

16일

07시 30분 - 기상, 세수, 체조

08시 30분 - 아침 먹기

09시 30분 - 기차역으로 출발(4,5세반 어린이집 붐고 이용, 6,7세 지하철 이용)

10시 26분 - 기장으로 출발

11시 00분 - 기차역사에서 기다림

12시 00분 - 근처 야산에서 점심, 자유놀이

14시 26분 - 어린이집으로 출발

16시 00분 - 어린이집 도착, 간식(수박) 후 평가

16시 30분 - 붐고로 귀가

■ 사전부모 협력작업

가정통신문을 통해 2차례 안내와 1차례 취지 설명을 모든 가정에 알리고 평소 어린이집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자체 해결이 어려운 몇가지 문제를 얘기하기로 했다.

1. 36개월 미만은 15일 저녁 7시 집으로 귀가 시킨다.
2. 이불, 베개는 충분히 학부모집에서 미리 빌린다.
3. 15일 저녁과 16일 점심 준비는 형편이 되는 몇몇 부모님께 부탁드린다.
4. 아이들 잠버릇을 미리 알아둔다.

■ 약속준비

만족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우리와 함께 한 어린이집은 15일과 16일 두박을 통해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 8세반, 9세반, 10세반, 11세반, 12세반, 13세반, 14세반, 15세반, 16세반, 17세반, 18세반, 19세반, 20세반, 21세반, 22세반, 23세반, 24세반, 25세반, 26세반, 27세반, 28세반, 29세반, 30세반, 31세반, 32세반, 33세반, 34세반, 35세반, 36세반, 37세반, 38세반, 39세반, 40세반, 41세반, 42세반, 43세반, 44세반, 45세반, 46세반, 47세반, 48세반, 49세반, 50세반, 51세반, 52세반, 53세반, 54세반, 55세반, 56세반, 57세반, 58세반, 59세반, 60세반, 61세반, 62세반, 63세반, 64세반, 65세반, 66세반, 67세반, 68세반, 69세반, 70세반, 71세반, 72세반, 73세반, 74세반, 75세반, 76세반, 77세반, 78세반, 79세반, 80세반, 81세반, 82세반, 83세반, 84세반, 85세반, 86세반, 87세반, 88세반, 89세반, 90세반, 91세반, 92세반, 93세반, 94세반, 95세반, 96세반, 97세반, 98세반, 99세반, 100세반, 101세반, 102세반, 103세반, 104세반, 105세반, 106세반, 107세반, 108세반, 109세반, 110세반, 111세반, 112세반, 113세반, 114세반, 115세반, 116세반, 117세반, 118세반, 119세반, 120세반, 121세반, 122세반, 123세반, 124세반, 125세반, 126세반, 127세반, 128세반, 129세반, 130세반, 131세반, 132세반, 133세반, 134세반, 135세반, 136세반, 137세반, 138세반, 139세반, 140세반, 141세반, 142세반, 143세반, 144세반, 145세반, 146세반, 147세반, 148세반, 149세반, 150세반, 151세반, 152세반, 153세반, 154세반, 155세반, 156세반, 157세반, 158세반, 159세반, 160세반, 161세반, 162세반, 163세반, 164세반, 165세반, 166세반, 167세반, 168세반, 169세반, 170세반, 171세반, 172세반, 173세반, 174세반, 175세반, 176세반, 177세반, 178세반, 179세반, 180세반, 181세반, 182세반, 183세반, 184세반, 185세반, 186세반, 187세반, 188세반, 189세반, 190세반, 191세반, 192세반, 193세반, 194세반, 195세반, 196세반, 197세반, 198세반, 199세반, 200세반, 201세반, 202세반, 203세반, 204세반, 205세반, 206세반, 207세반, 208세반, 209세반, 210세반, 211세반, 212세반, 213세반, 214세반, 215세반, 216세반, 217세반, 218세반, 219세반, 220세반, 221세반, 222세반, 223세반, 224세반, 225세반, 226세반, 227세반, 228세반, 229세반, 230세반, 231세반, 232세반, 233세반, 234세반, 235세반, 236세반, 237세반, 238세반, 239세반, 240세반, 241세반, 242세반, 243세반, 244세반, 245세반, 246세반, 247세반, 248세반, 249세반, 250세반, 251세반, 252세반, 253세반, 254세반, 255세반, 256세반, 257세반, 258세반, 259세반, 260세반, 261세반, 262세반, 263세반, 264세반, 265세반, 266세반, 267세반, 268세반, 269세반, 270세반, 271세반, 272세반, 273세반, 274세반, 275세반, 276세반, 277세반, 278세반, 279세반, 280세반, 281세반, 282세반, 283세반, 284세반, 285세반, 286세반, 287세반, 288세반, 289세반, 290세반, 291세반, 292세반, 293세반, 294세반, 295세반, 296세반, 297세반, 298세반, 299세반, 300세반, 301세반, 302세반, 303세반, 304세반, 305세반, 306세반, 307세반, 308세반, 309세반, 310세반, 311세반, 312세반, 313세반, 314세반, 315세반, 316세반, 317세반, 318세반, 319세반, 320세반, 321세반, 322세반, 323세반, 324세반, 325세반, 326세반, 327세반, 328세반, 329세반, 330세반, 331세반, 332세반, 333세반, 334세반, 335세반, 336세반, 337세반, 338세반, 339세반, 340세반, 341세반, 342세반, 343세반, 344세반, 345세반, 346세반, 347세반, 348세반, 349세반, 350세반, 351세반, 352세반, 353세반, 354세반, 355세반, 356세반, 357세반, 358세반, 359세반, 360세반, 361세반, 362세반, 363세반, 364세반, 365세반, 366세반, 367세반, 368세반, 369세반, 370세반, 371세반, 372세반, 373세반, 374세반, 375세반, 376세반, 377세반, 378세반, 379세반, 380세반, 381세반, 382세반, 383세반, 384세반, 385세반, 386세반, 387세반, 388세반, 389세반, 390세반, 391세반, 392세반, 393세반, 394세반, 395세반, 396세반, 397세반, 398세반, 399세반, 400세반, 401세반, 402세반, 403세반, 404세반, 405세반, 406세반, 407세반, 408세반, 409세반, 410세반, 411세반, 412세반, 413세반, 414세반, 415세반, 416세반, 417세반, 418세반, 419세반, 420세반, 421세반, 422세반, 423세반, 424세반, 425세반, 426세반, 427세반, 428세반, 429세반, 430세반, 431세반, 432세반, 433세반, 434세반, 435세반, 436세반, 437세반, 438세반, 439세반, 440세반, 441세반, 442세반, 443세반, 444세반, 445세반, 446세반, 447세반, 448세반, 449세반, 450세반, 451세반, 452세반, 453세반, 454세반, 455세반, 456세반, 457세반, 458세반, 459세반, 460세반, 461세반, 462세반, 463세반, 464세반, 465세반, 466세반, 467세반, 468세반, 469세반, 470세반, 471세반, 472세반, 473세반, 474세반, 475세반, 476세반, 477세반, 478세반, 479세반, 480세반, 481세반, 482세반, 483세반, 484세반, 485세반, 486세반, 487세반, 488세반, 489세반, 490세반, 491세반, 492세반, 493세반, 494세반, 495세반, 496세반, 497세반, 498세반, 499세반, 500세반, 501세반, 502세반, 503세반, 504세반, 505세반, 506세반, 507세반, 508세반, 509세반, 510세반, 511세반, 512세반, 513세반, 514세반, 515세반, 516세반, 517세반, 518세반, 519세반, 520세반, 521세반, 522세반, 523세반, 524세반, 525세반, 526세반, 527세반, 528세반, 529세반, 530세반, 531세반, 532세반, 533세반, 534세반, 535세반, 536세반, 537세반, 538세반, 539세반, 540세반, 541세반, 542세반, 543세반, 544세반, 545세반, 546세반, 547세반, 548세반, 549세반, 550세반, 551세반, 552세반, 553세반, 554세반, 555세반, 556세반, 557세반, 558세반, 559세반, 560세반, 561세반, 562세반, 563세반, 564세반, 565세반, 566세반, 567세반, 568세반, 569세반, 570세반, 571세반, 572세반, 573세반, 574세반, 575세반, 576세반, 577세반, 578세반, 579세반, 580세반, 581세반, 582세반, 583세반, 584세반, 585세반, 586세반, 587세반, 588세반, 589세반, 590세반, 591세반, 592세반, 593세반, 594세반, 595세반, 596세반, 597세반, 598세반, 599세반, 600세반, 601세반, 602세반, 603세반, 604세반, 605세반, 606세반, 607세반, 608세반, 609세반, 610세반, 611세반, 612세반, 613세반, 614세반, 615세반, 616세반, 617세반, 618세반, 619세반, 620세반, 621세반, 622세반, 623세반, 624세반, 625세반, 626세반, 627세반, 628세반, 629세반, 630세반, 631세반, 632세반, 633세반, 634세반, 635세반, 636세반, 637세반, 638세반, 639세반, 640세반, 641세반, 642세반, 643세반, 644세반, 645세반, 646세반, 647세반, 648세반, 649세반, 650세반, 651세반, 652세반, 653세반, 654세반, 655세반, 656세반, 657세반, 658세반, 659세반, 660세반, 661세반, 662세반, 663세반, 664세반, 665세반, 666세반, 667세반, 668세반, 669세반, 670세반, 671세반, 672세반, 673세반, 674세반, 675세반, 676세반, 677세반, 678세반, 679세반, 680세반, 681세반, 682세반, 683세반, 684세반, 685세반, 686세반, 687세반, 688세반, 689세반, 690세반, 691세반, 692세반, 693세반, 694세반, 695세반, 696세반, 697세반, 698세반, 699세반, 700세반, 701세반, 702세반, 703세반, 704세반, 705세반, 706세반, 707세반, 708세반, 709세반, 710세반, 711세반, 712세반, 713세반, 714세반, 715세반, 716세반, 717세반, 718세반, 719세반, 720세반, 721세반, 722세반, 723세반, 724세반, 725세반, 726세반, 727세반, 728세반, 729세반, 730세반, 731세반, 732세반, 733세반, 734세반, 735세반, 736세반, 737세반, 738세반, 739세반, 740세반, 741세반, 742세반, 743세반, 744세반, 745세반, 746세반, 747세반, 748세반, 749세반, 750세반, 751세반, 752세반, 753세반, 754세반, 755세반, 756세반, 757세반, 758세반, 759세반, 760세반, 761세반, 762세반, 763세반, 764세반, 765세반, 766세반, 767세반, 768세반, 769세반, 770세반, 771세반, 772세반, 773세반, 774세반, 775세반, 776세반, 777세반, 778세반, 779세반, 780세반, 781세반, 782세반, 783세반, 784세반, 785세반, 786세반, 787세반, 788세반, 789세반, 790세반, 791세반, 792세반, 793세반, 794세반, 795세반, 796세반, 797세반, 798세반, 799세반, 800세반, 801세반, 802세반, 803세반, 804세반, 805세반, 806세반, 807세반, 808세반, 809세반, 810세반, 811세반, 812세반, 813세반, 814세반, 815세반, 816세반, 817세반, 818세반, 819세반, 820세반, 821세반, 822세반, 823세반, 824세반, 825세반, 826세반, 827세반, 828세반, 829세반, 830세반, 831세반, 832세반, 833세반, 834세반, 835세반, 836세반, 837세반, 838세반, 839세반, 840세반, 841세반, 842세반, 843세반, 844세반, 845세반, 846세반, 847세반, 848세반, 849세반, 850세반, 851세반, 852세반, 853세반, 854세반, 855세반, 856세반, 857세반, 858세반, 859세반, 860세반, 861세반, 862세반, 863세반, 864세반, 865세반, 866세반, 867세반, 868세반, 869세반, 870세반, 871세반, 872세반, 873세반, 874세반, 875세반, 876세반, 877세반, 878세반, 879세반, 880세반, 881세반, 882세반, 883세반, 884세반, 885세반, 886세반, 887세반, 888세반, 889세반, 890세반, 891세반, 892세반, 893세반, 894세반, 895세반, 896세반, 897세반, 898세반, 899세반, 900세반, 901세반, 902세반, 903세반, 904세반, 905세반, 906세반, 907세반, 908세반, 909세반, 910세반, 911세반, 912세반, 913세반, 914세반, 915세반, 916세반, 917세반, 918세반, 919세반, 920세반, 921세반, 922세반, 923세반, 924세반, 925세반, 926세반, 927세반, 928세반, 929세반, 930세반, 931세반, 932세반, 933세반, 934세반, 935세반, 936세반, 937세반, 938세반, 939세반, 940세반, 941세반, 942세반, 943세반, 944세반, 945세반, 946세반, 947세반, 948세반, 949세반, 950세반, 951세반, 952세반, 953세반, 954세반, 955세반, 956세반, 957세반, 958세반, 959세반, 960세반, 961세반, 962세반, 963세반, 964세반, 965세반, 966세반, 967세반, 968세반, 969세반, 970세반, 971세반, 972세반, 973세반, 974세반, 975세반, 976세반, 977세반, 978세반, 979세반, 980세반, 981세반, 982세반, 983세반, 984세반, 985세반, 986세반, 987세반, 988세반, 989세반, 990세반, 991세반, 992세반, 993세반, 994세반, 995세반, 996세반, 997세반, 998세반, 999세반, 1000세반, 1001세반, 1002세반, 1003세반, 1004세반, 1005세반, 1006세반, 1007세반, 1008세반, 1009세반, 1010세반, 1011세반, 1012세반, 1013세반, 1014세반, 1015세반, 1016세반, 1017세반, 1018세반, 1019세반, 1020세반, 1021세반, 1022세반, 1023세반, 1024세반, 1025세반, 1026세반, 1027세반, 1028세반, 1029세반, 1030세반, 1031세반, 1032세반, 1033세반, 1034세반, 1035세반, 1036세반, 1037세반, 1038세반, 1039세반, 1040세반, 1041세반, 1042세반, 1043세반, 1044세반, 1045세반, 1046세반, 1047세반, 1048세반, 1049세반, 1050세반, 1051세반, 1052세반, 1053세반, 1054세반, 1055세반, 1056세반, 1057세반, 1058세반, 1059세반, 1060세반, 1061세반, 1062세반, 1063세반, 1064세반, 1065세반, 1066세반, 1067세반, 1068세반, 1069세반, 1070세반, 1071세반, 1072세반, 1073세반, 1074세반, 1075세반, 1076세반, 1077세반, 1078세반, 1079세반, 1080세반, 1081세반, 1082세반, 1083세반, 1084세반, 1085세반, 1086세반, 1087세반, 1088세반, 1089세반, 1090세반, 1091세반, 1092세반, 1093세반, 1094세반, 1095세반, 1096세반, 1097세반, 1098세반, 1099세반, 1100세반, 1101세반, 1102세반, 1103세반, 1104세반, 1105세반, 1106세반, 1107세반, 1108세반, 1109세반, 1110세반, 1111세반, 1112세반, 1113세반, 1114세반, 1115세반, 1116세반, 1117세반, 1118세반, 1119세반, 1120세반, 1121세반, 1122세반, 1123세반, 1124세반, 1125세반, 1126세반, 1127세반, 1128세반, 1129세반, 1130세반, 1131세반, 1132세반, 1133세반, 1134세반, 1135세반, 1136세반, 1137세반, 1138세반, 1139세반, 1140세반, 1141세반, 1142세반, 1143세반, 1144세반, 1145세반, 1146세반, 1147세반, 1148세반, 1149세반, 1150세반, 1151세반, 1152세반, 1153세반, 1154세반, 1155세반, 1156세반, 1157세반, 1158세반, 1159세반, 1160세반, 1161세반, 1162세반, 1163세반, 1164세반, 1165세반, 1166세반, 1167세반, 1168세반, 1169세반, 1170세반, 1171세반, 1172세반, 1173세반, 1174세반, 1175세반, 1176세반, 1177세반, 1178세반, 1179세반, 1180세반, 1181세반, 1182세반, 1183세반, 1184세반, 1185세반, 1186세반, 1187세반, 1188세반, 1189세반, 1190세반, 1191세반, 1192세반, 1193세반, 1194세반, 1195세반, 1196세반, 1197세반, 1198세반, 1199세반, 1200세반, 1201세반, 1202세반, 1203세반, 1204세반, 1205세반, 1206세반, 1207세반, 1208세반, 1209세반, 1210세반, 1211세반, 1212세반, 1213세반, 1214세반, 1215세반, 1216세반, 1217세반, 1218세반, 1219세반, 1220세반, 1221세반, 1222세반, 1223세반, 1224세반, 1225세반, 1226세반, 1227세반, 1228세반, 1229세반, 1230세반, 1231세반, 1232세반, 1233세반, 1234세반, 1235세반, 1236세반, 1237세반, 1238세반, 1239세반, 1240세반, 1241세반, 1242세반, 1243세반, 1244세반, 1245세반, 1246세반, 1247세반, 1248세반, 1249세반, 1250세반, 1251세반, 1252세반, 1253세반, 1254세반, 1255세반, 1256세반, 1257세반, 1258세반, 1259세반, 1260세반, 1261세반, 1262세반, 1263세반, 1264세반, 1265세반, 1266세반, 1267세반, 1268세반, 1269세반, 1270세반, 1271세반, 1272세반, 1273세반, 1274세반, 1275세반, 1276세반, 1277세반, 1278세반, 1279세반, 1280세반, 1281세반, 1282세반, 1283세반, 1284세반, 1285세반, 1286세반, 1287세반, 1288세반, 1289세반, 1290세반, 1291세반, 1292세반, 1293세반, 1294세반, 1295세반, 1296세반, 1297세반, 1298세반, 1299세반, 1300세반, 1301세반, 1302세반, 1303세반, 1304세반, 1305세반, 1306세반, 1307세반, 1308세반, 1309세반, 1310세반, 1311세반, 1312세반, 1313세반, 1314세반, 1315세반, 1316세반, 1317세반, 1318세반, 1319세반, 1320세반, 1321세반, 1322세반, 1323세반, 1324세반, 1325세반, 1326세반, 1327세반, 1328세반, 1329세반, 1330세반, 1331세반, 1332세반, 1333세반, 1334세반, 1335세반, 1336세반, 1337세반, 1338세반, 1339세반, 1340세반, 1341세반, 1342세반, 1343세반, 1344세반, 1345세반, 1346세반, 1347세반, 1348세반, 1349세반, 1350세반, 1351세반, 1352세반, 1353세반, 1354세반, 1355세반, 1356세반, 1357세반, 1358세반, 1359세반, 1360세반, 1361세반, 1362세반, 1363세반, 1364세반, 1365세반, 1366세반, 1367세반, 1368세반, 1369



아이들과 떠나는 가을 박물관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경기도 박물관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연락처: 0335-2285-2011~4

관람료: 18세 이하 무료, 19-26세 700원 (한복입고 오면 무료)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매주 월요일 휴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셔틀버스 운행: 매일 4회 (수원역 ↔ 박물관)

박물관 소개

경기도 박물관은 전시관의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야외 공간이 넓고 볼거리가 있어 여러번 가도 좋고, 특히 이 가을에 가면 더 좋은 곳이다. 아동관람객을 염두하여 유물 전시가 되어 있다는 점도 기분이 좋고, 관람을 마친 후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과 도시락을 먹는 재미가 삶의 재미로 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박물관은 전시물의 내용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지만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고려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시실은 1층과 2층에 걸쳐 5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는데, 2층에서부터 차례대로 관람하다보면 1층 로비로 연결된다. 각 전시실의 전시물 건수가 너무 많아 오밀 조밀 하거나, 너무 적지 않으며, 큐레이터가 잘 되어있어서 유아들도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모형물, 매직비전, 디오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어서 다른 박물관에 비해 유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

1층에는 안내 데스크와 기념품 점이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내용을 무료로 프린트도 할 수 있다.

1층로비는 시기별로 특별 전시를 하는데 상설전시나 특별전시관 모두 아동의 눈 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눈으로 보는 것 뿐 아니라 직접 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곳,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만져보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전시관 바깥은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며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실외 조형물도 볼만하다.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고미술실 I

경기도 일대에서 고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 신석기 유적, 청동기 유적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아들이 한눈에 시대의 변천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유아들이 가장 좋아 할만한 곳이다.

고고미술실 II

이곳에는 청동반자, 고려청자, 등 고려시대 유물부터 조선시대의 백자에 이르기까지 주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마터 모형이 있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문헌자료실

경기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각종 고문서, 고지도, 전적, 탁본등을 전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와 현대의 지도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조상의 목판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인쇄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목판본을 인쇄해 볼 수 있다(종이는 기념품점에서 구입한다.)

민속생활실

민속이란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한 민족의 생활문화이며 한 민족의 생활양식이다. 우리의 전통마을의 모습을 어땠으며 마을 안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활 하였는지, 농사를 어떻게 지었으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 조상들의 생활을 볼 수 있다.

전시실 바닥이 대동여지도중 한강 유역 경기도 부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경기도 담 곳에 대한 모형과 매직비전, 전통마을 모형, 디오라마 등으로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서화실

문화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조선시대 후기인 18세기와 19세기의 그림과 글씨, 편지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현장교육3

기증유물실

경기도에 있는 집안이나 또는 개인들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고문서를 비롯하여 의복, 지식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을 잘 활용하려면

종합박물관으로 유아들도 재미있게 박물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을 처음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 이곳을 선택한다면 아이들이 박물관은 매우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전시실마다 특징이 있어서 유아들도 전시물 전체를 충분히 관람할 수는 있지만 활동은 몇 개의 전시실만을 선택하여 전개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고고미술실에 초점을 둔다면 사전활동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칼이 있었을까? 등의 질문을 하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여 박물관을 방문하면 고고미술실에서 볼 수 있는 생활모습 시대적 변천을 집중하여 보게 될 것이다.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코너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므로 박물관에서 마련한 코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만져 볼 수 있는 곳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을 잘 활용하자.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프로그램

기억에 남는 것 그려보기

준비물: 스케치북, 크레파스, 싸인펜, 색연필

활동방법:

박물관을 모두 관람하고 나서 로비나 실외 공터에 모인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각자 그려 보게한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본 유물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니? 그것을 종이에 그려보자

박물관 스케치북을 별도로 마련하여 박물관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도록 하면 멋진 박물관 그

림책이 된다.

보물을 찾아라.

준비물: 교사가 미리 준비한 워크시트

활동방법

교사가 사전 답사시 박물관의 각 전시실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면 스티커를 준다. 스티커를 모두 받으면 보물을 찾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청룡의 발톱은 몇개인가요?(고고미술실)

"경기"라는 글자를 찾아보세요.(문헌자료실)

지도의 감을 따라 걸어가 보자(민속생활실)

상상해 보기

준비물: 없음.

활동방법

관람한 후 야외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욱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다.

- 만약에 00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 만약 네가 지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졌니?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준비물: 교사가 제작한 퍼즐 놀잇감

예전의 모습과 변화한 요즘의 모습을 찾아 맞추어 볼 수 있는 퍼즐을 제작하여 놀게 한다. 박물관을 다녀오기 전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박물관을 다녀와서는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각들이 되어보자.

중남미 박물관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302-1

연락처: 0344)62-7171, 62-9291

관람료: 어른 2000원, 중고생 1500, 어린이 1000원

관람시간: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박물관 소개

중남미 박물관은 중남미 지역 외교관으로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개인이 은퇴 후 그동안 수집해오던 중남미 지역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중남미라는 조금은 생소한 지역의 문화이어서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 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낯선 중남미라는 곳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다.

이곳은 아담한 정원과 박물관 미술관 구성되어 있다.

전시물은 유아들이 일회에 모두 관람할 수 있고 특히 가면, 토기, 악기 등이 인상적이다.

아이들이 TV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사전에 학습하여 아이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체 예약 관람시 휴게실에서 강의도 받을 수 있다.

전시실을 공간적으로는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제별로 보면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중앙홀

중앙홀의 벽면에는 파라베라 청색자기와 빅토르 구피에레스의 메스티소 여인 조각상에 눈에 띈다.

토기실

흔히 볼 수 없는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모양을 만든 토기가 주를 이룬다. 아기상이나 여인상, 충산중인 프라클레오를 여신등 다산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토우들이 인상적이다.

스페인 정복실

성화들 중 스페인 종교화의 대가인 무리(Murillo 1677-1682)의 화법에 따른 18세기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 성당의 수사 호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목기, 석기실

까르치 토기, 차진토기, 마야의 칼등 석기와 목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가면실

여러 가지 신기한 가면들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 가면들만으로도 충분히 박물관에 온 줄

거음을 느낀다. 게 가면, 앵무새 가면, 뱀가면, 물고기 가면, 부엉새가면 등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가면과 쌍가면, 삼겹가면, 마귀와 처사가면, 죽음의 가면, 춤추는 마귀가면 등 정신세계의 가면이 이색적이다.

생활소품실

멕시코의 구리로 만든 공예품과 그릇, 다리미, 재봉틀, 껌깍 등 생활용품과 악기가 전시되어 있다. 이색적인 악기들이 재미있다.

중남미 박물관을 잘 활용하려면

이곳은 박물관의 전시물을 모두 관람하고 중앙홀이나 휴게실 등을 이용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생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 옆 건물에 미술관과 기념품 판매소가 있는데, 미술관까지 관람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 미술관 보다는 야외 전시장에 있는 조형물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할품이나 그림도구를 준비해 가지고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본다.

중남미 박물관을 다녀와서 중남미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확장하여 활동할 수 있다.

중남미의 나라, 사람들, 옷, 음식, 집, 노래, 말 등에 대해 재미있는 활동들로 연계해보자.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프로그램

중남미는 어디일까? - 지도에서 찾아보기

박물관 여행을 하기 전에 큰 세계지도에서 중남미지역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와 얼마나 먼가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조각물이 되어보자.

야외 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똑같이 흉내 내어 보게 한다.

그림으로 기록하기 -가면실에서

가장 무서운 가면은

가장 슬픈 가면은

가장 이상하게 생긴 가면은

가장 큰 가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물건 찾아보기

생활 소품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생활용품을 찾아보게 한다.

색깔로 표현해 보기

박물관 관람을 모두 마치고 로비나 휴게실에서 할 수 있다.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 쪽에는 우리나라를, 다른 한 쪽에는 중남미를 선과 색으로 표현해 보게한다.

시후활동

가면 만들기

박물관에 자신이 그림으로 기록해온 자료를 보면서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여 가면을 만들어 본다.

중남미에 대한 프로젝트

•중남미란

- 중남미는 어디에 있을까? .
- 중남미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중남미의 음악

-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중남미 음악 테이프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음악감상 하기,
- 노래 배우기

*중남미 사람들의 옷- 망토, 모자 만들기

*중남미사람들의 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발도르프린더가르텐국제연합에서 온 편지

Dr. Wolfgang Sassmannshausen

Internationale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erten

Auf der Breite 9

D - 58093 Hagen

Tel: 00249 2331 59 15 30

Fax: 00249 2331 59 13 40

Mrs.

정 회연 한국보육교사회 회장님께

서울, 대한민국

1999. 5. 31.

친애하는 정 회장님,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 여러분,

윤박사님이 고맙게 독일어로 번역해 주시고 나에게 전달된 당신의 편지와 행사보고서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29 - 5. 1. 까지 함께 했던 행사와 우리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배풀어 주셨던 손님에 대한 친절함을 기꺼이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Braune 선생님과 Schroeder 선생님과의 대화 후 나는 그 두사람과 일치하는 인상을 나의 편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작은 회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참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방문시 받은 인상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시설을 소개해 주고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



발도르프인더가르텐국제연합에서 온 편지

어 주신 교사들의 열려 있는 마음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아주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낯설은 이들에 불과했음에도 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시설(방과후 아동반과 학령 이전의 어린이집이 분리된 공동육아)에서 자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수행되고 당연한 것 처럼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에 대해 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회의 욕구에서가 아닌 어린이의 욕구에서 산출되고, 어른의 자유로운 책임하에 형성되는, 자유로운 교육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틀이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 때문에 교사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3년 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의문스러운 교육상황을 많이 접했는데, 이번에는 아동과 현대적인 파트너관계를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렇게 용기있고 열려있는 동료(교사)들이 있다는 인상을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 행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진심으로 열린 마음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유럽적인 경험과 교육안(발도르프교육)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였던 자세말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별로 없이 사적인 부문이나 때로는 정신적인 부문에서 지나치게 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감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람있었던 것은, 어린이들과의 기본관계에서 어른의 과제와 역할에 해당하는 교육적 행위의 인간적인 근본에 대해 이야기가 나누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상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대답을 찾아야 하는 이 끊임없는 질문은 - 내 인상에 의하면 - 참가자와 우리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평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고하신 것과 유사하게, 특별한 측면으로 나뉜 각 개개의 분반 특히 장애보육분야가 미흡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 사람이 특수보육의 상황에서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단지 부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영아반과 방과후반에서는 적게 느꼈었으나, 그래도 감정적인 평가가 언어적으로 제한되어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불안한 다리로 서 있어야 하는" 것도 문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도르프인더가르텐연합입니다.

오늘 필요할 때 이런 아침, 다른 세 걸코된 시계를 한번 본 후 아무런 시간압박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벌써 일어난 후식까지 상념에도 잠으로 오전반에 바우한 아침 바다를 보면서 수확적일 공손한 인내의 나무를 보며 '계속 여기 있고 싶다'를 지닌다. (비행사가 참가자들에게 발도르프 교육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문제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당신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양가지망(engagement)이나 교육'안'에 대한 선택에 편중해서 말하게 되어, 어린이와 교육에 대한 것이라는 당연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 후 만일 - 어떠한 관련성에 의해서라도 - 강연자가 어떠한 인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가 행사 참가자들에게 분명해야 한다면, 과제는 분명히 교육과 어린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발도르프어린이"나 "몬테소리어린이"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어린이들만이 존재하고 있지요!

당신이 쓰신 것 처럼, 다음 번 행사에 나는 질문과 토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동발달법칙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 하여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그것은 다르게 나타나며, 그 배경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초대를 통해 내가 한국의 교사들과 아주 가깝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면서, 내 자신의 경험에 새로운 빛을 받게 되었고 더욱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음의 인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Wolfgang Sasmannshausen

윤 선 영 번역



신나는(?)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윤현진 · 부산, 주감어린이집

권역별 여름연수가 마무리되어 휴~우~하며 한숨돌리던 어느날, '아참~ 이제 수련회가 남았구나!' 하며 또다시 긴장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를 상상해보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름개~아~?'.
 ~~~~~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토요일 아침, 어린이집의 오전활동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은근한 기대(?)로 펜시리 들뜨는 마음을 느끼며 피식 웃기도 해본다. (조그만 선물들과 먹을거리를 사러 다니면서는 더했지만.)

어스를 저녁무렵에는 "부산보육교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꼭 오세요!" 하고 열어 문 쉼나라(?) 한지골 수련원에서 시작된 우리들만의 시간들!!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며 시설의 깨끗함에 감복하면서 오랜만에 마주한 회원들끼리의 반가운 인사와 수다가 이어지면서 음식이 괜찮았다는 후문을 남긴 저녁시간을 접고, 느긋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다.

우선 "전통유아체조배우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몸부터 체크해보고,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궁금하게 하였던 '생태교육참가기'에 대한 얘기들을 들은후, 금방이라도 쏟아질듯한 찌푸린 하늘 때문에 담겨진 '보물찾기'를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면서는 날씨와는 무관하게 불꽃이 튀었다. 6~7명이 마음을 맞추어 지시한 바를 행하며 마음도 맞춰보고, 한밤중에 쥐며느리를 찾으라는 메모에 황당해하면서도 찾아내고, 다섯고개를 모두 넘어서면 마지막에 나올 선물때문이 아니라(?) 어둠속에서 후레쉬 너머로 반짝이는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맑음을 보게 했기에 더욱 좋았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슈타이너의 기질론'을 들으며 자신과 옆사람들의 기질을 파악하느라 이야기 저얘기로 분주하기만 하더니, 어느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또다른 모습과 이야기들로 모 개그맨의 '밤새지 마란 말이야'라는 유행어를 떠 올리게 하는 하룻밤으로 스며들어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자는 마음과 다음날을 생각하자는 양갈래 마음조각이 싸우며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그 시간, 창밖으로는 어느새 폭우성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는데

우리는 몰랐죠!! 수다떠느라고요.

22일 일요일의 이른 아침, 다른 때 같으면 시계를 한번 본 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누워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부산에 살면서도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한 아침 바다를 보면서 수채화처럼 은은히 안개낀 너머를 보며 '계속 여기 있고 싶다!'를 되뇌인다. (비 오는 바다를 보기도 쉽지 않기에.)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운위의 깔끔함을 만끽하며 숙소로 향할 수 밖에...

회의 분위기가이기를 거부하는 대부분을 위해 「전체적인 상반기 평가」를 말끔히 끝내고 나니 모두 집을 향하여 우향 앞으로!! 너무 허전했나요?

이제 성를 우리 앞으로 다가선 서늘한 날씨에 빙그레 웃음을 머금게하는 그런 하루로 기억되도록 해 준 부산보육교사회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구요, 우리 다음에도 이번처럼 어~때요?!



## 목이 쉰다 해도 한없이 불러보고 싶은 광주 전남 보육교사회, 영원하리라!

박미영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무엇때문일까?

사업에 대한 관심, 아니면 자유주의, 개인주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 그간 광주보육교사회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들이라고 해도 틀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 빠진듯하면서 허전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반기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고,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여름 연수와 기간이 겹치고 준비하는 주체 스스로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렇다고 핑개치고 도망갈 수 없는 일, 속이 착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속에서의 보육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목포지역 놀이방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수는 몇명되지 않아 조촐했다.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바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심으로 잡았던 토론회로 들어갔다. 토론회 내용은 현 보육교사회 조직의 모습을 진단해 보고 회원들과 함께 이후 조직 전망을 내오는 자리였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왔다. 한 회원은 '전문직 교사로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변혁운동의 의미로서 나의 임무와 역할이 잘 해명되지 않는 것 같다. 또 교사회가 교육운동으로만 국한되는 것 같고 회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등 교사회로의 전환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겨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지택연에서 보육교사회로 바뀌면서 처음 이런 자리를 가졌지만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진행도 잘 되었다.

이 토론회가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패배적이거나 갑갑해하며 처진 분위기는 아니었다. 함께 모여 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결론은 교사회로의 필연적인 전환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현재에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몸담고 있는 교사회 조직을 변혁운동의 의미에서 바라보면서 나서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조직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다. 또 한가지 더 말한다면 조직을 움직이는 튼튼한 활동가를 만들어내는 조직 내부 사업에 힘을 쏟아내자는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공동체 놀이로 조를 나누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고 공통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전지에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고 토론회나 공동체 놀이 때 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루 일정은 끝나갔다.

다음날에는 느지막하게 일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목포 대반동 해안가로 가서 몸으로 부대끼는 놀이를 하기로 했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헉!헉!) 여벌 옷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정을 바꿔 빠른 보트도 타고, 바다가 보이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1박 2일의 수련회는 끝이 났다.

수는 몇 명 되지 않는 조출한 자리였고, 준비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껄찬 준비를 하지 못한 수련회였지만 수련회가 끝난 지금에 되돌아보면 너무도 맘에 들고 알찬 수련회가 아니었나 싶다.

목청이 떨어진다고 해도, 목이 쉬다해도 한없이 큰 소리로 불러보고 싶은 광주 보육교사회여, 영원하라!

##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편집부

지택연 지택연에서 전국보육교사회로 삼 달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을 거쳐 가거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이어서 보육교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또 새로 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어 가실 이가 될 신심함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시가 품(?) 격려보내어 주시는 전액 다양한 후원자들이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이런 다양한 후원자들의 모습을 각지에 반짝이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이팅 미치며 우리 회원들이 그녀의 작은 애기들을 독수리처럼 반가움을 느껴보아요.



포실포실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 아담한(?) 키에 동글동글한 얼굴, 나이는 30대 후반. 아들이 둘(한백이, 한걸이), 남편이 하나(?), 서울 남부의 새터 어린이집에서 근무.

자, 이름이면 아시는 분은 아니고 아마 우리회원이 된지 얼마 안된 분은 아직도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회원은 제가 '포실포실'하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하! 그사람'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코너를 새로 시작하면서 처음 중앙 사무국 식구들한테 요즘 누구의 삶이 가장 궁금하냐고 물었더니 바로 우리회의 전 회장님이셨던 남미영 선생님을 제일 먼저 꼽더군요. 아마 2년전까지만 해도 매일 만나던 같은 중앙 식구였던 터라 그리움(?)이 컸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남미영 선생님을 만나 보지요.

◆ 처음 보육교사를 애어갔다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했어요. 83년부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어머니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삶으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로 생각이 확대되면서 여성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개인의 전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일, 결혼, 출산 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선배의 소개로 기록여민회에서 준비하는 탁아활동에 결함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새터에서 일하게 된 거지요.

◆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지요?

탁아소 준비를 시작해서 87년 3월에 새터를

개원했어요. 계속 유아와 영아를 돌보다가 95년 새터가 영아 전담시설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새터 어린이집이 95년 영아전담시설로 구청에 서류를 올렸고 그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 받고 있었는데 9시청에 서류가 올라가지 않아 98년부터 일반 어린이집으로 되있는거예요. 그간의 지원금은 구 자체에서 지원되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새터의 모든 구조는 영아를 위해 돌아가게 되어있는데 정부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조금 난감한 편이에요.

- 새터에는 안식년이 있다고 하는데...?

네, 새터는 새터 교회에서 숙한 시설이라 다른 일반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6년까지 일을 하고 나면 7년째에 안식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급이구요. 단, 유급으로 안식년을 받은 교사는 그 후 3년간 새터에서 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선생님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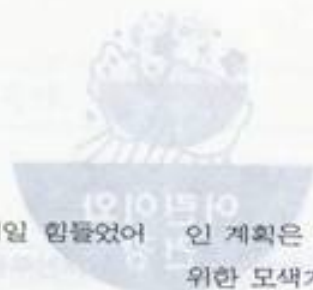
94년에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이 오기 전에 기대가 많았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이것 저것도 배우고 한백이가 아기 때 제대로 업마로서 충분히 못 해 준게 아쉬워 둘째(한결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쉬면서 돌봄이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 실수로 안식년 내내 한결이는 제 뱃속에 있었어요. 생명 탄생은 어떻게 의지대로 안되나 봐요. 그리고 그 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후 지탁연)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안식년 다문 안식년을 제대로 못 보냈죠. 그런데 어느새 안식년이 또 돌아오네요. 2001년이예요. 그때 정말 잘 보낼 거예요.

● 안국보육교사와 외장은 언제 하셨죠?

1993년부터 지탁연 부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 지탁연 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97년 7월 지탁연이 한국보육교사회로 조직전환을 하고 회장을 했어요. 지금은 보육교사회의 평생회원이자 새터 원장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보육교사회의 후원계주-보육교사회의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후원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니 후원계 많이 들어 주세요.

● 지택연 창립 멤버, 부회장, 회장,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까지 하셨으니 그야말로 걸어나나는 보육교사회의 역사이네요. 그렇게 오랫동안한 보육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고비도 제법 있었을 텐데...?

저는 원래 성격이 한가지를 하면 계속하는 타입이에요. 앞서서도 얘기 했듯이 제가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에도 제가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때는 보육교사회 회장을 할 때예요. 그 때는 저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죠. 우리 회원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 작업들은 좋았어요. 다른 지부에 관심과 애정도 높아지고 조직에 대한 끈끈한 정도 많이 생기고, 특히 회원들이 순수하고 솔직하고 서로에게 열려있어 우리 회원들과 만나는 일은 참 좋았어요. 근데 대외 연대사업을 할 때는 많이 힘들더군요. 외부에 나가 우리회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정치 사업들을 풀고 또는 일종의 협상도 해야하고... 그런 일들이 제게는 맞지 않는 일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외 사업들이 제겐 상당한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육교사회 일과 새터 일을 동시에 하다보니 두 곳 다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듯 해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  
요.

인 계획은 아니에요.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모색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실 텐데 선생님의 나이가 어 느덧 40을 바라보는 나이잖아요. 앞으로 40대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새터 원장을 후배에게 물려줄 생각이예요. 그리고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업을 하고 싶어요. 현재 구로 지역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구로의 지역적인 형편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심한 차별이 존재하고 남편의 장기간 실업, 아내 구타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영아 시설에서 근무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영아기에 부모, 특히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키우는 법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들과 교육도 하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인

◆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 후배들에게 바라는 말이 있다  
면?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늘 잊지 마세요. 또한 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약간 높은 듯한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남미영 선생님.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하다'란 코너가 돌고 돌아 다시 선생님 차례로 돌아올 때 즈음이면 선생님의 포실 포실한 머리는 조금씩 흰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도 선생님은 추억을 꺼내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크고 둥그란 눈을 빛내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요?.

## 새터 식구들이 내 놓는 남미영 선생님에 대한 칭찬 한마디

만약 어릴때 동화책이 없다면... 너무 편한가요 뭐든지 받아 들일수 있을것 같아요 - 박은이

너무 많아요. 뇌나만 끓으려면 어떤일이든 42도 침착하게 되는 모습이 좋아요. -최윤희

죽어 길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재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 김복희

뭘 얻어먹은 게 있냐 하 칭찬을 하는데.. 껌껌 원자이지만 때로는 최소아름다, 때로는 밍아름다, 때로는 보조 교사들이 것저것 가르치는 일이 없어 선생의 말은 안 듣고 하나네요. - 김지은

참 때를 알고 더 잘 배운다. - 새천년의 1인 졸업/빈곤과 자원봉사자 1인



## 어린이와 건강

### 예방 접종에 대하여

고시환 · 홍은소아과 소아과 전문의 원장

#### 1. 가을에 준비해야 할 예방접종

##### 독감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D 네 가지 항원형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유행성 질환은 주로 A와 B형에 의해 발생한다. A형은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변이를 일으키는데, 최근에는 1957년 아시아형, 1968년에 홍콩형, 1977년에 러시아형 변이가 유행하였다. 매년 변이를 일으키는 소변이는 A, B형 모두에서 일어난다. 인플루엔자 A형의 대변이는 10내지 40년 주기로 일어나며 그 중간에는 소변이로 인해 2내지 3년을 주기로 소유행이 있다. B형의 큰 유행은 대개 4내지 7년을 주기로 일어나는데, 감염은 주로 비말을 통한 호흡기이며, 잠복기는 2내지 3일이다. 증상은 A, B형 모두 유사하고, 연령과 면역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오한, 두통, 전신적 쇠약감과 근육통 및 기침 등을 보이고, 목이 아파할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린 소아에서나 면역력

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위와 같은 증상 이외에도 후두 기관지염을 일으켜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관지염, 모세 기관지염, 폐렴 및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대중 요법으로 충분하다. 만약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아이가 심한 감염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발생한 확률이 높은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증상을 빨리 없애야 할 경우, 건강한 소아에게서 증상이 심한 경우, 수험생이나 운동 선수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로 치료를 한다.

예방은 불활성화 백신을 이용하여 A형 두가지와 B형 등 3가지 성분의 항원이 이용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개 12월부터 시작되므로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하며,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 소아들에게는 일회 접종 후 4주 간격



## 어린이와 건강

으로의 2회 접종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DPT 등 소아의 기본 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사백신으로 면역 반응이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서 매년 접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 2. 새롭게 준비해야 할 예방접종

##### A형 간염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걸렸다. 최근 이 질환의 무증치대였던 청·장년층에 급성 A형 간염이 크게 늘고 있다.

경희대병원은 올들어 석달동안 단순 감기로 내원한 환자 10명이 급성 A형간염으로 판명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8~34세인 이들은 대부분 구토, 발열, 전신 쇠약감 등을 보여 의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다가 황달 증상까지 나타나자 대학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5세 이상 한국 성인은 85% 이상이 A형 간염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질환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경희대병원 김병호(소화기내과) 교수는 "지난 수년간 A형 간염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연간 3명 미만이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어린이였다"며 "최근 발병 양상은 앞으로 A형 간염이 청장년층에 크게 유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작년 1년간 3명의 A형간염 입원환자가 있었지만 올들어서는 벌써 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병원에는 96년까지만 해도 A형 간염 입원환자가 전무했으나

작년 2명이 입원했으며 올들어 그 수가 3~4배로 늘고 있다. 다른 병원에도 이들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장년층이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운(소화기내과) 교수는 "A형 간염은 주로 소아기에 비위생적인 음식·음용수 등을 통해 전염, 큰 증상 없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 뒤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된다"면서 "60년대 이후 위생상태가 크게 개선되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19세 이하의 A형간염 항체 형성률은 79년 63.8%, 89년 47.3%에서 97년 5.4%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의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A형 간염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상이 심해 황달, 식욕부진, 피로, 상복부 통증, 발열 등을 보이며, 전격성 간염으로 악화되면 약 60%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변을 통해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수·음식을 관리할

#### 3. 4내지 6세에 추가접종하여야 할 것들

##### 독티페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는 특별한 원인 없이 편도, 인두, 코에 잘 떨어지지 않는 막이 있으면서,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는 상기도 감염증이다. 파상풍은 균에 감염시 독소에 의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심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이다. 피부 등의 상처를 통해 균이



어린이와  
건강

## 어린이와 건강

침입하여 발생하고,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심한 근육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 백일해는 사람에게서만 병적인 증상을 일으키며,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어진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장아나 성인에게서는 증상이 없거나 경한 증상을 보이게 되다가 연아나 유아에게 전염될 때는 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예방접종을 함께 (PDT) 접종하게 되는데, 기초 접종은 생후 2, 4, 6개월에 3번 접종하게 되며, 생후 15-18개월에 1차 추가 접종이 있고, 생후 4내지 6세에 2차 추가 접종을 한다. 기본 접종후 디프테리아는 약 95% 정도의 면역력을 보이게 되지만, 생후 1세 이후에는 10% 3-13세에 67%, 14-23세에 83% 정도의 항체 소실을 보이게 되어 추가 접종이 요구되어 진다. 파상풍이나 백일해도 마찬가지로 기본 접종후 매우 높은 항체의 생성을 보이지만 2 세이전 부터 항체의 감소를 보이게 되기에 추가 접종이 요구되어 진다.

소아마비는 한때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발병율을 보이던 질환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5명의 환자가 보고된 이래 아직 보고된 환자는 없다. 생후 2, 4, 6개월에 기본 접종을 시행하고, 4내지 6세에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홍역은 열이 나면서 기침과 결막염, 피부에 발진들을 보인다. 이 피부 발진은 귀뒤에서 시작되어 첫 24시간내에 얼굴, 목, 팔과 몸통 상부로 퍼져나감에, 2일째에는 대퇴부, 3일째에는 발까지 퍼진 다음 발생 순서대로 색소 침착을 남기며 소실되어 진다. 볼거리는 귀 밑으

로 이하선 종창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한쪽에서 주로 시작하여 2-3일후에 반대쪽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종진은 피부에 발진과 귀 뒤, 목 뒤와 후두부의 림파선 종창과 열이나 기타 감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침기 여성에서는 주의가 요구되는데, 임신부가 종진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생후 12내지 15개월과 5에서 6세 사이에 볼거리, 종진 (MMR)과 함께 접종하는데, 홍역이 유행할 때는 생후 6개월에 홍역 백신을 접종하고, MMR을 예정대로 접종한다. 홍역을 앓고 있는 아이와 접촉했을 때는 접촉한지 2내지 3일 내에 접종하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홍역을 앓지도 않은 성인에게도 접종 가능하다.

### 무기장난감은 모두 가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지난 8월15일 "비폭력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캠페인(무기장난감을 평화상징물로 바꿔주기)"을 실시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폭력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장난감을 평화상징물로 바꾸주는 행사를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학교, 공공육아시설에서 무기장난감을 모아서 본회(여성평화의 집 4층)로 직접 가져오거나 전화를 주시면 평화상징물(요요 혹은 기타 상징물)로 교환해 드립니다.

문의처 : 2264-8649



##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 전주 금암어린이집 이야기

● 이야기 하나 - 물고기가 예뻐할때 물리는 소리는?  
5세반 아이들이 색종이로 열대어를 접어 바다속 꾸미기를 하는 시간이었다.

중호 : 애들아! 나 다 접었다

(대충 세모모양으로 접음)

중호는 완성된 물고기를 들고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반아이들이 잘했더니 한마리씩 거른다.

가영 : 우와! 멋있다. 그치

중호 : (오시대며 물고기 배 부분인곳을 잡고서 해엄치는 모습을 그린다.)

물고~ 물고~ 물고~

● 이야기 둘 - 바다가 물리들 만들어 낸대(?)

5세반 아이들과 바닷가 나들이 나간 날. 함께 수영도 하고, 미역도 즐기고 모래성을 쌓았다.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중호 : 애들아! 여기 물라다.

교사 : !!!

현 : 응, 정말 물라다.

중호 : 맞지, 물라?

현 : 선생님! 이거 물라요? 맞죠?

교사 : (중호와 현의 대화가 너무 예뻐서 그냥 대답해 줌) 응, 그렇네, 물라네

중호 : 거봐 내 말맞지? 물라지?

여기서 말하는 물라란?

바닷물이 들어올때 모래에 스며들며 생기는 바다거품을 일컫음

● 이야기 셋 - 아이는 어떻게 나오지?

월요일 아침 5세반 아이들과 주말에 지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덕룡 : 네, 네, 저는요, 엄마가요 수박 많이 먹어래요(아이 발음 그대로)

교사 :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덕룡 : 네, 그러가지고요, 배가요 똥똥해졌어요.

교사 : 저런!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듣고 있던 반아이들

가영 : 그러은 배가 터져부러요.

교사 : (놀란표정)응? 그럼 어떻게 되는데?

지민 : 배가 뻥하고 터져서 네-아가가 나와 버려요.

교사 : !!!

● 이야기 넷 - 이거 선생님(?)

4세반 준석과 수빈이가 선생님 놀이를 하다가 다함이 벌어졌다.

수빈 : 흠준석! 너가 선생님이냐?

아가 선생님이지(반 선생님을 가르키며)

● 이야기 다섯 - 감자와 단무지

반달모양으로 자른 감자를 넣어 끓인 감자국을 반에 만 4세 준석이

준석 : 선생님! 이거 단무지국이에요?

● 이야기 여섯 - 미자꾸 아줌마는 누구?

4세 동현이가 머리자른 자신을 자랑한다.

동현 : 미자꾸 아줌마가 잘라줬어

미자꾸-미장원-미용실

● 이야기 일곱 - 먹어봐요

현사반(28개월)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해슬 : 선생님 이거 먹어봐요(들고 있던 장난감을 선생님 앞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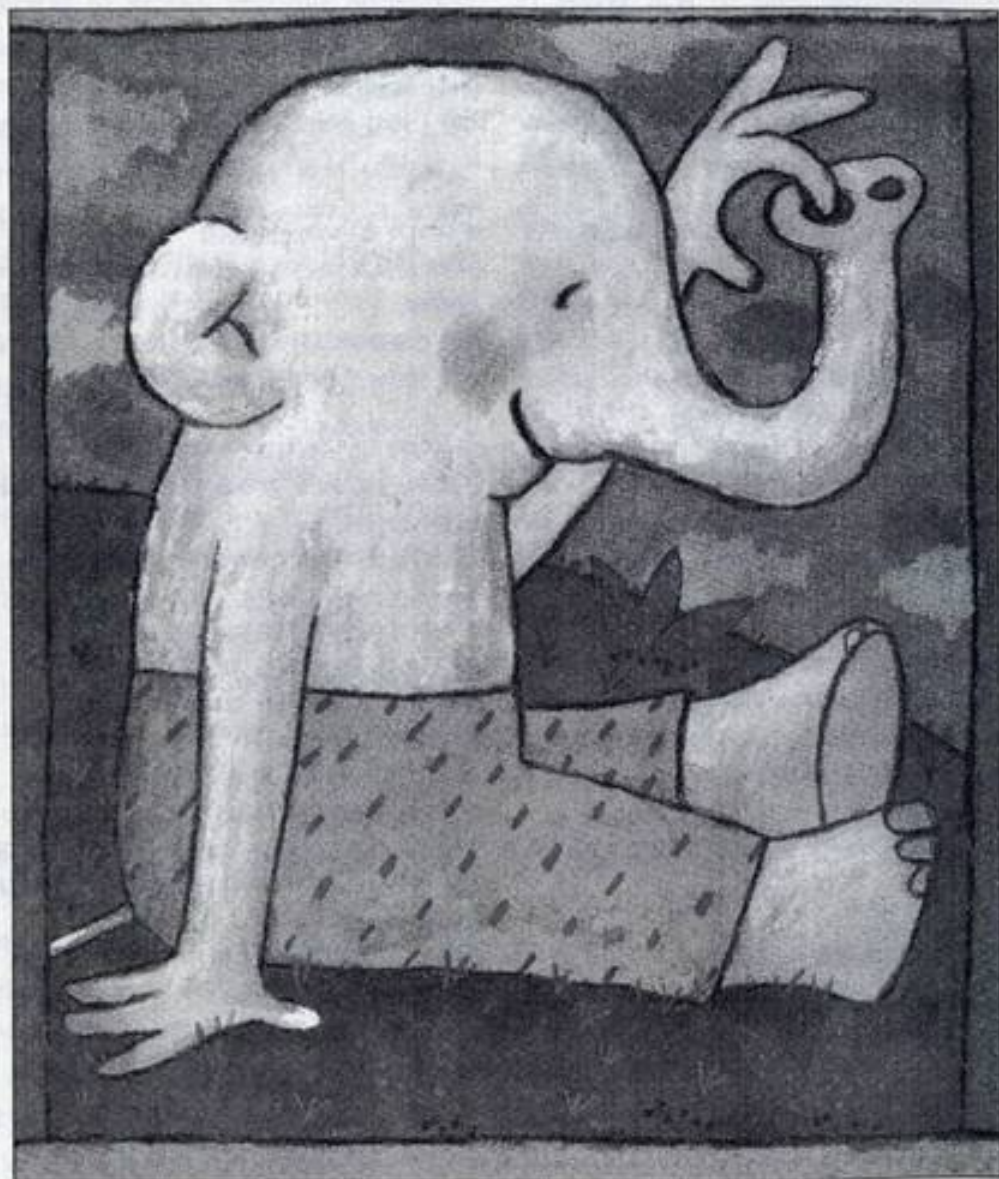
선생님 :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야?

해슬 : 벌레예요, 벌레~



## 조심! 조심! 콧구멍 후비기

다니엘라 쿨롯 푸리쉬 글 그림 / 김영자 옮김 / 안림출판사 / 7000원



김광희 · 회원

보육교사 여러분! 아이들이 콧구멍을 후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아이들은 전혀 콧구멍을 후비지 않지만 코 후비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의 경우도 3~4세 경에 콧구멍 후비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늘 엄마, 아빠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심지어 야단을 맞을 때는 이불 속에 숨어서 코를 후비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이물질(?)을 아주 맛나게 '핥핥' 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사소하고 많은 것을 금기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그림책에는 아기 코끼리와 아기 쥐들이 그리고 아기 개구리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콧구멍 후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기 개구리의 엄마는 절대로 콧구멍을 후버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속이 상한 개구리는 코끼리와 쥐들을 찾아가 정말로 코를 후버서는 안되는지를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엄마도, 쥐들의 아빠도, 코끼리의 엄마도 절대로 코를 후버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구요.

아마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할 때 말하는 이유들이기도 할 것 같

습니다. 콧구멍을 후비면 안되는 이유를 들은 이 세 친구들은 겁이 나기도 하고 어른들의 말이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진짜로 안되는지를 물어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덕위로 찾아간 아이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개구리의 할아버지도, 쥐들의 할머니도, 코끼리의 할아버지도 아주 한가하게 콧구멍을 후비고 있던 것이었어

요. 그래서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 처럼 콧구멍을 후비는 것이 그리 무서운 일도, 겁나는 일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는 "우리 이제 다시 콧구멍을 후비자!!"라고 말하면서 신나게 코를 후깁니다. 정말 재미있지요.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코를 후비면 똑같은 이유를 들어 못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가 조금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콧구멍을 후비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일나는 일일까요?

그림도 아주 재미있고 글도 적어 3세 정도의 아이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명의 친구들이 코를 후뽀했을 때 일어나는 큰 일을 생각하는 그림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혹 절대로 안되는 이 큰 일을 어른인 당신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지..하..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김지익 · 서울남부지회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30,40대 아버지들이 뭉쳤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학력도, 지방색도 그들에겐 모두 무의미합니다. 오직 아버지라는 사실만이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이미 천리안에 동호회 모임도 운영중(go father)인 이들은 단순히 쇠락해가는 부권 회복 차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내적 성숙과 완성을 꾀하려는 일종의 자기계발을 목표로 합니다. 과연 그들의 자기계발 선언은 어떤 걸까요? 잘 찾아보세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커다란 거울이 걸려있습니다. 이 거울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이 매일 한번씩 바라보며 노력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모임에 대한 소개와 하는 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12가지 방법, 활동사진들, 청소년과 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 링크 등으로 꾸며져 있죠.

특히 소개에는 모임성원들의 뚜렷한 인생관과 모임의 목표가 일관되게 나타나 있어, 내실있는 모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스스로 하숙생임을 자인한 이들이 앞으로 가꾸어나갈 가정과 이웃의 삶엔 권위 의식이 아닌 실천의지가 녹아있습니다. 관철은 아버지가 되고 싶거나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에게 언뜻 귀띔해주세요. 진짜 아버지는 이렇다고... 멋진 아빠들 파이팅!

홈페이지 주소는 <http://user.chollian.net/~fathers1>

## 세상읽기

### 아쉬웠던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잔 건네보자

주혜민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교사

든 눈으로 밤을 샜다.

상구와 함께 씩씩이를 출퇴근 하다보면 아이 재우다 먼저 잠들기 일쑤인 내가 오늘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침이 심한 이유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보다는 '관계'라는 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을 포기하고 녹차 한 잔 타서 작은 방으로 옮겨가 노트를 꺼들었다. 한 두줄 쓰다보니 남편이 와 왜그러냐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본다. 그러더니 옆에 주지 않는게 아니냐. 모처럼만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글 한 줄 쓰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유부녀의 비애인가 싶어 다시 이불 속으로 누웠지만 이내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침 일찍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씩씩이로 출근했다.

우리의 곁에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씨줄과 날줄로 관계라는 그물망이 드리워져있다. 그 관계는 너무 관대해서 낱알의 인격과는 거리가 멀게 그물망 사이로 자유로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옥죄어 올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러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옥죄어 오는 관계의 피곤함은 이렇게 잠 못 이루게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보니 그 관계는 참으로 단순하고 때론 유치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비장의 노하우를 갖게된다. 그 노하우라는 게 뭐집어 보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다 보니 잠이 안오는 게 당연지사다. 관계라는 것이 극단의 감정으로 조화롭게 잘 짜여진 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것이다.

어느새 우리의 곁에는 인스턴트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자극적이고 단번에 현혹할 수 있는 말로 관계를 맺고 애정이라는 귀찮은 존재엔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 매끄러운 관계에 걸리적거리는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인스턴트 관계엔 이 모든 것이 삭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적당히 기분 좋은 관계일 뿐이다.

알맞게 반응을 베풀고 적당히 기분 조절해서  
 낮 밝히는 일이 없게 만드는 관계 말이다. 보  
 기엔 참 좋다. 들여다 보면 거기엔 자신의 것  
 은 잃지 않고 공공의 일엔 무관심해질 수 있  
 는 독이 들어 있다.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관  
 계마저도 지배하고 만 것이다. 어느덧 내게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만의 노하  
 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에 미  
 치다보니 진정 사람이 그리워 진다. 상처투성  
 이로 보기 흉해진 물골이라도 따스하게 안아  
 줄 그런 사람 말이다. 기분 좋은 미소로 상대  
 의 상처를 즐기면서-악몽에서 연고하나 꺼내  
 상처 부위에 착하니 발라주는 그런 사람 말고  
 깊은 사랑의 씨줄을 드리울 줄 아는 그런 사  
 람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내게서 상실되어  
 가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때문일 게다.  
 아직 내게 그런 힘이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  
 친구때문일 것이다.

자주 아주 자주 잊어버리는 그 관계라는 것-  
 남은 사진첩을 뒤지다 잊혀진 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듯이 오늘 새벽 가슴위로 떨어  
 졌다. 무척이나 힘들었던 시절 오랫동안 말없  
 이 지켜보아주었던 그리고 함께 울어주었던  
 그 친구의 소중한 마음이 새삼스레 이 새벽에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찬 공기를 뒤집  
 어쓰고 길가에 병자처럼 앉아있던 나의 참백  
 한 영혼에 따스한 차 한잔을 건네주던 그 친  
 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라'고 외치는 듯 하  
 다. 상실감이 클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법.  
 이제 제법 쌀쌀한 새벽바람이 부는 계절에 소  
 중한 관계 하나 만들어보자. 아니면 추억의 사  
 진 한 장처럼 아쉬웠던 사람을 찾아 따뜻한  
 커피 한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공동의 목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보육시

설에서 작게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간의 관계 속에서 자칫 잊혀지기 쉽  
 고 변질되기 쉬운 '관계'라는 그물망을 다시  
 한번 짚보는 것은 어떨까. 밥새 잠 못 이루게  
 했던 찢그러운 관계들을 처음의 시간으로 되  
 돌려볼까 한다. 그리고 진정 마음담은 씨줄을  
 건네보아야겠다. 늘 우리곁을 떠나지 않는 관  
 계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빛이 누군가에게 힘  
 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적당한 관계유지를 노하우로 여기는 조작된  
 그물망을 뚫어버리고 유행가 가사처럼 전화카  
 드 한 장 건네보자.

...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자녀 성교육지침서 무료 배포**

내일 여성 센터 및 구성에 아우성 상담  
 소에서는 9월부터 저소득층 공부방 및 어  
 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녀성교육 지침서를  
 제작,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공부방, 어린이집 성교육 모  
 임'을 진행, 시설에 무료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침서와 성교육이 필요한 시  
 설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문의처 : 338-7480  
 담당자 : 이재경(019-386-4647)

**목 소 리**

아래의 글은 부산보육교사회의 7.6월을 소식으로 실린 글입니다. 보육교사로서 누구나 한번쯤은 이야기  
 되 비슷한 아이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교사인 나  
 조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기 만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  
 에 대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소개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이야기 하나**

김 명 선

“는 내가 몇 달 동안 몸담았던 복지관 어린  
 이집에서 만난 6살 남자아이다. 그 아이에 대  
 한 최초의 정보는 밥을 무척 많이 먹는다는  
 핀잔의 소리였다.

체구는 작는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  
 는 데까지, 있는 데까지 계속 먹어댄다고.

방과후 반에서 일하는 지라 어린이집 아이  
 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살펴볼 형편은 되지 않  
 지만 어린이집 점심식사 뒷정리를 도와주곤  
 할 때 나는 가끔 그 아이가 남긴 음식을 모으  
 는 찌꺼기통에 붙어서서 무언가를 집어 먹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란 일도 있었다. 또 한가지  
 더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이가 아이답지 않다  
 는 것이다. 눈치와 행동이 너무 재빠르고 어른  
 (선생님)들의 비위를 맞추려하는 게 도무지  
 아이같지 않다고 한다. 그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아이의 눈빛과 행동은 앞뒤 생각없이 순간  
 순간을 살아가는 멍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어른의 눈밖에 나지  
 않는지를 이미 알아버린 애늬은이처럼 눈치가  
 재빨랐다.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얼핏 든 생각은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행  
 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만 하는, 어떤 까닭이  
 아이와 환경속에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스  
 쳤지만 깊은 고민거리는 되지 못했고 그리고  
 는 잊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의 귀를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시퍼렇게 멍자국이 나 부풀어 있었다. 반 선생  
 님께 물었더니 가끔 멍이 잘 생겨서 온단다.  
 아이는 놀다가 넘어졌다고 말한다. 넘어져 다  
 친 상처가 아닌게 분명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후부터 자연히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  
 게 되는데 계속 새로운 멍과 상처자국을 보게  
 되었다. 어떤 날엔 얼굴에 멍이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입술이 터져서 오고.

입술이 터져서 온 날 반 선생님이 내게로 데

려와서는 함께 이야기를 했다.

어쩌다 다쳤다고 물었더니 역시 처음엔 놀다가 넘어져 다쳤노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놀다가 다친 건 아닌 것같은데 무슨 일인지 선생님이 알고 싶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때려서 그렇다고 힘들게 말한다. 이유는 아이가 얼마 만에 행동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동안의 상처도 다 그렇다.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가 눈치 빠르게 굴며 아이답지않게 어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이유들이 분명해졌다.

어린이집에선 눈치 빠른 행동이 문제였던 그 아이는 집에서 행동이 재빠르지 못하다고 매를 맞고 있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는 생활의 고달픔과 세상살이에 지든 힘겨움을 아이에게 스트레스 풀듯이 화풀이를 한 것일 거다.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를 보면 계모, 계부보다 오히려 친모, 친부 즉 피붙이로부터 더 가혹하고 잦은 학대를 겪는다고 한다. 내것이 라는, 나에게 속한 이유라는 소유관 때문일 것이다. 내 새끼 내맘대로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고 소유물로 여기게 될 때 소유의 범위는 어른의 마음과 감정대로 막가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가 혼내며 마구 때릴 때 넌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빈다. 엄마가 때릴 때 정말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지? 했더니 아이는 "엄마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하며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낸다.

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나도 눈물이 흐른다. 제마음대로 상처를 주는 어른인 것이 무섭고 부끄러워 눈물이 흐른다.

그날 그림그리기를 하는데 아이는 종이 한 쪽 귀퉁이에다 조각난 해를 그린다. 그리고는 짙은 파란색으로 칠한다. 집을 그렸는데 지붕이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그 아이의 상처난 마음은 해를 온전 모습 그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그 조각난 해조차 파랗고 차갑게 세상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붕을 날려 보내고 싶은 아이. 어쩌면 그 아이가 집에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건 아닐까?

그 후 며칠만에 복지관을 그만두게 되었고 난 그 아이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원 뿐이다. 어서 빨리 그 아이의 그림속에서 크고 둥그런 해가 환히 솟아 올랐으면, 또 그 아이가 그린 집도 지붕이 날아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을 덮어주고 있기를 바란다.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아이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텐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여  
행  
기

## 아! 지리산, 그곳에 가고 싶다.

장영신 · 서울 북부지회,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

나는 산을 좋아하지 않는다. 평만 보며 힘들게 올라가서 "아~호"한 번 외치고 되돌아 오는 것 보단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올해는 산에 한 번 꼭 가야한다는 의무감(?)에 불부터 산엘 가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떠들었다.(왜 그랬는지 몰라~알 수가 없어!)

지리산.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는가? 용감하게도 나는 동네 뒷산과 동산을 재쳐두고 기리산을 선택했다. 나의 무모한 선택은 어쩌면 힘들고 험하다는 지리산에 나도 가봤다라는 우쭐함을 갖고 싶어 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의 무대포 정신으로 무고한(?) 언니, 오빠들과의 지리산 등정은 시작되었다.

7월 26일 월요일 이른 새벽.

남원역에 도착. 백무동으로 가는 버스는 한 시간 반 뒤에야 있었다. 역 대합실엔 산에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잠깐 잠을 청하는 사람, 그리고 모기가 웅~웅~ 날라 다니며 헌혈을 강요하고 있었다. 택시 아저씨가 백무동 입구까지 삼만원에 가지며 꼬시면서 지금 가야 입장료를 내지 않는단다. 그러나 라면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우리는 편히 갈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랐다.

8시 30분, 드디어 시작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내 몸은 땀으로 목욕을 하고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 순간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길이 아나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탈진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쥐가 나고(그 때 다리를 풀어준 장터목 직원 아저씨께 고마움을 전한다), 비를 맞으며 힘들게 힘들게 산장에 도착했는데... 태풍이 오고 있으니 내려가란다. 그러나 나와 언니, 오빠들은 산장에서 하루 묵기로 결정했다. 강한 비바람



으로 1미터를 내다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 열심히 사진도 찍고, 으샤 으샤 놀고...

7월27일 화요일 강한 비바람으로 날아갈 것 같음

"태풍 올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백무동이나 중산리쪽으로 속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천왕봉 등반은 무산되었다. 계곡물이 불어나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아침을 먹고 9시 하산을 시작. 백무동 길이 막혀 중산리쪽으로 내려가야 했다. 중산리는 직코스라 빠르긴 하지만 계곡을 끼고 가는 길이어서 위험하고 험했다. 불어난 계곡물은 폭포를 방불케 했고,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 또 사진을 활짝!!

3시간 남짓 잠깐의 휴식도 없이 걷고 또 걷고, 안전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짧은 여정이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산에 오르면서도 주위 한 번 둘러보지 못하고 땀만 보며 걸었다. 하지만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피부와 마음으로 느껴지는 전율, 그리고 웅장함, 가슴벅참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이번 등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 산에 오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의 한 마디, 힘들지만 남을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습 등... 메달라 갈라진 척박한 땅에 비를 뿌린 듯 모든 것을 기름지게 하고 나의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김정은 · 서울 남부, 새터 어린이집

**올** 장마는 굉장치도 않았다. 태풍도 동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장대비 속에서 우리 일행은 밤늦게 온양에 도착해 비가 새는 집에서 하루를 뜬 눈으로 새벽녘에 외암리에 도착했다. 장마라 안개가 자욱한 건지 잠이 덜 깬 내 눈이 부연 것인지 잘 몰라도 마을 어귀가 비구름으로 부연 느낌이었다.

눈 앞에 보이는 초가집 둥근 지붕을 목표로 외암리 골목에 들어섰다. 어귀에 세워진 안내문

은 건성으로 읽고(기억나지 않음) 다짜고짜 들어선 골목에는 오래된 물담들이 기다렸고 담쟁이 덩굴과 파란 이끼 그 위로 걸쳐진 호박 넝쿨 등 이름 모를 풀들이 불어 있었다. "넵 이쁘다"는 탄성과 함께 사진기를 들여다 대고 "담을 찍어라! 처음 보는 호두나무를 찍어라!"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까진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상황 판단을 못했던 것이다. 온통 우리 것이지만 신기한 것들 뿐이었고 맛맛하고 말쑥한 다른 민속촌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 뿐이었다. 한참 골목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 문간방에 문 열어놓고 자는 머슴네들이 보인다. 뜨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것이다. 우리는 장마에 장대비 맞으며 구경할 것 찾아 기웃대는 불청객, 그 동네 사람들 말을 빌리면 "귀신들"인 것이다. 그때만 해도 상황판단이 잘 서지 않았고 그들 외에 만났던 동네 사람들은 없었다.

새로 잘 지어진 빈 집에 걸터 앉아 제비집도 보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보면서 아주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퍼부어대는데도 여기 저기 구경하기(남의 집 기웃거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누군가가 "연엽주 판매하는 곳이 이 집인가?"하면서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듯한 큰 소울대문을 두 개 지나 집안으로 속 들어갔고 "술?"이라는 소리에 일행은 덩달아 줄줄이 뛰어들었다. 정력에 좋다는 술도 구입하고 구입하는 덩으로 복도 축여보려는 속셈이었는데 마음씨 좋게 생긴 주인 아줌마와 태풍 오는데 여자들이 비맞고 다니냐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잘 생기신 주인 아저씨 때문에 그 집에 아주 주저앉게 되었다.

행랑채(옛날 머슴들이 자던 방)에 짐을 풀고 멀지 않은 온양온천에 몸풀러 나갔다. 온천물로 1시간정도 피로를 풀고 다시 외암리로 도착한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다.

그렇게 무심히 서너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무서운 태풍은 외암리를 흔들어 놓고 달아났다. 저녁무렵 외암리는 전기불 없는 100년전 마을로 변해 있었고 어둠에 적응 못하는 도시 처자들은 마을 입구 가게에서 촛불 두 개 달랑 사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줄로 쭉 서서 민박집을 찾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리번 두리번 살금살금 살피면서 걸었다. 그렇게 예뻐 보였던 물담길은 시커멓게 웅크리고 앉았고, 발밑에 수 없이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호두나무 열매가 질퍽거리며 밟혔다. 뿐만 아니라 골목마다 집집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지가 꺾이거나 뿌리가 뽑혀 갈 길을 막고 있었다. 더욱 걸음은 빨라지고 민박집은 안보이고 마음을 졸이며 종종 걸음치는데 갑자기 눈앞에 허옇고 둥근 연자방아가 꺾여진 감나무 사이에서 벌떡 서있으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뒤로 돌아 줄행랑치는데 한줄로 서서 훑아오던 일행들은 놀란 내모습에 더 자지러져 소릴지르며 내 뒤를 쫓아서 줄행랑쳤다. 겨우겨우 민박집을 찾아 행랑채 문 쪽으로 가니 흠뻑이 부서져 내리고 마당에 그리 예쁘던 꽃밭도 온통 엉켜있는 흥한 물골이로, 그나마 마련한 촛불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희망이었다. 그뻐 정말 그랬다.

칠흠같은 어둠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도 태풍이 장마 굴, 때를 다 물고 갔는지 밤하늘은 별이 쏟아지고 별 받으려 도시 처자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무튼 그렇게 무섭고 캄캄했던 외암리에 하룻밤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아침을 선사했다.

투명하리만치 파란 하늘과 흰구름,

하늘구름 모두 받아 안은 완만하고 유연하게 흰 기와지붕.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으로 흔들리는 풍경소리...

이젠 장마가 끝이라며 이른 아침부터 100년 넘은 오동나무에 매미가 울고 있었다. 나무결이 살아 있는 행랑채 건너편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눈을 지긋이 감고 옛여인들의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며 분주히 마당을 쓸고 소 여물먹이며 일하는 머슴들의 숨소리를 느껴본다.

일행들이 아침일찍 일어나 서로 느낀 점들을 두서없이 종이에 남기고 차 한잔 마시고 있을 때 칠흠같은 어둠에도 촛불없이 오가시던 주인 아저씨를 만나 답소를 하게 되었고, 민박했던 집이 관서를 지내시던 집이며 13대째 이집을 지키고 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암리에 살립집은 원래 마을을 형성하면서 100여가구의 고을이었었는데, 지금은 80여 가구이며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곳에도 뻗어 몇몇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저씨와 이야기 하면서 옛선인들의 지혜와 우주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들었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버지게, 아버지께 교육받아왔는지 실감나게 듣게 되었다. 이런 마을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라는 느낌과 진정한 우리 것에 대한 편안함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디에 가든 기본적 예의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는 뼈있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처음에 말했던 지나가던 귀신들(외지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만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대며, 자기를 사진 속에 모델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말 뜨끔했다. 우리 일행도 우리 기본대로 사진기 들이대며 남의 집에 불쑥 들어 섰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버릇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방명록을 내놓으시더니 집에 방문한 일만명 이름으로 병풍을 만들어 하신다며 이름을 쓰라고 하시더니 이름풀이까지 덧붙이셨다.

아저씨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호의를 우리 일행 귀신들에게 베푸셨을까?

이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속심을 드러내셨다.

관서택 14대 자손이 3명있는데 31살, 28살, 25살 이란다.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아가씨가 없어서 고민이시란다. 일행 중 처녀들이 환호를 하며 반기고, 내가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안되냐고 되물었더니 여자는 27살, 26살, 23살로 이미 연령 제한을 두고 계셨고 성씨로는 5대 성(김, 이, 박, 최, 정)인 아가씨를 원하신다는 까다로운 주문을 하셨다. 우리는 그집 아들들을 유심히 보았다. 모두들 잘 생겼고 건강해 보였다. 무형문화재 연업주 만드는 법도 전수해 주고 귀하게 며느리로 맞아 잘 살 수 있도록 해줄테니 아가씨만 소개시켜 달라며 쫓아다니신다.

보육교사 중 아름다운 외암리 며느리가 될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바란다.(단, 위의 단서 조항에 맞을 때만 연락 바람! 선착순)

아무튼 올라대시는 관서택 13대손 어른을 뒤편 하고 우리는 다시 1999년 복잡한 현실로 오는 타임머신을 타야 했다. 정말 우리는 1999년 장마 어느날, 타임머신타고 100전에 다녀왔다.

## 더불어 사는 사회의 첫걸음 - 통합보육

김영명 · 인천, 종달새어린이집 원장

**독**

일에서는 일찌기 1938년에 특수학교취학의무제도가 마련되었고, 1960년에 특수학교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1973년 서울교육심의회에서는 "장애자의 사회통합은 민주국가의 긴급과제이며,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실천과제"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독일 사회에서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체계는 폭넓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특수교육 체계가 장애자를 한 곳에 몰아놓아 결과적으로 장애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일어났으며, 장애자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정상인들과 어울려살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1986, MBC방영:세계의 교육-라인강변의 합창).

특수학교 제도가 정비된 이래 장애아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에 보내도록 되어있었는데 1980년대부터 서서히 통합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중

반만 해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통합보육시설은 1997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곳 중 시립킨더가르텐은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킨더라덴은 장애아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나 킨더라덴에 다니고 있는 한 아이의 집에서 위탁양육을 하고 있던 장애아동은 다른 통합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독일에서 통합보육을 받는 장애아들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을 근거로 신중하게 입학시키고 있다. 심한 뇌성마비나 정박아, 자폐아들은 특별히 격리치료를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지만 같은 뇌성마비나 정박아 또는 자폐아라 할지라도

정상 아동과 충분히 함께 살 수 있는 아이들은 통합보육을 하고 있다.

시립킨더가르텐의 통합보육은 2년 전부터 실시되었는데 영아부터 방과후반까지 총 9개 그룹 중



1개 그룹이 통합반이었다. 다른 유아반들이 교사 1명에 15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통합반(Integration Group)은 교사 2명과 16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장애아(handicap)를 가진 아동, 그리고 유치원 연령의 아이가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16명 중 5명이 핸디캡을 가진 아이로 분류되었다. 통합반에 속해있는 정상 아동의 경우 부모가 원하거나 동의를 하는 경우에 통합반으로 편성된다. 핸디캡을 가진 아동들은 지능이 낮으면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 지능은 정상이지만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공격성이 강한 아동 등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으나 정상 아동과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이었다. 중증장애아를 통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신체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통합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나 신체장애가 극심한 경우에는 별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는 통합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를 하지만 부모가 집에서 옷입기, 신발신기 등을 도와야 해주는 데 비해 이곳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한다.

통합반을 맡고 있는 교사 중 나이가 많은 교사는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며, 이곳에서 6년간 일했다고 한다. 젊은 교사는 자신이 실습을 했던 보육시설이 통합보육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통합반을 맡게 되었다고 하며, 장애아들은 발달이 더디고 나아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발전이 보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껴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통합반의 교사들은 심리치료사의 권유로 2년간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으며, 그외에도 헬렌켈러 학교, 클라라 군발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한 학기의 교육비용은 1500마르크(약 83만원 정도)였으며, 교육비는 개인이 냈고 주말이나 금요일에 학교에 나갔다고 한다. 통합반 교사들은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내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노력하였다. 고맙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통합반 교사는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다른 정상 아동들의 부모가 중요하다고 한다. 교사가 통합보육을 실시할 의사(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상아동의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부모들이 킨더가르텐에 들렀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귀여워해주고, 수용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한다. 통합반 교사는 그것이 통합보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사들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구별(differentiation)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장애를 가진 여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책을 가위로 오렸을 때 교사는 혼을 냈으며, 공격성이 심한 그 아이가 컵을 집어던졌을 때도 혼을 내주었다. 여자 아이는 구멍을 들은 뒤에 기가 죽어 침울한 상태로 앉아 있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기도 했다. 또 장애 아동이 교사와 함께 고리던지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나갈 때는 교사가 아이를 끌어다 놓고 끝까지 하게 했다. 이 여자 아이는 이곳에 2년 정도 다녔으며, 처음에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굉장히 공격적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교사들은 장애아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바꾸는 것 없이 혼을 낸다. 공격성이 강한 이 여아와 같은 경우 잘못을 자주 저지르므로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장애아들도 정상아와 구별없이 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통합반에는 몬테소리 교구를 많이 비치해 놓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였다. 교사가 아이들과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혼자서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일반 그룹인 마리온의 반에도 몇 가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로 활용하였다. 몬테소리 교구에는 구슬을 체에 거르는 것(모래속에 구슬이 들어있는 것을 체에 거르면 모래는 빠지고 색깔이 있는 구슬만 남는다), 물이나 모래 옮겨 놓기(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에다 퍼담는다), 나무 모양을 크기와 길이의 순서대로 차례로 끼우는 것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며, 가끔씩 아이들이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몬테소리 교육이 본래 장애아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데서 몬테소리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반에는 몬테소리 교구 이외에도 다양한 교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 니키티ن 머티리얼(Nikitin Material)이라는 교구도 자주 이용하였다. 니키티는 러시아 부부인데 그들은 10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인지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구를 만들었다. 니키티

머티리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시립 킨더가르텐에서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도형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색깔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정육면체의 나무로 모양을 맞추어 보는 활동을 아이들이 자주 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칠교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반에서는 집단활동, 개별활동을 다른 그룹보다 많이 하는데, 교사는 몬테소리 교구나 다른 교구를 가지고 개별 아동과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그룹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림그리거나 만들기 활동 등 하기도 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대집단 활동으로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과 매주 금요일에 방문하는 심리치료사(Therapist)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통합반에서는 아침마다 그룹 아이들 전체가 빙 둘러 앉아 모닝타임(morning time)이라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모닝타임을 시작할 때면 언제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날씨가 쓰인 종이를 뜯고, 날씨가 쓰인 자석판을 칠판에 붙인다. 날씨에 대한 활동을 한 후에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나 주말에 있었던 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이름을 돌아가면서 불러보는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하고, 교사의 기타 소리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모닝타임은 이 반에서만 하며 다른 반에서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은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을 표현한다. 정상아들의 이야기가 핸디캡을 가진 아동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

라고 생각되었다. 금요일 마다 방문하는 심리 치료사가 진행하는 사일런스 타임(silence time)을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소개하겠다.

사일런스 타임에는 아이들과 교사, 심리치료사가 동글게 둘러앉아 조용히 한 후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공격성이 강한 여자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았다. 처음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용했다는 비가 내리게 하는 긴 나무통을 느끼에 따라 바로 들었다 거꾸로 들었다를 반복한다. 나무통은 마라카스와 유사한 기구로 잔잔한 느낌의 소리가 난다. 한 아이가 이런 활동을 두 세 번 반복한 후에 옆에 있는 아이에게 나무통을 쥐서 모든 아동이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면서 쇠구슬이 들어있는 동글고 넓죽한 판을 비스듬히 들고 둘러보면서 소리를 내는 활동을 한다. 조용한 가운데 잔잔한 파도와 같은 음악이 흐르고, 모래와 같은 소리가 나는 쇠구슬판을 조심스럽게 흔드는 것을 해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하면서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둘러앉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길러보는 것은 마치 명상의 시간과 같았다. 아이가 너무 산만한 경우에 또는 그를 전체의 활동이 너무 정신없이 번잡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될 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아이스크림과 쿼스를 먹었는데, 교사는 아이들이 먹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었고, 아이들은 먹으면서도 조용하게 책 읽는 것을 들었다. 발달이 더디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게 집중을 시키면서 의도적인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였다.

킨더라텐(놀이방 규모의 보육시설로 부모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장애 아동은 없었다. 단지 킨더라텐에 다니고 있는 요세핀의 집에 살고있는 제시카가 놀러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제시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라 아이들을 볼볼 수가 없어서 요세핀네 집에서 위탁양육을 받고 있었다. 제시카는 4살이고 요세핀네 집에서 2년 간 지내왔다. 제시카의 형제는 4명인데 4 모두 다른 사람들이 키우고 있다고 한다. 제시카는 엄마가 임신중에 알코올을 먹어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정상 아동보다 뇌가 약간 작으며, 활동하는데도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 제시카도 낮에는 원아 150명 가량 되는 킨더가르텐에서 통합보육을 받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경우에 부모가 알코올을 중단하면 다시 집으로 가지만 제시카의 경우는 어머니가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요세핀의 집에서 살거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요세핀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요세핀의 어머니가 교육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위탁 양육을 하기가 더 수월하며, 양육비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요세핀네 집에는 딸이 셋 있는데 가운데 딸인 요세핀만 친 딸이고 둘은 입양했다고 한다. 통합보육이 쉽지 않듯이 가정에서의 통합양육 또한 쉽지 않은 것이다. 주변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고만 하면 땅값이 떨어진다느니, 자신의



## 사립학교별 회의의협사도 10월호

아이들이 장애자의 흉내를 내게될까봐 걱정이 라느니 하면서 반대하는 한국의 실정을 생각할 때 장애아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고, 또 내 아이와 함께 키우고 있는 그들의 편견없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정신이 귀중하게 생각되었다. 어쩌면 독일사회에서 통합보육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가정에서의 통합양육이 밑거름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독일의 건물에는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턱이나 계단을 없앤 건물이 많으며 지하철에는 장애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에는 장애자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 시설의 계단에는 휠체어를 실을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기도 한데 이 모든 것은 건축법이나 시행령지침에 의해 밀착되고 있다. 장애자 전용시설을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장애자 전용 주차시설에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주차를 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장애자 감각개발을 위한 특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장애자들이 불편없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진 독일 사회지만 장애아 통합보육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며 통합보육이 자리를 잡게되기까지는 통합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고귀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통합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통합보육은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모든 보육인들의 공통된 과제로 우리 앞에 남아 있다. 한 가더라도 더 알려주려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열의를 갖고 설명해주면 시립 킨더가르텐 교사와의 일정과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 공동육아 교사협의를 발족하면서

자신 각 공동육아보육교사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지니는 세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 할 공동육아교사 협의회의 발족을 축하드리며 한국보육교사회와 공동육아교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박연숙 · 공동육아교사협의회 회장

공동육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그 동안 과중한 일상과 지역적인 거리감, 교사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교사들이 주체로 서기 위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여는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조합과 교사회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고정화되지 않는 사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육아 공동체를 실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며 나아가려 합니다.

교사협의회에서 잡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육아의 자연친화, 장애, 성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교육, 생활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지향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주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원한다.
2. 아동의 인권 보장 및 바람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공동육아조합과 연대한다.
3. 지역 사회에서 교육 주체로 활동하며 지역주민, 지역 아이들, 지역의 교육운동 단체와 연대 활동 하므로써 교육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4. 공동육아 교사의 복지, 재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교육활동가로서 전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위의 사업 중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사협의회 구성원들의 연구분과 활동 자리 잡기입니다. 교사가 원하는 분과에서 활동하면서 교사들간의 교류와 그간 교사들이 배워보고 싶었던 활동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사협의회 발족이 형식적인 발족이 되지 않고 이 조직의 발족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새롭게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를 희망해 봅니다. 특히 교사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한국 보육교사회의 긴 역사 속에서 겪은 성과, 시행착오 등을 많이 참조하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이 됩니다!



## 연극놀이

안정애 ·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 연구위원

### 연극놀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연극적인 활동은 아마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의 발표회와 같은 자리에서 일 것이다. 대개의 발표회에서는 예쁜 옷들과 분장 등으로 치장했다하더라도 공연 당일에 아이들은 무척 경직되어 있고 실수를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다. 게다가 발표를 위한 준비과정은 어떠한가. 해야 할 말들과 해야 할 움직임을 교사가 지정해 주고 틀릴 경우에는 혼이 나기도 한다. 발표를 준비하는 어린이에게 자발적으로 생겨난 재미는 사라져 버렸거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발표회인가. 외분스럽게 된다.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회, 아이들의 재롱잔치로 만들어 버리는 발표회라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연극이라는 예술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냥 달아놓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연극 교육의 방법론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듯 하지만 실상 이미 아이들이 몸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아이들 안에 내재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연극놀이이다.

### 연극과 연극놀이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연극과 연극놀이는 다르다. 연극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가?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갖춰 입은 배우들, 무대 위에 세워진 크고 작은 무대장치들, 그들을 비춰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조명과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있다. 물론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즉 관객을 빼놓고 연극을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적인 공연은 보는 이에게 연극이라는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공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혹은 일반인들이 연극을 보는 것 말고 직접 해볼 수는 없는 걸까? 앞서 언급했듯이 연극놀이는 바로 어린이에게 그리고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연극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연극이 관객 앞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한다면, 연극놀이는 공연을 만들어 보여



## 공동육아 교사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 목적이 있다. 즉 '과정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극놀이는 정해진 대본이 있어 대사를 암기해야 하거나,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참여자들의 '즉흥'이 발휘된다. 연극놀이에서는 '즉흥'을 통해 행해진 드라마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비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평가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배우나 연출가가 아닌 '놀이하는 사람(player)', 관객이 아니라 '관찰자(observer)'가 있게 된다. 즉 한 사람의 참여자는 연극놀이 안에서 '놀이하는 사람'이자 '관찰자'이자 '평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과정 안에서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극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가르친다기보다는 참여자들을 안내하는 사람이기에 이끔이(leader)라고도 부르는데, 참여자들이 연극놀이라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도록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이끔이는 대상의 연령과 발달상태에 맞게 그리고 원하는 교육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연극놀이의 프로그램은 분위기를 고조시켜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도록 돕는 위밍업과 그날 그날의 목표에 맞게 본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다음은 실제로 행해졌던 연극놀이 프로그램의 예이다.

서대문 문화의 집 연극놀이 교실 2기 1999년 4월 15일(2주차)

유아반 10명 오후 2:30-3:30 감사 : 한정혜, 임미경

실제 프로그램의 기록

- 제목: 흉내쟁이 호랑이
- 목표: 다양한 움직임과 몸짓표현을 시도해보고 이를 모방해 본다

## 1. 위밍업: 거울놀이

도입 - 내가 울면 따라 울고 내가 웃으면 따라 웃는 게 뭐까요?  
수수께끼를 하듯 거울이라는 대답을 얻어내고 '거울놀이'를 해보기로 한다.

방법 - 한 사람이 앞에 서고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 선다. 앞에 서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울'이 되어 거울을 보는 사람이 하는 모든 동작을 따라한다. 번갈아 해보도록 바꿔준다.

도움말 - 자, 어떻게 하면 정말 거울같이 보일까요?

(아이들: 천천히 해야지 따라하기 쉬워요! 잘 봐야 돼요!)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이 이번엔 '거울보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누가 제일 잘 따라했나요?(방금 거울을 보는 사람을 했던 아이에게 고르게 한다)

\* 소연이는 따라하는 거울을 할 때는 잘 안하려고 들고 소극적으로 행동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조금씩 움직이고 그것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즐겼다. 초등 학생들이라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유아는 개별적인 것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그룹으로 하는 방식을 택했다.

흉내쟁이 호랑이  
호랑이가 어느 날 숲 속에 앉아 뭐하고 놀까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심심했던 호랑이는 친구들이 나타나면 그대로 따라해서 골려주는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때 토끼가 나타나 호랑이는 다음과 같이 토끼를 따라하였다.

토끼: 안녕, 호랑아!

호랑이: 안녕, 호랑아!

토끼: 내가 왜 호랑이야? 토끼지!

호랑이: 내가 왜 호랑이야? 토끼지!

토끼: 너 왜 나 따라해?

호랑이: 너 왜 나 따라해?

토끼: 따라하지마!

호랑이: 따라하지마!

토끼: 암암, 우리 엄마한테 이를거야. (울면서 퇴장한다)

호랑이: 우하하하 재미있다. 또 누구를 놀려줄까?

## 2. &lt;흉내쟁이 호랑이&gt; 이야기 극화하기(배설자 연출)

(1) 흉내쟁이 호랑이(따라하기)  
이끔이가 해설자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끔이가 호랑이 역할을 맡아 앞부분을 연기한다. 다시 해설자로 돌아와 "그 때 멀리서 토끼가 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모두 호랑이예요. 토끼가 오면 토끼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라고 말한 뒤, 호랑이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 보조 교사가 토끼가 되어 등장하고 호랑이들은 이를 똑같이 따



라해 본다. 토끼가 울면서 퇴장한 후, 이끔이는 다시 해설자가 되어 상황을 정리한 뒤, “누구 다른 동물 해볼 사람?”하고 물어본다. 개구리, 거북이 등의 동물을 제안해서 시도해 보았다.

## (2) 동물들의 회의

해설자로 돌아와 “숲 속의 동물들은 호랑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호랑이에게 당한 동물들이 하나 둘씩 숲 속에 모였습니다.” 동물들 중 하나로서 “으앙 호랑이 너 우리 형한테 이틀 꺼야!”하며 들어가고 아이들도 각자 원하는 동물이 되어 호랑이 때문에 화나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때 이끔이는 “너도 그랬니? 나도!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따라하잖아.”하면서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호랑이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의견을 중의 두서너 가지를 실제로 진행시켜 봅니다. 이 때 보조 교사가 호랑이의 역할을 해주거나 아이들 중 원하는 아이가 호랑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실제로는 다 들리더라도 모르는 척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제안 : 함정을 파놓고 호랑이가 빠지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마임으로 모두 한 공간을 함정을 파놓고 나무가지도 가져다 살짝 걸쳐놓고 물도 부어놓자고 해서 물도 함정 안에 부었다. 그리고 모두 숨었다. (공간 안의 큰 테이블 아래와 피아노 옆 등에 정말 보이지 않게 숨죽여 숨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을 즐기는 듯 했다.)

호랑이 역할을 맡은 보조교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돌아다니다 마임으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 대었다. “살려주세요! 호랑이 살려!”하는 말에 아이들이 모두 외기양양하게 뛰어나와 호랑이를 내려다 보았다. 이끔이의 역할 안에서 “구해줄까?”하는 말에 착한 아이들이 금방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근데 혹시 거짓말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하자 몇몇 아이들이 금새 “맞아!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다시 물어보자. 호랑이 너 정말 다시는 안그럴까?”하며 반응을 했다. 남자아이들 중에는 ‘때려줘요, 구해주지 말아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대개의 아이들은 호랑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구해주자는 의견이었다.

두 번째 제안 : 호랑이가 한 것처럼 호랑이를 따라해서 꿀밤먹이기

아이들은 호랑이가 온다고 하자 첫 번째처럼 숨어있고 싶어서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호랑이가 등장하자 모두 다시 기어나와 따라할 준비를 했다. 호랑이가 먼저 ‘애들아, 뭐하냐?’하면서 말을 걸면 모든 아이들이 이것을 따라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호랑이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따라해.’라며 사과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우리도 너 때문에 아까 울었던 말이야.”하며 호랑이를 혼내준 뒤, 용서하고 함께 친구가 된다.

## 중모동 무모동 무모동 무모동

\* 소연이는 자꾸 엄마가 있는 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야기 진행이 흥미있으면 되돌아 왔다가 다시 가기를 반복했다. 서원이는 너무 수줍어하기는 하지만 따라하기는 편하게 잘 따라했다.

## • 평가

유아에게는 이야기 구조 안에서 하는 연극놀이가 자연스럽게 잘 맞는 것 같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장면 등 극적 상황에서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일 것처럼 강한 몰입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호랑이를 표현해준 배우인 보조 교사의 도움이 컸다. 상황에 몰입해서 각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 맞게 대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연극이 무척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 특히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 할 때보다 연극 안에서 진실되게 이야기 되었던 점이 좋았다.

## • 참고도서

- 1) J.H. Davis and M.J. Evans, Theatre, Children and Youth, Anchorage Press, 1982, p262
  - 2) V. Glasgow Koste, Dramatic Play in Childhood, Heinemann, 1995, p3
  - 3) 새 유아교육총서,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이숙재, 참지사, 1992. 8.10, p13
  - 4) J.H. Davis and M.J. Evans, Theaterand Youth, Anchorage Press, 1982
- 재인용 : 최영애, 아동 청소년 연극교육의 실제와 전망, 연극의 이론과 비평, 창간 준비호, 1999

##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연구·실천 작업을 지원·격려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현장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교사들의 연구, 실천내용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현장의 요구와 제안을 보육제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 • 모집대상

보육교사

### • 공모부문

보육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교사의 연구·실천 내용 (주제에 제한 없음)  
보육교사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자격제도, 재교육, 처우 등)

### • 상 금

연구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실천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발전하는 보육상 : 상금 30만원(1명)  
장려상 : 상금 10만원(약간 명)

### • 응모 방법

신청 접수 : 한국보육교사회  
접수 기간 : 1999년 9월-1999년 12월 15일까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3층

전화02-2275-8505 전송02-2275-8506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 당일 소인 유효함.

※ 심사결과 1월 중 개별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 시상식 및 발표회는 2000년 본회 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본회가 실시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국내강사의 원고가 실린 사전 자료집은 행사 전에 나왔고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에서 초청한 3분의 강사의 강의내용은  
녹음 녹화한 것을 일일이 녹취하고 감수를 받느라 7월에야 나왔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 •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자료집1

(가격 3000원 우편발송비500원 별도)

#### 목차

영아보육의 보육환경 및 일과 구성 권혜진  
성공적 통합프로그램의 구성요건과 프로그램 구상 윤선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고유한 프로그램 구상 유정은

### •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자료집2-발도르프교육을 통해 본 특수보육

(가격6000원 우편발송비 포함)

#### 목차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인간형 Wolfgang Sasmannshausen  
언어·동작의 의미와 관계 Joerg-Hermann Schroeder  
발도르프 교육현장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Wolfgang Sasmannshausen/Gisela Braune  
발도르프교육활동의 일반적인 실제 Wolfgang Sasmannshausen/Gisela Braune  
<영아 보육>  
현대영아기의 발달과 의미 Wolfgang Sasmannshausen  
영아와 어른(교사)과의 실제적 관계 형성 Gisela Braune  
영아보육의 실제적 질의 응답 Gisela Braune  
영아기의 감각교육 Wolfgang Sasmannshausen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동기의 심리학적·교육학적 측면 Wolfgang Sasmannshausen  
교사 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 Joerg-Hermann Schroeder  
방과후 보육구상과 실제 및 질의응답  
<장애통합보육 및 행동수정>  
교사 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 Joerg-Hermann Schroeder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조건에 따른 아동의 행동지체 및 발달지체  
Wolfgang Sasmannshausen  
교사 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I Joerg-Hermann Schroeder  
특별한 문제행동 및 장애아를 지도한 교사의 실제 사례 Gisela Braune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성폭력피해자 지원 의료 연계망 안내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전화766-6024, 전승766-6025) 산하 여성문제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 연계망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처치를 시행한다. 성폭력 피해(어린이 성폭력 포함)가 발생하였을 시, 직접 아래의 의료연계망에 속해 있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거나 인의협 본부의 상근의사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움 요청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한 사건개요서를 준비해가면 좋다.

인의협 의료지원망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 연계망 안내도 S-S MediNet Information  
 인의협 본부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88-4 동화빌딩 509호 TEL 766-6024 FAX 766-6025

|                                                                                                                                                                                                                    |                                                                                                                                                                                                                                                                                                                     |                                                                                                                                                                                                                                                                                                                                       |                                                                                                                                                                                                                                                                                                                                                                                                                                                                                                                                                                                                                                                                                                                                                                                                                             |                                                                                                                                                                                                                                                                                                                                                                                                                                                                                                                                                                                                         |
|--------------------------------------------------------------------------------------------------------------------------------------------------------------------------------------------------------------------|---------------------------------------------------------------------------------------------------------------------------------------------------------------------------------------------------------------------------------------------------------------------------------------------------------------------|---------------------------------------------------------------------------------------------------------------------------------------------------------------------------------------------------------------------------------------------------------------------------------------------------------------------------------------|-----------------------------------------------------------------------------------------------------------------------------------------------------------------------------------------------------------------------------------------------------------------------------------------------------------------------------------------------------------------------------------------------------------------------------------------------------------------------------------------------------------------------------------------------------------------------------------------------------------------------------------------------------------------------------------------------------------------------------------------------------------------------------------------------------------------------------|---------------------------------------------------------------------------------------------------------------------------------------------------------------------------------------------------------------------------------------------------------------------------------------------------------------------------------------------------------------------------------------------------------------------------------------------------------------------------------------------------------------------------------------------------------------------------------------------------------|
| 인의협 상근의사<br>NAC응급의학과<br>학교건강관리소<br>김지영내과<br>정준권내과<br>안일내과<br>최종호내과<br>조은의원<br>강영석내과<br>안산내과의원<br>유소아과의원<br>성동주민의원<br>상계주민의원<br>사당의원<br>사당의원<br>우리가정의원<br>성남의원<br>광희의원<br>성애의원<br>인천의원<br>김영주가정의원<br>한백의원<br>안성농민의원 | 지 철<br>황정연<br>강원주<br>김지영<br>전준권<br>한상룡<br>최종호<br>조은연<br>강영석<br>안용태<br>김유호<br>문여운<br>박태훈<br>백인미<br>김종구<br>임철균<br>신상진<br>조계성<br>조계현<br>하성호<br>김영주가정의원<br>이재광<br>이인동<br>강대곤<br>배기영<br>전지홍<br>김종하<br>정혜신<br>강현숙<br>이종호<br>이종민<br>윤애리<br>이도희<br>이동근<br>서인근<br>김현식<br>김경<br>김종한<br>이명임<br>이필한<br>명신숙<br>염석호<br>나오순<br>이종찬 |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br>서울 종로구 을지로6가<br>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br>서울 마포구 대흥동<br>서울 송파구 방이동<br>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br>서울 성북구 동소문동<br>서울 서초구 잠원동<br>경기 부천시 원미구<br>경기 안산시 완곡동<br>서울 강서구 가양동<br>서울 광진구 화양동<br>서울 도곡구 상계동<br>서울 동작구 사당동<br>서울 동작구 사당동<br>서울 성동구 마장동<br>성남 중원구 상대원2동<br>인천 부평구 부개동<br>인천 중구 남동<br>인천 남구 주안동<br>인천 남구 용현동<br>경기 안산시 완곡동<br>경기 안성군 안성읍 | TEL 766-6024<br>TEL 2260-7412<br>TEL 3999-567<br>TEL 717-5665<br>TEL 421-5553<br>TEL 678-0105<br>TEL 923-5991<br>TEL 537-8161<br>TEL 032-662-6281<br>TEL 0345-492-0777<br>TEL 668-0011<br>TEL 498-4353<br>TEL 932-7611<br>TEL 537-9805<br>TEL 599-5212<br>TEL 2292-5851<br>TEL 0342-733-2422<br>TEL 032-524-6911<br>TEL 032-766-7101<br>TEL 032-868-1771<br>TEL 032-887-1668<br>TEL 0345-483-7703<br>TEL 0344-675-0227<br>FAX 0344-676-0912<br>TEL 333-3572<br>TEL 999-6644<br>TEL 488-8855<br>TEL 415-8408<br>TEL 871-7121<br>TEL 2201-5757<br>TEL 323-9197<br>TEL 0345-402-7575<br>TEL 0343-451-2732<br>TEL 413-6283<br>TEL 993-8528<br>TEL 488-4011<br>TEL 0342-745-9900<br>TEL 0331-225-1020<br>TEL 032-527-6633<br>TEL 032-421-0958<br>TEL 032-425-3006<br>TEL 0351-862-7778<br>TEL 0341-982-5700<br>FAX 0341-982-5701 | FAX 766-6025<br>FAX 2265-0563<br>E-M<br>FAX 701-5882<br>FAX 3432-9799<br>FAX 2637-7559<br>FAX 923-5999<br>FAX 537-8030<br>FAX 662-6283<br>FAX 494-0956<br>FAX 668-0011<br>FAX 469-7825<br>FAX 932-7811<br>FAX 537-9815<br>FAX 537-9815<br>FAX 733-2423<br>FAX 526-7608<br>FAX 766-8998<br>FAX 868-1772<br>FAX 483-7703<br>FAX 324-3572<br>FAX 999-6996<br>FAX 488-8820<br>FAX 2202-7379<br>FAX 871-7122<br>FAX 457-1204<br>FAX 000-0000<br>FAX 402-7575<br>FAX 451-2732<br>FAX 413-8186<br>FAX 488-4012<br>FAX 745-9900<br>FAX 225-1023<br>FAX 527-6632<br>FAX 421-0959<br>FAX 425-2013<br>FAX 862-7776 |
|--------------------------------------------------------------------------------------------------------------------------------------------------------------------------------------------------------------------|---------------------------------------------------------------------------------------------------------------------------------------------------------------------------------------------------------------------------------------------------------------------------------------------------------------------|---------------------------------------------------------------------------------------------------------------------------------------------------------------------------------------------------------------------------------------------------------------------------------------------------------------------------------------|-----------------------------------------------------------------------------------------------------------------------------------------------------------------------------------------------------------------------------------------------------------------------------------------------------------------------------------------------------------------------------------------------------------------------------------------------------------------------------------------------------------------------------------------------------------------------------------------------------------------------------------------------------------------------------------------------------------------------------------------------------------------------------------------------------------------------------|---------------------------------------------------------------------------------------------------------------------------------------------------------------------------------------------------------------------------------------------------------------------------------------------------------------------------------------------------------------------------------------------------------------------------------------------------------------------------------------------------------------------------------------------------------------------------------------------------------|

## 보육계 동향

### 극단사다리 정기공연

#### 내친구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상의 세계-

- 일시 : 9월2일- 30일
- 장소 : 대학로 샘터 파랑새 극장
- 입장료 : 단체관람시 20명 이상-4,000원, 10명~19명 5,000원
- 공연 문의 : 샘터 파랑새 극장 763-8969
- 극단 사다리 424-1421
- 후원 : 환경운동연합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주변의 물건(폐품)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버려지는 병과 플라스틱통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내친구 플라스틱>은 일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연극놀이의 방법을 이용하여 <병플릇 연주>, <얼굴 파는 백화점>, <내친구 통통이>, <상상의 동물>, <대결> 등 5개의 극으로 꾸며져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자유로운 상상속에 살아 움직이는 물체들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상상의 세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문화의 한 유형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 어린이인명극 공연안내

#### ① 어린이마당놀이 "호심 깊은 호랑이"

- 일시 : 9월4일 -12일, 11시, 2시, 5시
- 장소 : 보라매공원 내(보람터 소극장)
- 관람료 : 20인 이상 2,500원
- 문의 : 02-744-5718

#### ② 어린이 뮤지컬 "라이언 킹"

##### <서울지역>

- 일시 : 9월13일부터 16일까지

- 장소 : 서울예술극장(미아리 소재)
- 문의 : 02-923-1090

##### <부산지역>

- 일시 :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은 휴)
- 장소 : 부산 로얄예술극장
- 문의 : 032-610-7681

### 한국이웃사랑의

####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 개최

한국이웃사랑회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월간 유아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여러 단체가 후원한다. 우수 실시 기관에는 상장과 기념택지 등이 전달된다.

- 기간 : 10월1일-10월 31일
- 신청방법 : 발송된 공문을 통한 신청자 접수
- 자료발송 : 신청자에게 행사 프로그램 자료 발송(비디오테이프, 교사지침서, 이웃사랑 저금통)
- 문의 : (02)704-3808

#### 기울 소풍 및 온통의 게임 워크숍

- 일시 : 9월 19일 오후 2시-6시
- 장소 : CBS강남문화센터(2호선 교대역)
- 프로그램 : 의식 진행 및 음악 연출법, 준비체조, 명랑운동회, 집단 게임들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2)557-4682

## 보육계 동향

전세계 자동차를 만능에 볼 수 있는 곳

### 삼성교통박물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자동차가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자동차의 발달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 삼성교통박물관에 가면 전세계의 유명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증기기관차 등과 우리나라 전통교통수단의 실태모형을 만날 수 있다. 해양관과 시뮬레이터 체험관, 주전기관, 영상실로 구성된 삼성교통박물관에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 위치 : 용인 에버랜드 부근
- 개관시간 :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문의 : 0335-320-9900

신비한 역사와 나라, 중국대탐험

### 중국의귀민속문화대전

중국대사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거북모양의 나무의자와 도깨비 모양의 굴뚝, 향로 촛대, 향아리, 신안도구, 갑골문자 등 총 500여 점이 전시되며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문화체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기간 : 2000년 2월 28일까지
- 개관시간 : 오전 9:30 - 오후 10:00(연중무휴)
- 장소 : 지구촌민속박물관(남산서울타워내)
- 후원 : 중국대사관
- 문의 : 02-773-9590

"유아교육과 평화교육"

###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개발실에서는 최근 사

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고자 <유아교육과 평화교육>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명 : 유아교육과 평화교육-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 내용 : 기초강연 / 주제1 : 현대사회와 평화교육 / 주제2 : 어린이 환경과 평화교육 / 주제3 : 유아기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 주제4 : 평화교육프로그램의 실제
- 일시 : 1999년 9월 18일(토요일) 9:00-15:50
- 장소 : 한국어린이육영회 5층 강당
- 참가비 : 25,000원
- 문의 :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개발실 연구과 (02-425-1673/1679)

### 무료 인형극 공연

남산 서울 타워에 자리한 지구촌민속박물관에서 중국 회귀 민속문화 대전, 조형작가 최만숙 닥종이 인형전, 세계민속과 함께 우리 전통 민속 한마당 큰잔치 행사와 함께 무료 인형극을 공연합니다.

- 일시 : 1999년 8월 28일부터 1개월간(월중 무휴)
- 공연 내용 : 텔레토비의 일기, 충치 대소동, 머느리 방귀 왕방귀, 매룡대룡 흑부리와 심술부리, 제 크, 알라딘 외 20여편
- 장소 : 남산 서울타워 지구촌민속박물관 "세계 인형의 집"
- 지구촌민속박물관 입장객은 무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중국문화대전, 닥종이 인형전, 우리전통문화 한마당 큰잔치 행사도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입 장 료 : 단체 관람시 1,500원

## 소식과 소식

한국보육교사회 여름 연수

'99 한국보육교사회 여름 연수가 권역별로 개최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우리 문화 속에서 찾는 유아교육"이란 주제로 7월 24-25일에 걸쳐 1박 2일 동안 진행, 7월 24일에는 전라도권에서 "어린이집에서의 발도르프 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같은 주제로 경상도권은 8월 10일에 연수를 마쳤습니다. 총 참가자는 약 260명 정도였으며 각 지부 회원들의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많은 비회원들도 연수에 참가하는 등 성공적인 여름 연수였습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 참가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에서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스위스 도나우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에 한국보육교사회가 추천하는 2명의 교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분을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이 와 지부지회를 통해 추천받고 선발한 결과 서울지부의 김진숙선생님과 부산지부의 김경혜 선생님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에 관심있는 우리 회원 5분도 자비로 참석하며, 윤선영선생님이 인솔, 통역 등에 도움을 주십니다.

잘 다녀오기를 바라며 참가자들이 돌아와서 풀어놓 보따리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룹작업운영자 모임

각지부·지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과 현장연구작업을 하는 소모임의 대표들이 모여 모임의 내용을

교류하고 작업의 성과를 총괄하여 보육자료집을 내고자 그룹작업 운영자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여 지난 7월 10일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모임에서 논의한 결과 각 소모임의 내용이 너무 다르고 운영자모임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다시 소모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곳도 있어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는 회원과 모임에서 제기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고 연구일기를 기록하는데 합의하는 소모임의 대표들로 재구성하여 9월 4일 다시 모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 정책단 회의

올 상반기에 보육정책 중 교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구조 마련에 대한 요구들이 지부에서 있었으며 민간단체 주도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책개발위와 더불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으로 교사정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서미연(서울,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 이윤경(서울), 황미혜(평생회원), 김명선(부산) 선생님 등이며 1999년 7월 14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4차 모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교사 정책단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중 교사자격 기준, 자격증 제도,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등 교사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으며 방과후 보육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인천외원 정기교육

7월 10일 오후 7:00 인천 예술어린이집에서 회원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 정기교육에는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여 "현 시

## 소식과 소식

기의 보육정책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 여언 복지위원회의

7월 13일 오전 9:00에 여성단체연합의 제6차 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어 정희연 회장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 작업에 관한 건, 지역복지 행정체계 개선방안, 방과후 아동생활지도 제도화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인력의 리더쉽 강화훈련에 관한 건, '베이징 + 5' 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 여언 임원회의

7월 14일 오후 1:00에 여성단체연합의 임원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여성단체연합 이사회의 회계로 있는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진행된 논의 안건은 7~8월 사업계획심의, 회원단체 지역조직 확대원칙 및 지역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국민 연대회의 가입에 관한 논의의 건 등이었습니다.

### 보육관계자회의

7월 22일 오후 2:00~6:30에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보육관계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전 국 시·도 보육담당계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및 시·도 지부장, 우리 회의 정희연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현 보육정책의 방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종사자 자격관리 방안, 보육관계 제도개선의 건, '유아교육법' 관련 사항, 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유아보육시설 문제

및 대책, 보육시설 안전관리 등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희연 회장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보육교사 임면보고 의무 폐지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유아보육프로그램연구'에 관한 자문회의

7월 29일 2:30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에서 '창의성개발을 위한 유아보육프로그램 연구'에 관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학교의 아동학과 이영 교수의 연구팀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회의에 정희연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연대회의

7월 30일 오후 2:00 제1차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연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여성 단체연합, 우리 회, 서울YMCA, 공동육아 연구원,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참석하여 개정되어야 할 영유아보육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법안 상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방과후보육 관련 연대회의

8월 10일 오후 4:00 방과후보육관련 연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여성단체연합, 우리 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스리기 선교회, 김재인 여성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방과후보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방과후보육의 법제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소식과 소식

### 2000년 여성관련예산 상정에 관한 간담회

8월 17일 오후 2:00에 국민회의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2000년 여성관련예산 상정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각 여성단체의 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회에서는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논의의 내용은 각 부처의 여성관련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건의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보육관련 예산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만5세아 무상보육 예산 43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정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2차 연대회의

8월 18일 오후 2:00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2차 연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기존의 회의 참석자 외에 유희정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참여단체가 영유아보육법의 전문 중 관련 조항들을 나누어 법안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수련회

8월 18일~20일에 걸쳐 전북 임실 환경교육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의 사무국장들이 모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본회에서는 최순옥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성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살아가기' '여성주의적 조직운영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사무국장들이 한명씩 나와 자신의 인생역정과 사무국장으로서 살아온 과정, 현재의 고민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동병상련의 아픔도 나누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주의적 조직운영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사무국장 위로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실상사'님의 안내로 '지리산 명찰답사'를 하며 자연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돌아보기도 하고 스님의 좋은 말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보육교사지침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8월 27일 오후 3:30에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보육교사지침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보육교사들에게 배포될 교사지침서의 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희연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응급처치 등이 될 것입니다.

### '99 제2차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 회의

9월 3일 오전 10:3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회의실에서 '99 제2차 서울특별시 보육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서울시 보육위원회의 자격으로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지부소식

### 서울지부

· 북부지회 - 월례회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 후 월례회의는 회원들의 동정을 알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 소식과 소식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월례회의 주제는 어린이집 안전교육입니다.

7월 20일에서 8월 5일까지 '제2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우리 장단'의 제목으로 교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애영(노래패아라리요 대표)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겨울에 배울 수 있는 노래를 주제로 장구배우기와 노래 익히기를 했습니다.

· 남부지회 - 소모임을 새로 시작합니다.

① 공동체 교육 소모임「한울타리」- 우리의 아이들이 여럿이 같이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소모임입니다.

② 그림책 소모임「그림같이」-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교사가 본 후 아이들의 반응을 정리해 내는 비평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림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는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그림책이 무엇인지 이론적인 공부도 합니다.

### 부산지부

· 8월 17일-20일에 일본야외생활추진협회의 강사들이 직접 부산으로 와 부산의 인근지역 먹거리에서 '숲속 물레교실'을 열었습니다. 4일간 - 물레교실(5-6세), 크누타나(2-4세)하루, 스트로바레(초등 저학년반) 하루-이아졌는데 20명의 전체 참여 인원 중 보육교사회 회원은 6명(부산회원5명, 부천의 임미란 선생님)이었지만 교육기간 내내 열심히 참여하여 보육교사회의 위세를 유감없이 떨쳤습니다.

· 8월 21,22일 영도 합자골에서 회원 27명이 참여한 부산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숨은 목표가 잘 노는 부

산보육교사회였었는데 정말 숨은 의도대로 거의 모든 회원들이 낚시를 배우며 화끈히 놀았답니다. 온 몸을 불태워 밤 세운 후유증으로 뒷날 상반기 평가, 하반기 계획 잡기 시간에는 흥기가 빠져 해를거리긴(?) 했지만 부산보육교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확실하게 석여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 광주지부

· 7월 31일 ~8월 1일, 1박 2일에 걸친 회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조직의 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이후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8월에는 두차례의 운영위원 회의를 거치면서 상반기 사업의 총 점검과 수련회와 조직 진단 토론회를 바탕으로 하는 하반기 사업 전망을 세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내부 사업에 힘을 쏟아 조직 내실화를 다질 예정입니다.

### 대구지부

· 7월4일 전체회의가 디딤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 디딤어린이집은 8월에 상반기 가와 하반기 계획을 마련했고 자원활동가 1박2일 교사 활동 산행이 있었습니다.

· 감나무골 어린이집은 지역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노릇들"을 진행했습니다.

· 한사람에서는 매월 "문화체험학교"로 산행(14-18세 연령의 일반, 장애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 소식과 소식

###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서울 남부,씩씩이 어린이집의 김수연 선생님이 10월 9일에 결혼을 합니다. 씩씩이의 늙은 언니들을 제치고 먼저 가는 수연 선생님, 지금처럼 여유있고 따뜻한 가정 꾸리기를 바랄게요.

· 서울 서부,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민은홍 선생님이 10월 30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수원, 광동어린이집 윤금주 선생님이 10월 16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민은홍 선생님, 윤금주 선생님 행복하세요.

#### 출산하셨습니다.

· 안산의 박금희 선생님이 또 득남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딸이라 여기며 내심 흐뭇해 했는데 둘째 아이도 아들이라 죄금, 아주 죄금 섭섭해 하셨습니다.

· 보육정보연구소에서 근무하다 나주로 시집가 농부의 아내가 된 이선주 선생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모쪼록 10달 동안 잘 키워 건강한 아이를 뱃속 낳기를 기원합니다.

#### 축하합니다.

· 오래전(?)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사회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열심히했던 박상희 선생님(정책개발위)이 다시 복학해서 만학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 평생회원인신 김명미 선생님의 첫아이의 돌잔치가 9월4일 6시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외비를 내셨습니다. (7월 3일~9월 7일)

〈서울지부-북부지회〉 7월 완납

〈서울지부-남부지회〉 7-8월 완납

〈서울지부-서부지회〉 7월 완납

〈경기-수원지회〉 8월까지 완납

〈경기-기타〉 유필녀8월 박부자1-7월

전경희6-7월

〈부산〉 7월 완납

〈광주〉 3-4월 완납

〈기타〉 서은희7-9월

〈자료회비〉 백해영, 김현정,

〈후원해주셨습니다〉

인천지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회원님들(15만원)

박정애(35만원)

### 본회 8·9월 활동일지

8월 8 경상도권 여름연수

10 집행위 회의

13~14 중앙 사무국 M.T

16 교사정책단 3차회의

17 여성특위 '2000년 각부처 여성관련 예산 책정을 위한 간담회' 참가

신입회원교육자료집 기획팀 회의

18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18~20 여연 사무국장단 수련회

24 교사정책단4차회의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

9월 4 현장연구그룹운영자모임 2차

6 집행위원회 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7 교사정책단 5차 회의

10~11 여성복지학교

11 4차 정기 이사회

## 편집부에서

### 앗! 나의 실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애 선생님의 뒤를 이어 『우리네 아이들』 편집을 새로 맡게 된 이경녀입니다. 몇년동안 저희 회지를 구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부'에서라는 코너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편집자가 담당해야 하는지를 오늘에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8월호에는 이 코너가 그만 빠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난호를 보니 여기저기 실수가 많더군요. 흠, 흠, 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라 그러려니 여기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원고를 보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정정입니다

지난 99년 7/8호중 권두언(유희정 선생님의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을 생각해 본다")중 다섯째 줄에 "한국보육교사협의회"를 "한국보육교사회"로 정정합니다.

### 박정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교사회 조직부장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우리네 아이들 편집을 맡아 주셨던 박정애 선생님이 편집을 그만 두십니다. 두달에 한번 발행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데 몇년동안 매달 회지를 발행하느라 고생하신 박정애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구독자의 입장에서 회지를 보니 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선생님의 땀과 노고들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종종 사무실에 들르셔서 여러가지 조언과 도움 꼭~욱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와 건강의 밀진이 바뀌었습니다

99년 1,2월호까지 어린이와 건강 부분을 집필해 주시던 고시환선생님이 잠깐의 외출을 끝내고 돌아 오셔서 지난호부터 다시 집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보육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달 동안 어린이와 건강란을 맡아 집필해 주신 민용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아일기'는 필진의 개인 사정상 이번호에는 없습니다.

##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이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의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아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창동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천리안)